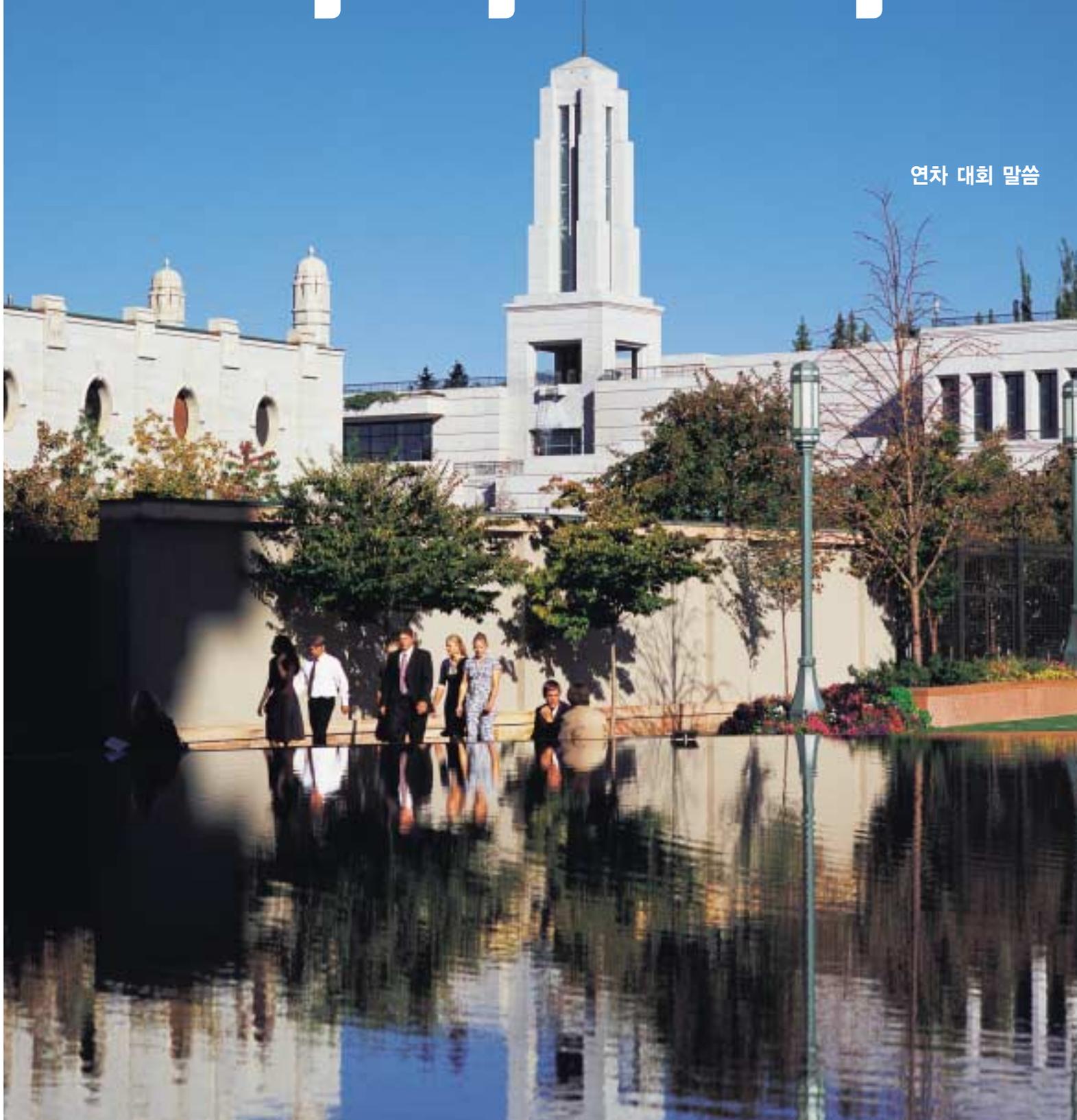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저는 이 교회의 사명이 원방에 세우는 기가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증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피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위대하고도 포괄적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을 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라고 헝클리 대관장은 173차 반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말씀했다. 이번 호에는 2003년 10월 4~5일에 열린 다섯 차례의 대회 모임과 본부 상호부조회 총회의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다.



클렌 에스 홀킨슨, 여행을 시작하며

1837년~1847년 사이 영국 제도에서는 1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개종했다. 그들 중 거의 5,000여 명이 1840년을 기점으로 영국 리버풀을 출발해 미국으로 가는 이민선에 올랐다. 적어도 서른 여섯의 무리로 구성된 그들은 마침내 일리노이 나부에 도착했다.



로우런드 리, 세인트 조지 성전

1877년 4월 6일 헌납된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은 나무 성전 이후 완공된 첫 번째 성전이 되었다.
브리검 영 대관장은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윌포드 우드럼 장로를 성전장으로 성별했다.
죽은 자를 위한 첫 번째 엔다우먼트가 바로 이곳에서 집행되었다.

리아호나

2 제173차 반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 4 **교회 현황**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8 **분명한 토대**
셸던 에프 차일드 장로
- 10 **속죄, 회개와 수치스러운 죄**
린 에이 미컬슨 장로
- 13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앤 시 핑그리 자매
- 16 **우리의 음성이 들리도록 합시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19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3 **교회役員 지지**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24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보이드 케이 퍼커 회장
- 28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으십시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32 **예언자들의 분명한 외침**
셜리 디 크리스텐슨 장로
- 34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손을 잡아 주시리라**
더블류 크레이그 조위크 장로
- 37 **회개와 변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41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십시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신권 모임

- 44 **개인의 신권 책임**
러셀 엠 넬슨 장로
- 47 **청남-열쇠를 지닌 사람들**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 50 **신권, 열쇠와 축복의 권세**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 53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56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소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60 **이스라엘의 목자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7 **다리를 짓는 사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70 **하나님의 위대하심**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73 **회복의 메시지**
찰스 디디에이 장로
- 76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
- 78 **세 가지 선택**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82 **원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5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엘 톰 페리 장로
- 89 **예언자 요셉의 사명에 대한 지속적인 간증**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93 **"와서 나를 따르라"**
윌리엄 더블류 팜리 장로
- 95 **당신은 성도입니까?**
퀸틴 엘 쿡 장로
- 97 **겸손의 힘을 부여받다**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 99 **오픈된 선견자**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102 **복음대로 좀더 온전히 생활합시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상호부조회 총회

- 104 **사랑을 선택함: 이 좋은 편 보니 디 파킨 자매**
- 107 **간증: "이 좋은 편을 택하라"**
- 108 **그분과 맺은 성약으로**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 110 **그러므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택하라**
앤 시 핑그리 자매
- 113 **교회의 여성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6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役員**
- 116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役員들의 말씀**
- 119 **참고 지도서**
- 124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24 **교회 소식**



제173차 반연차 대회 보고

2003년 10월 4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 폐회 기도: 에이치 앨드리지 길레스피 장로, 음악 제공: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 존 롱허스트, 찬송가 68장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장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13장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58장(영문) "I Saw a Mighty Angel Fly", 어린이 찬송가 6장 "어린이의 기도", 찬송가 70장(영문, 1948)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2003년 10월 4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디 리 토블러 장로, 폐회 기도: 키스 케이 힐버그 장로, 음악 제공: 유타 주 남부 지역 독신 합창단, 지휘: 제임스 시 카슨, 오르간 반주: 린다 마기즈, 찬송가 142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85장 "약한 자여 겸손하라", 찬송가 149장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15장(영문) "Come, Ye Disconsolate".

2003년 10월 4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및 사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개회 기도: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폐회 기도: 에이치 로스 워크먼 장로, 음악 제공: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신권 합창단, 지휘: 더글러스 브렌츨리,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티슨, 찬송가 167장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46장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27장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18장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2003년 10월 5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개회 기도: 안헬 아브레아 장로, 폐회 기도: 키스 크로켓 장로, 음악 제공: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 오르간 반주: 존 롱허스트, 찬송가 43장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148장(영문) "Sabbath Day", 어린이 찬송가 42장 "주 사랑 느껴요", 찬송가 32장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75장 "승리한 나의 구속주", 구노우 곡 "O Divine Redeemer".

2003년 10월 5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개회 기도: 크리 엘 코포드 장로, 폐회 기도: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장로, 음악 제공: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린다 마기즈, 찬송가 52장 "하늘 아래 사는 온 백성아", 찬송가 148장(영문) "Sabbath Day", 어린이 찬송가 42장 "주 사랑 느껴요", 찬송가 32장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75장 "승리한 나의 구속주", 구노우 곡 "O Divine Redeemer", 찬송가 97장(영문) "Lead, Kindly Light", 찬송가 35장 "군도다 그 기초", "My Shepherd Will Supply My Need", 찬송가 217장(영문) "Come, Let Us Anew".

2003년 9월 27일 토요일 저녁 상호부조회 총회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보니 디 파킨.

개회 기도: 주디스 에프 에드워즈, 폐회 기도: 에일린 에스 피게이레스, 음악 제공: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및 가족 역사 센터 선교부의 자매 선교사들과 BYU 여성 합창단, 지휘: 비키 맥머리, 오르간 반주: 린다 마기즈, 찬송가 220장(영문) "Lord, I Would Follow Thee", "Choose That Good Part", 찬송가 95장 "사랑하는 구세주여", 찬송가 113장(영문) "Our Savior's Love".

연차 대회 녹화 기록 구입

여러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모임 녹화 기록은 일반적으로 대회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여러 나라의 언어로 통역되어 있는 대회 말씀을 찾아보시려면, 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대회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사진 촬영: 매튜 레이어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연차 대회 장면들은 크레이그 다이몬드, 윌든 시 앤더슨, 존 록, 매튜 레이어, 켈리 라슨, 크리스티나 스미스, 알렉시스 듀스, 마크 헤이던그렌, 나탈리 심슨 및 제드 웰스, 그리고 과테말라의 버나 로드리게즈, 하와이의 로렌스 카와사키, 일본의 타쿠지 오카다와 오사무 세키구치, 폴란드의 로렌스 지 루이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이클 레이오스가 촬영했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제11호

23991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글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고문: 이 레이 베이트먼, 몬티 제이 브라프, 제이 이 젠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

그래픽 책임자: 앨런 일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톰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콜리트 네베커 오운, 수잔 브렛, 라이언 카, 린다 스탈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사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란우드, 리사 앤 잭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케더트, 애덤 시 윌슨, 주디스 엠 팔러,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델, 킴벌리 웹,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앤 엠 가외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렌 프렛, 피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렌트 크리스티슨, 캐리 린 시 허인,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비슨, 브래드 커어,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52호, 제 40권, 제 1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3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처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November 2003 No. 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연사들(가나다 순)

고든 비 힝글리, 4, 60, 82, 102, 113
닐 에이 맥스웰, 99
델린 에이치 옥스, 37
더블류 크레이그 즈위크, 34
러셀 엠 넬슨, 44
로버트 디 헤일즈, 28
리차드 시 에즐리, 97
리차드 지 스코트, 41
린 에이 미컬즈, 10
매릴 제이 베이트먼, 50
몬티 제이 브라프, 47
보니 디 파킨, 104
보이드 케이 패커, 24
셜리 디 크리스티슨, 32
셀턴 에프 차일드, 8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76
앤 시 핑그리, 13, 110
엘 톰 페리, 85
엠 러셀 벨라드, 16
윌리엄 더블류 팜리, 93
제임스 이 파우스트, 19, 23, 53
제프리 알 홀런드, 70
조셉 비 워스런, 78
찰스 디디에이, 73
캐서린 에이치 휴즈, 108
퀼턴 엘 쿡, 95
토마스 에스 몬슨, 56, 67
헨리 비 아이어링, 89

주제별 색인

가르침, 32
가정, 56, 110
가족 역사, 53
가족, 16, 56, 110
간중, 8, 19, 28, 32, 41, 89, 102, 107
감독, 60
감사, 97
개인의 가치, 76
개중, 28
겸손, 97
경전 공부, 8, 28, 41, 78, 89
계명, 85
게시, 73, 85
교회의 성장, 4
구원의 계획, 24, 34
기도, 28, 34, 67, 89, 93
근기, 13
남성, 82
도덕성, 16, 24, 37, 70
독신 성인, 113
모범, 60, 82, 93
모성, 113
불문경, 19, 99
문화, 37
미디어, 16
봉사, 41, 44, 47, 53, 56, 60, 67, 78, 104
부부 선교사, 37, 97
사랑(Charity) 104
사랑(love), 70, 93, 102, 104, 108
상호부조회, 108
선교 사업, 4, 41, 47, 73
선택의지, 16, 78, 104, 110
성신, 8, 19, 28, 76, 89
성실, 60, 95
성약, 37, 108
성전 및 성전 사업, 13, 19, 53
성찬, 56

세속적임, 95
속죄, 10, 24, 50, 99
순종, 67, 85
신권 축복, 50
신권, 44, 47, 50, 56
신뢰, 34
신앙, 13, 19, 34, 110, 113
심판, 10, 104
십일조, 76
여성, 82, 113
역경, 8, 97
영구 교육 기금, 4
예배, 37
예수 그리스도, 32, 34, 67, 70, 93, 99, 110
예언자, 8, 32, 73, 85
외설물, 82
요셉 스미스, 19, 28, 89, 99
용서, 10
우선 순위, 78
유산, 53
유순함, 97
의로움, 44, 95
인내, 41
인도주의 프로그램, 4
자기 개발, 78
자매에, 108
자비, 93
정직, 37
존경, 102
책임, 44, 60
청소년, 47, 82
친절, 102
준, 24
하나님 아버지, 70, 76
합당성, 28, 60, 95
활동화, 56
회개, 10, 37, 78
회복, 24, 28, 50, 73, 99
희망, 13
희생, 95

교회 현황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구속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며,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심심한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조용히 이 사업의 성장과 영향에 대해 돌아켜봅니다. 1830년 4월 6일 피터 휘트머의 농가에서 몇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던 모임을 돌아켜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오늘의 발전을 있게 한 대장정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억압과 박해를 받았고, 무력에 의해 쫓겨났으며 온갖 악한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 모든 고초를 겪은 끝에 오늘날의 영광스러

운 발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 데 거하여 모든 사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저들이 나아갈 것일때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1~2, 4~5)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책임을 수행하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든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오늘 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과거에 어느 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운의 시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어느 주와 지방을 막론하고 충실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모든 주와 중앙 아메리카의 모든 국가와 남미의 여



러 국가에도 충실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남태평양 군도에도 충실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동양의 여러 나라에도 교회의 기반이 잘 잡혀 있습니다. 서 유럽의 모든 나라와 동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도 회원들이 있으며 아프리카에도 교회의 기반이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장점을 지닌 프로그램들과 그것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유익성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한 신문은 이런 논평을



컨퍼런스 센터에서 모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

했습니다. “흰 와이셔츠와 등가방, 그리고 자
전거만 보면 물론경을 보지 않더라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들이 한결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이 젊은
선교사들은 전세계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엄격한 규율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2년 동안 가족과 친구와 편한 가정
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성직에 종사하고 기도와

공부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주일에 60시간을 수고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락은 편지와 일 년
에 두 차례 갖는 전화 통화로 제한되어 있다.

“그들은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동반자
들과 함께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아침 6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선교
사업의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 생활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이
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프

리실러 너케 로우든, “부름에 응답함”, *San
Bernardino County Sun*, 2003년 8월 26
일, B1쪽)

그 기사는 어쩌면 120여 개국에서 봉사하
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였을 것입니다.

대부분 청년들로서, 시간을 바쳐 세상에 간
증을 전하는 선교사가 약 60,000명이나 된다
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다음날 해임되어 귀환하는



한 선교사 그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 지역은 몽골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열의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교회와 선교 부장, 그리고 동반자에 대한 사랑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교회의 이 독특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은 얼마나 기이한 것입니까?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3백만 달러를 기부한 일로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기부금은 십일조에서 지출하지 않았습다. 그것은 충실한 회원들이 교회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위해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 적십자사, 유엔 재단,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유엔 아동 기금, 세계 보건 기구, 범미 보건 기구에 가입하여 앞으로 5년 동안 2억 명의 어린이가 홍역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해 주고 120만 명을 홍역에 의한 죽음으로부터 예방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증한 기금만으로도 3백만 명의 어린이를 위한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훌륭한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도주의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 3월, 가난하고 취업이 어려운 나라의 귀환 선교사들과 다른 독신 회원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아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을 교회가 수립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에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19세기에 실시된 바 있는 영구 이민 기금을 본뜬 영구 교육 기금에 기부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제가 그 계획이 이루어 낸 성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한 기부로 인해 우리는 늘어난 대출 수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교회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의 남녀 젊은이들에게 10,000건이 넘는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남녀가 졸업을 했고, 그 훈련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600명의 남녀 젊은이들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 내에 졸업하여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서 취업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가족을 부양하며 교회에서 봉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트릭은 자메이카에서 영구 교육 기금으로 학업을 마친 최초의 학생입니다. 경영에 관해 받은 기본 훈련으로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국제 공항에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얻은 후 즉시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의 한 빈민가 출신인 플라비아 자매는 영구 교육 기금의 도움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자매는 컴퓨터 교육을 수료한 후에 말일성도 취업 센터의 도움을 받아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레시페에 있는 큰 병원에서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 상담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재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기금이 축적된 경험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대한 보고는 고무적입니다. 다시 한 번, 영구 교육 기금을 위한 여러분의 후한 기부와 관심과 기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대영제국은 해가 지는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제국은 이제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업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줄 때 이 사업에서 해가 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그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장을 걸었던 국가들도 머지 않아 개방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드인 작은

들은 계속 퍼져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다니엘 2:31~45; 교리와 성약 65:2)

하나님께 이 위대한 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온 세상의 말일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성약에 충실하십시오. 복음의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십시오.

현재 교회의 상태는 양호하며, 교회는 향상되고 있으며 그 상태는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교회는 발전하고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로서 비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건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과제이며 이 사업의 장래는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충실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추구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세상 위에 우뚝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이 위대하고 세계적인 대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우리는 대부분의 총관리 역원과 그 외 역원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라고 부탁 받은 사람은 없지만, 그들 모두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영감을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대업에 충실하고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단으로 데이비드 비 헤이트 형제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이 분은 위대한 노병입니다. 헤이트 형제님은 97세로 이 경륜의 역사에 있어 그 어떠한 사도보다도 오래 살고 계십니다. 형제님은 최근에 병세가 악화되어 어려

움을 조금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이 모임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에 대한 감사와 커다란 사랑을 손을 흔들어 표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인 헤이트 형제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형제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형제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헤이트 형제님, 감사합니다.

헤이트 장로: 감사합니다.

힝클리 대관장: 오신 분들께 손을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헤이트 장로: 그래야지요, 자 흔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힝클리 대관장: 감사합니다.

헤이트 장로: 감사합니다.

힝클리 대관장: 이제 헤이트 형제님이 텔레비전을 통해 이 모임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군대에서 그분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셨습니다. 헤이트 형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분명한 토대

셸던 에프 차일드 장로
칠십인 정원희

… 우리의 간증도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여러 해 전에 맹렬한 폭풍이 우리가 살고 있던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처음에는 폭우로 시작되더니 동쪽에서 부는 파괴적인 바람이 뒤따랐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피해 상황을 살펴보니, 많은 송전탑들이 넘어지고 재산 피해가 컸으며 그 지역의 아름다운 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당에 있던 여러 그루의 나무를 잃은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집 한편에 높고 곧게 서 있던 나무들은 폭풍을 잘 이겨 낸 반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곳에 있던 나무들은 강한 바람을 견뎌 내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폭풍을 이겨 낸 나무들은 단단한 땅에 심어져, 뿌리가 영양분을 얻기 위해 땅 속 깊이 뻗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나무들은 작은 냇가에 심은 것들이었는데, 그 곳에

서는 영양분을 쉽게 얻을 수 있었으므로 뿌리가 약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폭풍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나무들처럼 우리의 간증도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바람이 우리의 삶에 몰아칠 때, 우리는 사납게 몰아치는 폭풍을 이겨 내기에 충분할 만큼 강하게 될 것입니다. 힐라멘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어다. 그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내며 회오리 바람을 불어 치게 하고, 그의 우박과 강한 폭풍으로 너희를 휘몰아칠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하고 끝없는 저주의 구렁으로 쓸어 넣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이라. 이 토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¹

물문경에서 예언자 야곱은 반 그리스도인이었던 시람을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그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나 그리스도는 지금 있지 아니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있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아노라고 하는지라.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경전을 믿느냐? 하니, 그가 그렇다 하는지라.

“내가 다시 저에게 이르기를, 그렇다면 네

가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경전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이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함이 없이 예언을 하거나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가 없느니라.

“이 뿐만이 아니요, … 성신의 능력으로도 내게 전하여 졌느니라”²

야곱은 진리의 세 가지 근원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경전과 예언자와 성신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합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 위에 세워지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³

1.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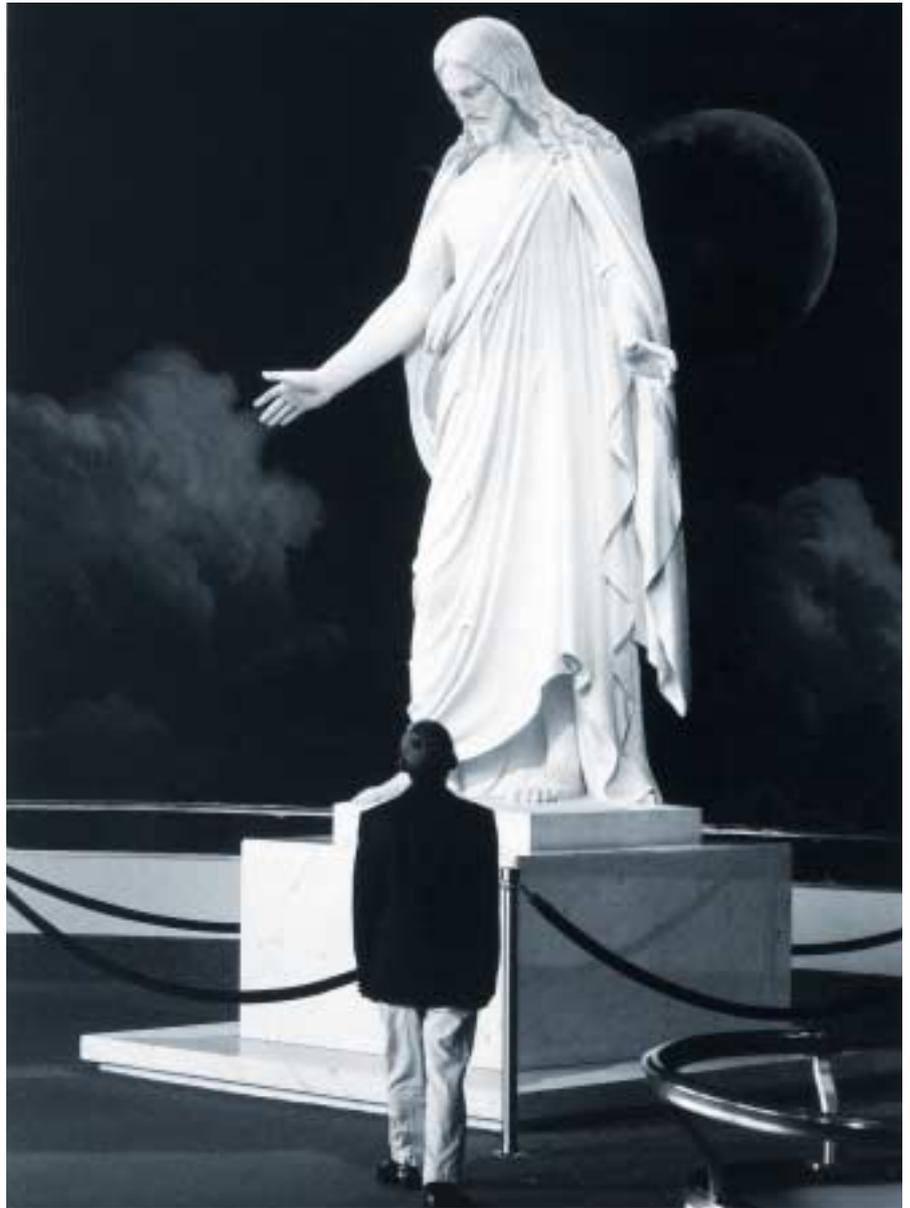
구세주께서는 친히 “경전을 연구하거나 이 [경전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⁴ 주님께서는 리하이에게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라고 지시하셨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세울 강한 토대가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중요했고, 기록을 얻기 위해서 영의 음성이 니파이에게 “하나를 처엣애미 나라가 뒤흔들리고, 불신앙에 빠져 멸망되는 일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하며 레이벤을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⁵ 역사적으로 그와 비슷한 시기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무리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세대 뒤에 모사이야 왕은 그들의 후손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제이라해물라 백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열악했습니다. 옴나이서에는 “언어는 와전되어 헝클어졌고 가져온 기록도 없으며, 창조주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⁶ 경전이 없을 경우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개인도 불신앙에 빠집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경전 공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맞을 내리게 합니다. 경전은 참으로 그분에 대해 증거해 줍니다.

2. 예언자

여러 해 전에 저는 어느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단을 재조직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았습다. 대회의 일요일 모임에서 새로 부름 받은 스테이크장의 아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

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가족을 모아 놓고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고대 예언자들에 관해 읽었을 때, 그녀는 부모님께 왜 지금 세상에는 예언자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그녀의 교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그녀는 어느 날, 하얀 셔츠와 넥타이를 맨 두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착용한 검은색 이름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성직자인지 물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만큼 오늘날의 사람들도 사랑하시나요?” “예,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는 왜 예언자가 없죠?” 그런 질문을 받은 두 젊은 선교사의 흥분된 마음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언자가 계십니다. 오늘날 지상에는 예언자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분에 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지상에는 예언자가 계십니다.” 오늘 오후 우리는 손을 들어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과 그분의 보좌들,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사도들의 간증이라는 선언문에서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게 성임 받은 그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⁷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들을 따름으로



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예언자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3. 성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⁸ 침례를 받은 후 우리 머리 위에 손이 놓여질 때, 우리는 그분의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되며 그런 다음 성신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고 합

당하다면, 성신이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성약의 회원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⁹

현재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서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충실한 성도들에게 참으로 풍성하게 내려지는 그분의 영을 느낍니다. 1989년에 폭풍이 가나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나 비의 폭풍이 아니라 박해와 비방과 오해의 폭풍이었습니다.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는 낯설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이 아닌 모든 선교사들은 그 나라를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회소에는 자물쇠가 채워지고 회원들은 감시 때문에 그 곳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모일 수도 없었으며, 따라서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보았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체포되어 투옥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동결기라 부릅니다. 회원들은 가나 밖의 교회로부터 어떤 접촉이나 지원도 받지 못했지만, 그 폭풍을 홀로 견디어 내도록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전과 예언자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신뢰했으며, 주님은 그들에게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한 교회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셨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욱 가까워졌으며 구세주께 더욱 다가갔습니다.” 18개월 동안 성도들은 동결기가 끝날 날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1990년 11월, 드디어 금지령이 풀렸습니다. 폭풍의 절정은 지나갔지만 손실이 컸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얇았으며 토대는 약했습니다. 오늘날 가나에서의 교회의 토대는 그 폭풍을 견디어 낸 사람들의 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 그리고 성신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토대 ... 이 토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¹⁰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힐라맨서 5:12.
2. 야곱서 7:9~12.
3. 힐라맨서 5:12.
4. 요한복음 5:39.
5. 니파이일서 4:13.
6. 음나이서 1:17.
7. “살아 계신 그리스도—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8. 요한복음 14:15, 16.
9. 모사이아서 18:10.
10. 힐라맨서 5:12.

속죄, 회개와 수치스러운 죄

린 에이 미컬슨 장로
찰십인 정원회

주님은 우리의 옷을 그분의 피로 씻어 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 그분은 개인적인 타락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차를 몰고 멕시코의 작은 마을을 지나다가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 나온 개를 치어 죽였습니다. 그 날부터 그는 마을에서 “개를 죽인 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그저 “개를 죽인 자”로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후세대 사람들은 정황을 모른 채 그의 행위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만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소문이나 사실에 근거한 또는 별명으로 인한 세평을 지워 버리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치스러운 문제는 공론화하지 말라”는 속담은 지혜로운 충고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든, 가

족의 일이든 그 실수나 죄를 폭로하여 공론화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며 불건전한 일입니다. 죄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회개나 변화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죄지는 자는 본능적으로 은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지만 죄가 은폐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죄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¹ 그분은 모든 일을 낱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² 그분은 우리가 불순종한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의 죄를 아시더라도 우리가 회개할 경우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주신 점입니다.³

수치스러운 죄를 씻는 것과 회개는 기본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는 주님 앞에 불결한 것이므로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기와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죄의 성격과 크기에 따라 그 시기와 장소가 정해집니다. 사람들이 알도록 죄를 지었거나 공적인 신뢰를 저버렸다면, 대중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종들과 우리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회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센터 앞의 폭포를 내다보는 방문자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는 것과 수치스러운 죄를 씻는 방법은 유사합니다. 우리의 옷을 청결케 하는 것은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경전에서 칭찬 옷은 우리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럽혀질 때 청결케 하는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용서하는 것은 구세주의 절대 권세에 속합니다.⁴ 이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왕이 제이라해물라 땅에서 설교를 했을 때⁵ 성도들은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⁶ 온 나라에 화평과 번영이 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엘마는 교회를 감리하는 부름을 받았습다.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번영을 누리자 타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범법자들이 그에게 끌려 왔을 때 엘마는 근심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들을 모사이어 왕에게 데려갔지만, 왕은 그들을 되돌려 보내면서 엘마가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엘마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심령을 다해 범법자 처리

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엘마가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크나큰 소망을 가진 것을 보시고 그를 크게 축복하시고 영생의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재판의 해법을 알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엘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교회라. 나의 이름으로 저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나의 희생으로 저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저들의 심판자이다.”⁷

우리는 심판할 권리를 가진 분을 얼마나 자주 망각합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그분이 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경우 다음의 것을 명심합시다.

- 첫째, 주님을 찾고
 - 둘째, 우리가 지은 죄의 피해자를 찾아가며
 - 셋째, 필요한 경우 우리의 이스라엘 판사를 찾아가 그 문제를 맡기고,
 - 넷째, 죄를 버립니다.
- 사적인 수치스러운 문제를 폭로하는 또다른

면은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과오를 폭로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옴이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⁸ 이런 오류가 가정 내에서 생기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생각에서 형제 자매나 자녀, 혹은 부모의 과오와 실수를 개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자기 합리화의 형태로 교묘하게 날날이 폭로할 때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들의 잘못이 아닌 아들의 가치를 보고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탕자를 교화시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를 입에 담을 때 우리는 실제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직원이 자신에게 부당한 임금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해고할 것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다니 놀랍군요. 우리에게는 다르게 가르치셨잖아요.”

아버지는 근거 없이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임금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직원과 협의하여 이견을 해소하고 문제를 종결지어야 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⁹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오자, 그분은 몸을 굽혀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지 못하도록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발한 자들이 양심에 가책을 느껴 물러가자, 그분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¹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비판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재판관이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람들의 죄를 조사하거나 들춰내지 마시고 그들이 지닌 신성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여하기보다는 그들의 덕의 크기를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2.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¹¹

3. 잊어버리십시오. 불쾌한 기억은 활기찬

영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내버려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고 싶은 유혹의 물결이 밀려오더라도 이웃이나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감독을 찾아가, 그에게 짐을 벗어놓으십시오. 필요할 경우, 민사 또는 형사 당국에 신고하고 거기에 맡기십시오. 저는 얼마가 받았던 소중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문제와 관련하여 얼마가 지냈던 것과 똑같은 정신과 그가 취했던 행동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고 그들이 그르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비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대중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같은 난처한 상황에 대해 주님은 분명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시야를 가리므로 남의 눈 속의 티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공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자극하고 키웁니다. 공감에는 동정이 아닌, 이해와 보살핌만이 있습니다. 공감은 참된 우정의 기초가 되며 존경심을 유발하고 가르침과 배움의 마음을 열어 줍니다. 수 족의 인디언은 기도에서 이런 위대한 원리를 말합니다. “위대한 영이시여, 제가

2주 동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활해 보기 전에는 결코 그를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수치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선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문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즉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¹²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옷을 그분의 피로 씻어 회개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¹³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고통당 하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타락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 죄의 대속물로 내어놓은 구세주의 속죄를 통해, 그분은 성신으로 하여금 불의 침례로 우리를 청결케 하십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청결케 하는 힘은 더러운 죄를 태웁니다. 결심을 하는 즉시 청결의 과정은 시작됩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은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시작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일리노이주 나부에 있는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합창단의 음악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음악가이며 그 지역 대학의 교수인 지휘자는 합창단과 회중을 사로잡는 대가였습니다. 그의 동작 모두가 음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휘에 따라 정확하게 노래 부르고 싶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문득 구세주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닮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빌슨 형제에게 기울인 혼신의 관심을 구세주께 쏟는다면, 우리는 빠르게 구세주의 형상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노래할 때 순간적인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었고 모두가 따르고자 하는 큰 소망을 지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열렬한 소망을 지니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청결케 하실 것입니다. 지휘자는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지 않았으며 다만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구세주와 하나가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와 매일의 생각들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휘를 했던 벨슨 형제에게 어떻게 우리의 혼을 빼놓을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이유는 없는가요?”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영의 차원에서 오직 영으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¹⁴ 이러한 일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 수치스러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청결케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 너희의 죄를 대속하사 흠이 없는 성스런 자가 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너희가 성결케 되리라”¹⁵라고 모사이야를 통해 주신 구세주의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 창세기 4:9~10; 모세서 5:34~35 참조.
- 모세서 1:6 참조.
- 교리와 성약 58:42 참조.
- 앨마서 5:21~27; 교리와 성약 64:10 참조.
- 모사이야서 2~5 참조.
- 모사이야서 5:2 참조.
- 모사이야서 26:10~24 참조.
- 율기 40:8.
- 마태복음 7:1~2.
- 요한복음 8:7, 11.
- 교리와 성약 64:10.
- 요한계시록 3:20 참조.
- 요한계시록 7:14 참조.
- 교리와 성약 88:67.
- 모로나이서 10:31~33.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앤 시 핑그리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 “멀리서” 보이는 약속을 확신하는 영적 능력인 신앙은 참되게 믿는 사람들의 확실한 척도입니다.



저는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열대 우림 속에서의 한증막 같았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 선교부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한 지역으로 여행을 하여, 이코트 예요 지방부 회원들과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 중인 이 지방부에 있는 일부 회원은 회원이 되지 채 이 년이 안 되었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전인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4,800킬로미터나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회원들은 매달 정해진 날 우리가 그들의 지방부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도 언

제 도착할지 시간을 몰랐거니와, 서아프리카의 그 지역에는 전화도 귀했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굳은 결심을 한 아프리카의 이 성도들은 성전 추천서 접견을 위해 아침 일찍 모여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저는 폭염 아래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천을 둘둘 말아 고정시킨 긴 스커트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전통적인 아프리카 머리 장식을 한 두 명의 상호부조회 자매를 보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모든 접견을 마친 후 남편과 제가 차를 타고 밀림 속 모랫길을 따라 돌아가는 도중, 저는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자매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결코 성전 추천서를 사용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그것을 받기 위해 왕복 29킬로미터의 거리를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성도들은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의 다음과 같은 권고를 믿었습니다. “즉시 또는 자주 성전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성인 회원들이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¹ 각 자매는 깨끗한 순수건에 자신의 소중한 성전 추천서를 조심스럽게 써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닌 신앙의 모범을 조심스럽게 써서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앤 시 핑그리 자매가 카메라에 담은, 전혀 사용해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양복 29킬로미터를 도보 여행한 두 명의 나이저리아 자매.

이 두 성약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신앙이란 사물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신앙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라는 말로 표현되는, “신앙에 대한” 엘마의 가르침의 의미를 보여 주는 참된 본보기입니다.²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들께 바치는 가장 개인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우선되며 매우 중요한 원리를 확고한 기반으로 삼아 우리는 예수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임을 알고 구세주를 바라봅니다.³

제 증조부의 누이인 로라 클라크 펠프스 자매님은 클라크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믿는 신앙을 독특하게 실천한 여성으로 흔들림 없이 굳게 그것을 지키셨습니다.⁴

로라 자매님이 남기신 유산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신앙의 교리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⁵ 그녀는 요셉 스미스 일세로부터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는 충실하라는 권고와 그렇게 할 때 시온에서 상속 받게 되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신

앙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할 경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망을 얻게 되리라”는 축복도 받았습니다.⁶

로라와 그녀의 남편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예언자와 그의 형 하이람이 미주리 주 파웨스트 외곽에 있는 그들의 농장으로 달려 들어오자 로라는 옷을 보관하는 곳의 커튼 뒤에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예언자를 뒤쫓아온 폭도들을 침착하게 맞았습니다.

로라는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 교회 회원들이 겪은 기쁨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여러 차례 남편과 떨어지면서 그녀의 신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유능한 산파로서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온갖 날씨 속에서도 밤낮으로 일하고 여행했습니다. 지나치게 애쓰고 고생한 결과 몸이 너무 약해지고 병세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다섯 자녀를 남겨 두고 3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살아서 신앙 안에서 그녀를 뒤따르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증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지상 생활 동안에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는 축복, 제가 생각하기에, 그녀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을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로라의 충실한 생애는 히브리서에 있는 다 음 구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확신하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인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⁷ 신앙이 로라 안에서 살아 움직였으며 로라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살았습니다.

저는 증조부의 누이인 로라 자매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범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분은 나이저리아의 그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점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⁸

이생에서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멀리서” 보이는 약속을 확신하는 영적 능력은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척도입니다. 브르스 알 맥쿱키 장로는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 충만하고 순수한 형태의 신앙은 우리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또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의 탄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 그리고 ...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⁹ 우리도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써 지금이나 미래에 “신앙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¹⁰

우리가 사는 곳이나 우리가 처한 개인적인



대회에서 회중과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가운데), 대관장단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왼쪽) 및 대관장단 제2보좌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오른쪽).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의로운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그 신앙은 필멸의 세상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 실망,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된 모든 것[을 성도들이] 받을” 그날을 고대하도록 이끄는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¹¹

나이지리아의 그 용감한 자매들은 “모든 발자취에 신앙”을 지니고 그 서아프리카의 밀림속 모랫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언젠가 자신들의 나라에도 세워지리라 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영감 받은 말씀이 그들이 바라고 또 멀리서 본 약속된 축복들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분의 복음을 회복해 주셨으며, 그 복음에 대한 간증이 그들 마음속에 타오르고, 신앙이 그들 삶의 길을 밝혀 주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함당하게 되고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라는 한 예언자의 권고를 실천하게 했던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우리[는] 나이지리아 아바에 주님의 집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대회를 통해 발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던 2000년 4월의 그 놀라웠던 날에 그 자매들과 서아프리카의 다른 많은 성도들을 정답게 떠올렸습니다.¹²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때때로 “기적은 ... 신앙을 ... 확고히 한다.”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¹³ 아프리카의 성전들은 그 광대한 대륙에 널리 퍼져 있는 조그만 여러 마을과 대도시에서 있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가지고 온 위대한 기적의 표시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개척자가 그 멀리 떨어진 성전 추천서 접견 장소까지 오게 한 그 신앙을 볼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지리아에 건축 중인 성전은 이들 자매와 그 가족들, 그리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의 상징이자 구현인 성전 추천서를 사용할 기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직까지 받지 못한 그러한 삶의 축복들은 인간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영적인 선견 지명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제나 신앙이란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밀림 속 모랫길을 따라 걸었던 그 자매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듯이, 저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대륙에 있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멀리서 보고” 있는 그러한 약속들이 언젠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축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확고 부동한 신념”¹⁴을 갖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만사”를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이 매일 우리를 도와 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성전 참여를 권고 받는 사람들”, *성도의 벗*, 1995년 5월호, 4쪽.
2. *앨마서* 32:21.
3. *히브리서* 12:2.
4. *고린도전서* 16:13; *야고보서* 1:6 참조.
5. *히브리서* 11:1.
6. Morris Calvin Phelps, *Life History of Laura Clark*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문서 보관소), 마이크로필름, 3.
7. *히브리서* 11:13.
8. *마가복음* 9:23.
9. 브루스 알 맥콩기,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187쪽.
10. *고린도전서* 16:13.
11.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12. “새로운 시작”,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7쪽.
13. *Bible Dictionary*, “신앙”, 669쪽.
14. *교리와 성약* 123:17.

우리의 음성이 들리도록 합시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입을 열어 의견을 말하고, 정신을 더욱 고양하고 영감을 주고 받아들일
만한 대중 매체를 격려하도록 합시다.



올 가을에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프로그래밍 개편”을 하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습니다. 한 친구의 얘기로는 올 가을에 새로 소개된 텔레비전 연속물이 37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논평들을 읽으면서, 그 중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트콤, 드라마, 쇼에는 부모덕, 폭력, 전통적인 가치관과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교묘하게 비웃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쇼들은 질이 떨어지면서 대중이 받아들일 범위를 넓혀 가는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것들, 인터넷에서 얻는 것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음악에서 듣는 것들은 자

녀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 모두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는 퇴폐라는 거미줄을 만들어 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 소리 높여 외치고 개인과 가족들에게 권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영원의 기본 단위입니다. 따라서 어떤 힘이 가족을 위협할 때, 교회 지도자들은 그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핵심인데, 이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이며 필멸의 세상은 우리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곳은 바로 가정의 울타리 안이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가깝게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가르치고 성품이 형성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름에서 우리는 결코 해임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지니게 되는 책임보다 더 중요한 청지기 직분은 없습니다.

가족의 중요성과 오늘날 가족이 당면한 위협적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가족에 관해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¹ 그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말라기였으며 그는 부모에게 그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라고 훈계했으며 돌이키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말라기 4:6 참조)

고대의 구약전서 그리고 현대의 가족 선언문에 있는 이런 경고에, 저는 저 자신의 경고의 음성, 특별히 오늘날의 대중 매체와 그것이 가족과 가정 생활에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부정적 영향에 관해 경고의 음성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 거대한 규모로 인해 오늘날의 대중 매체는 거대하면서 매우 상대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지닌 해롭고 자유 방임적인 측면과는 반대로 대중 매체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도 제공합니다. 텔레비전은 역사, 탐험, 교육 채널을 제공합니다. 오락을 제공하고, 정신을 고양하며, 옹고 그른 것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영화와 코미디와 드라마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와 의사 전달의 획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세상에 있는 좋은 음악을 무제한적으로 공급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일입니다.

예언자 리하이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토록 자유로울 것이요, 선과 악을 알며 ...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하고 ... 자유로우며 ...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니파이이서 2:26~27) 있습니다.

대중 매체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인생에서의 선택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유행하는 풍조와 자극적이고 저속한 것을 선택한다면, 결국 생활에서도 똑같은 것들을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대중 매체는 가족을 황폐케 하고 자녀들을 좁은 복음의 길



에서 이탈시킬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면을 통해 공상 또는 가상 현실 속의 가정 파괴 행위나 견해들이 즐겁고 멋지며, 흥미롭고 정상적인 것으로 빈번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대중 매체의 가장 파괴적인 공격은 대체로 직접적이거나 정면으로 오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부도덕하지도 않습니다. 악마는 그런 일에 너무도 교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가족과 전통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표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교묘하고 도덕과는 관련이 없는 듯, 즉 옳고 그름의 판단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부도덕과 성적 암시가 도처에 있고, 이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해악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 바로 우리 가족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족이 강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개조 제13조에 설명되어 있는 진리, 곧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에 대한 믿음으로 양육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문화권과 종교권 내에

는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 분들은 또한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시대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 시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 무정하며 ... 모함하며 ...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디모데후서 3:1~4) 때라고 전했습니다.

선행보다는 돈이나 권력이나 물질을 얻으려는 의도로 공모한 사람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 온갖 ... 악행을 저지르게 하며(말마서 11:20 참조) 대중 매체가 고상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대중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새로운 도덕은 구시대의 부도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를 공격합니다. 가족을 훼손시킵니다. 유덕을 악덕으로, 그리고 악덕을 유덕으로 변모시킵니다. 감각을 공격하고 또 유덕하지도 않

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듣기 좋지도 않으며 칭찬할 만한 것도 아닌 메시지와 영상으로 영혼을 공격합니다.

교회 회원들이 큰소리로 의견을 말하고, 또 대중 매체가 주는 불쾌하고 파괴적이고 천박한 영향력에 반대하는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할 때가 왔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성적인 내용을 담고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는 텔레비전 쇼가 1998년에 67퍼센트였던 것이 2000년에는 75퍼센트로 급증했다고 합니다.² 이런 종류의 대중 매체는 많은 부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불러 일으키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그분의 소중한 딸로서가 아니라 학대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겨져 왔던, 혼전 성 관계의 자제와 결혼 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완전한 충실이 더럽혀지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열광하고 닮고 싶어하는 소위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 주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은 그들을 혼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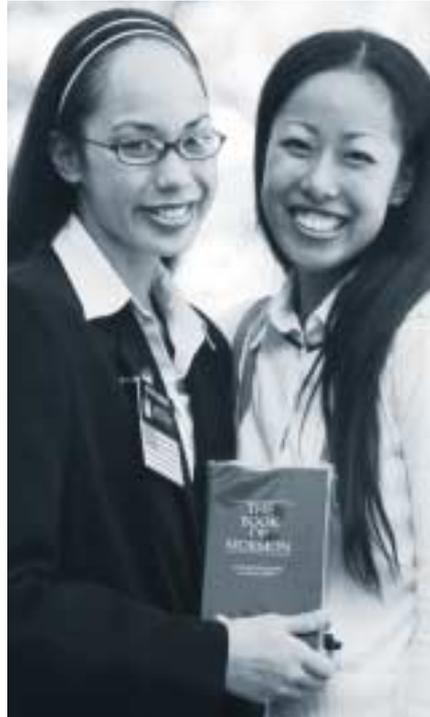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에 의해 형성된 도덕적 혼란 속에서 가치관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포르노”, 즉 인터넷을 통해 성적 중독에 이르게 되는 증상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외설물을 보고 또 위험한 온라인 대화방에 참가할 정도로 중독되어 결혼 성약과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무시하고 종종 직업마저 위태롭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왜곡된 행위의 범위를 넓혀 부모덕한 중독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중독자들이 종종 실제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결혼은 허물어지고 소중한 관계는 깨어집니다.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이 ... 사회 적응 과정과 가치관 전달의 주요한 [수단인] 가족과 학교와 교회들, 차례대로 대체했다. ... 탐욕, 무절제, 폭력, 끝없는 자기 만족, 도덕적 자제의 부재는 ...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멋진 흥미를 가져다주고 있다.”³

우리는 오늘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유행가 가사, 그리고 뮤직 비디오라는 비교적 새로운 “예술 형태”를 우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음악계 종사자에 따르면, 뮤직 비디오 관람자의 40퍼센트가 18세 이하라고 합니다.⁴ 한 조사에 따르면 이야기가 담긴 모든 뮤직 비디오의 약 4분의 3이 성적 이미지를 이용하며 또 거의 반이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⁵ 그리고 그 화면에 나오는 유행 추세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이사야 5:20) 부르는 때입니다.

가족은 사탄이 공격하는 주목표이므로 우리가 보호하고 방어해야 할 주요 대상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악한 술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사탄은 가족과 싸운다는 말이 맞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붕괴시키고 싶을 때, 사탄은 땅콩 버터에



독을 넣어 교회의 선교사 시스템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후두염을 일으켜 물론 태버네클 합창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즐겨 먹는 음식(젤로나 캐서롤)의 제조 금지법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사업의 본질을 붕괴시키고 싶을 때, 가족을 공격합니다. 가족을 공격하는 방법은 순결의 법을 무시하게 하고, 성별을 혼란케 하며, 폭력에 둔감하게 만들고, 버릇없고 불손한 언어를 표준으로 여기게 하며,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예외라기 보다는 규칙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⁶라는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추세에 반대하는 전세계의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음성을 높여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불쾌한 대중 매체를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공격적이고 정신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과 제작물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과 힘을 합쳐 우리는 관련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와 계열사들은 자신의 주소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편지와 전자 우편, 특히 상호부조회의 한 자매가 보낸

다음의 편지 내용과 같은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매주 만나서 종종 귀하의 프로그램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해악에 관해 이야기하는 수백 명 이상의 여성이 모이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중 매체에 반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단순히 그것을 시청하지도, 보지도, 읽지도, 갖고 놀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관장단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고에 따른 것을 가족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오락과 대중 매체에 관한 매우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오락이든 조금이라도 저속하거나 부도덕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인 것이라면 결코 참여하거나 보거나 가담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부도덕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소개하는 오락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표준에 맞지 않는다면, 영화나 비디오 파티에서 자리를 피하거나,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끄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거나, 잡지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십시오.”⁷

형제 자매 여러분, 대중 매체에 이용당하는 일을 거부하십시오. 조종당하는 일을 거부하십시오.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에 위배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십시오. 시작하는 우리의 음성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입을 열어 의견을 말하고, 정신을 더욱 고양하고 영감을 주고 받아들일 만한 대중 매체를 격려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자는 말씀에 덧붙여 저는 대중 매체가 우리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제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우리는 가족 평의회를 갖고 대중 매체 시청에 관한 바람직한 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좋은 활동에 참여하여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대중 매체나 또래 그룹이 아닌, 바로 우리가 항상 그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3. 우리 스스로 좋은 대중 매체를 선택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4. 우리는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을 매일 제한해야 합니다. 가상 현실이 그들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우리는 유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과 부적절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을 막는 장치를 사용하여 자녀들이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우연히 보는 경우”를 막아야 합니다.

6. 우리는 가정에서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침실이나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동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에 두어야 합니다.

7. 우리는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대중 매체를 시청하고 그들을 타락시키고 파괴하기보다는 고양시키고 건설적으로 만드는 선택을 하는 방법에 관해 토론해야 합니다.

대중 매체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빛과 진리로 그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 우리 각자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복음의 원리에 참되고 강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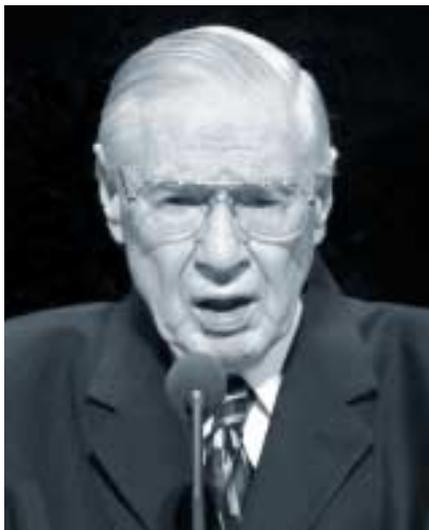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2. Dale Kunkel and others, *Sex on TV 2003: A Biennial Report to the Kaiser Family Foundation*(2003년), 40쪽 참조.
3. Zbigniew Brzezinski, “Weak Ramparts of the Permissive West,” in Nathan P. Gardels, ed., *At Century’s End: Great Minds Reflect on Our Times*(1995년), 53쪽.
4. National Institute on Media and the Family, “Fact Sheet”, Internet, http://www.mediafamily.org/facts/facts_mtv.shtml 참조.
5. Barry L. Sherman and Joseph R. Dominick, “Violence and Sex in Music and Videos: TV and Rock ‘n’ Roll”, *Journal of Communication*, Winter 1986년, 79~93쪽 참조.
6. John Bartlett 작, comp., *Familiar Quotations*, 15th ed.(1980년), ix.
7.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01년), 17쪽, 19쪽.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들을 지탱해 주는 신앙은 궁극적으로 삶의 위안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간증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성한 사명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심과 갈등을 가지신 분들에게 저의 겸손한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 저희들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시기를 구세주께 간구했던 그 아버지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¹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의심과 의문을 품고 있는 모든 이들의 불신앙을 도울 방법들이 있습니다. 빛과 진리를 찾기 위해 지식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과정에서 거의 누

구나 한 번쯤은 다 개인적인 의문들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학습 과정에서 겪는 일입니다.

우리들을 지탱해 주는 신앙은 궁극적으로 삶의 위안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간증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간증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의 예언자였던 요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요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된 복음은 진실 또는 거짓 둘 중 하나입니다.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받으려면 완전한 신앙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실한 신앙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영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런던 대학교의 교수였던 요셉 험스테드는 그 훌륭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동료들에게 교회와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참 맘에 드는군. 그런데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던 천사 이야기만 빼어 버린다면 자네 교회에 가입할 수도 있을텐데 말이야.” 그러자 험스테드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천사 이야기를 제외시킨다면 나는 교회에 속할



수가 없다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이지.”²

런던 대학교의 그 교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놀라운 면들을 보고 교회가 큰 장점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회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 스미스가 실제 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보았다는 것과 그가 천사로부터 금판을 받아 몰몬경을 번역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영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주요한 영적인 은사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직접 받았습니다. 수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인생에서 있었던 첫번째 시현과 다른 일들로 인해 받은 영향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요셉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나의 내력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내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³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어린 소년 요셉 스미스와 함께 뉴욕 주 팔마이러에 있는 그 성스러운 숲에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첫번째 시현 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같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것을 권유하는 몰몬경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진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계시에 의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참 마음과 참뜻을 가지고 간구”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실 것입

니다.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⁴

몰몬경 외에 강력한 증거들이 요셉 스미스의 주장을 확인해 줍니다. 우선 금판을 만져 보고 그 위에 새겨진 기록을 보았던 세 목격자와 여덟 목격자들은 몰몬경이 하나님의 권세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를 가장 잘 알았던 그의 가족들 역시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를 믿는 가족들 중에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삼촌이었던 존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하이람은 요셉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요셉의 사업에 대한 그의 완전한 믿음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은 모두 예언자의 간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그의 동료들도 요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요셉의 가까운 동료들 중 두 명, 즉 윌라드 리처드와 존 테일러는 요셉과 하이람이 순교당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은 윌라드 리처드에게 자신들과 함께 기꺼이 갈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윌라드 리처드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셉 형제님, 형제님은 제게 함께 강을 건너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니다. … 함께 카테지로 가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함께 감옥에 들어가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제가 형제님을 버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형제님이 혹 반역죄로 교수형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제가 대신 교수형을 당하고 형제님을 풀려 나게 하겠습니다.”⁵

존 테일러는 간증했습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다.”⁶ 실용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던 브리감 영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성임하신 분이여,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유지시킬 열쇠와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알았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⁷ 저

는 결코 이렇게 강하고 현명했던 사람들이 기만 당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를 영원히 결속시킬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종교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말씀했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오래되었거나 새것이거나, 모든 성전은 죽음 이후의 삶이 이생에서의 삶처럼 분명하게 실재한다는 우리의 간증의 표현입니다.”⁸ 자신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인봉되는 무한한 축복을 받을 권리를 요구할 실로 큰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조부모, 부모,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봉의 권세와 권능은 온전한 원리이며, 요셉 스미스에 의한 “만물의 회복”⁹을 통해 그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인봉은 영원히 결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산 자들뿐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확대되어 대리 의식을 통해 가족들을 영원히 결봉하게 됩니다.¹⁰

이 신성한 사업의 또다른 강력한 증거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교회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매우 독특한 단체입니다. 이 교회와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초기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할 때 가말리엘은 논리 있게 말했습니다. “이 ...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¹¹

이것이 모두 사실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각자 성신의 권세로 영적인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은 모든 감각 기관을 통해 얻는 것보다도 더 힘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¹²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성신]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¹³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불처럼 깜박거리다가 꺼져 버릴 때 인간적인 연약함과 다른 사



람들의 불완전함, 교회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성장과 계속되는 계시로 인한 절차상의 변화, 무관심, 또는 범법을 구실로 내세울 것입니다.

한번은 주님께서 조셉 웨이크필드를 “기쁘게 여긴다”¹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용감했고 충실했으며 수백 명을 모아 놓고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적인 사명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33년과 1834년부터 커틀랜드에 있는 몇몇 이단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때 그는 요셉 스미스의 집에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던 방에서 나와서 곧바로 몇몇의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웨이크필드 형제]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그 사업도 거짓”¹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조셉 웨이크필드는 배도를 하고, 파문당했으며,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한 저활동 자매가 자신의 아들이 선교 사업을 나갈 때 자신은 진정으로 교회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들었던 매우 감동적인 개종 이야기의 주인공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동기로 개종을 하게 된 걸까? 반면에 개척자 유산을 지니고 있는 나는 왜 아직도 진정으로 개종하지 못한 걸까?” 그녀는 물론경의 가치를 의심하고 그것이

매우 따분하다고 여겼지만 그것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기도의 힘을 믿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한번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그렇게 했고, 기도를 한 후에 물론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따분하지도 않았습다. 그녀는 읽을수록 그것에 더욱더 매료되었으며 “요셉 스미스가 그것을 지어 내서 썼을 리는 없어. 이 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책을 끝까지 읽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참된 책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 주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아름답고 기쁨을 주는 힘의 권세가 나의 온 몸 에 전율로 다가왔고, 그것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 고대의 기록들을 기적과 같이 번역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역시 진정한 개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¹⁶

신앙이 시들어 가는 이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충분한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들이 요셉 스미스가 회복시킨 것들의 진실성을 변경시키지는 못합니



대회의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교회 직원들을 지지하고 있는 회원들.

다. 요셉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온전하다고 말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친 계시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습니다.”¹⁷ 진실된 원리들이나 교리들에 대한 논박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스미스를 통해 전해진 계시들도 여전히 정확합니다! 심적인 혼란, 경멸, 죄로 인해 자신의 신앙이라는 집을 허무는 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속주이고, 요셉 스미스가 모든 복음 원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시대에 교회를 회복하도록 위임 받은 예언자였다는 확실한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막대기를 들 때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함께 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모두를 받아들이 필요 있습니다. 복음의 일부에 대한 제한된 영적인 확신도 축복이며, 때가 이르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신앙과 순종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기 있는 것과 의로운 것 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사가야 예언한 바와 같이 많은 이들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¹⁸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온 계시들은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싶으면 취하지 않는 부패 식당의 음식과는 다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많은

위대한 계시들에 대해 저희들은 그분께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의 회복에 있어서 요셉 스미스를 필적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¹⁹ 1839년 3월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가 성취되었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²⁰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커지길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로 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복음 원리들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할 때 그 원리들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²¹ 기도의 효과에 대한 간증은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로 얻게 됩니다. 십일조에 대한 간증은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얻게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심들로 인해 지식의 신성한 근원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영원한 빛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불신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빛과 진리와 지식을 찾고 받아들이겠다는 목적을 지니고 계속 노력한다면, 분명히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신앙으로 계속 전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커질 것입니다. 좋은 씨앗과 같이 불신앙으로 씨앗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싹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간증은 영적인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간증을 논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해도 성공을 거두는 자가 없는 것은 그러한 간증을 얻은 이에게는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은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늘 재충전해 주는 영적인 충전기와 같은 것이며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그 간증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그분의 계명에 복종할 것을 하나님께 언약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분에게서 태어나 ... 그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²³ 저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가복음 9:17, 24.
2. 개인 서한.
3. 교회 정사, 6:317.
4. 모로나이서 10:4~5.
5. 교회 정사, 6:616.
6. 교리와 성약 135:3.
7. 교회 재판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년), 98쪽.
8.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집”, 성도의 벗, 1993년 5월호, 74쪽.
9. 사도행전 3:21.
10. 교리와 성약 110:15~16 참조.
11. 사도행전 5:38~39.
12. 앨머서 5:15.
13. 교리와 성약 8:2.
14. 교리와 성약 50:37.
15. George A. Smith, *데저렛 뉴스*, 1858년 1월 20일, 364쪽.
16. Grace Jorgensen, “Every Member a Convert”, *Ensign*, 1980년 4월호, 70~71쪽 참조.
17. 교회 정사, 6:366.
18. 이사가야 5:20.
19. 교리와 성약 135:3 참조.
20. 교리와 성약 122:1, 2 참조.
21. 요한복음 7:17.
22. 앨머서 32:28 참조.
23. 모사이야서 5:5, 7.

교회 역원 지지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형 제 자매 여러분, 힝클리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고든 비트너 힝클리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제임즈 에스드라스 파우스트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하신 안헬 아브레아,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크리엘 코포드 장로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예롭게 해임하고 그 분들을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하신 듀엔 비 제라드, 제이 켄트 줄리, 디 리 토블러 장로님과 다음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을 명예롭게 해임하고자 합니다.

헨리 에프 아세이베이도, 블레어 에스 베네트, 크레이그 에이 불러, 라이몬도 카스테이라니, 크리스토퍼 엔 추쿠라, 로런스 알 풀러, 루베인 지 가피즈, 하비 엘 가드너, 프란시스 코지 지메인즈, 존 에이 그린세리, 시안 리앙, 이멘뉴얼 오 오파르 일세, 앨런 에이 페티웅, 클로디오 디 시노렐리, 알 로이드 스미스, 토마스 발데이스, 청 헤이(페트릭) 옹.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청남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신 글렌 엘 페이스 장로님과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호세 에이 카스트로, 윌리엄 케이 잭슨, 폴 브이 존슨, 제이 엘 시터루드 형제님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청남 회장단 보좌로 린 지 로빈스 장로님과 도널드 엘 홈스트롬 장로님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언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만장 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아무리 우리가 외견상 현대 사회의 표준과 모순되고, 아무리 표준이 하찮게 보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과 독신 성인에게,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목적은 왜 우리가 이처럼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엄격히 지키고, 마약성 약물과 차, 커피, 술 및 담배를 피하며, 복장과 용모와 언어에서 정숙한 표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¹ 여러분은 우리의 표준이 어디에서 왔으며, 표준을 완화하여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의지, 즉 “도덕적인 선택의지”가 있습니다.² 여러분은 표준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행동보다는 경전과 교리를 이용하여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회복된 교회입니다.³ 회복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의 행동 표준이 지금과 같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권능의 열쇠를 잃었으며 스스로 계시의 경로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권능은 다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권능은 고대에 권능의 열쇠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⁵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다른 교회가 변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교회를 조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항의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⁶ 척하며 자기네들의 선과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장막을 통해 돌아와서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⁷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에 동반되는 의식인 침례 확인과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는 의식에는 더 높은 권능이 필요했습니다.⁸

그로부터 얼마 후, 주님의 사도들이었던 베

드로, 야고보, 요한은 대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⁹, 곧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을 회복했습니다.¹⁰

회복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방문을 거쳐 다른 예언자들이 와서 신권의 열쇠를 회복했습니다.¹¹

회복된 권능과 더불어 교회 조직이 계시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성임되었으며 고대에 있었던 것처럼 십이사도 정원회와 대관장단이 조직되었습니다.¹² 의식들이 계시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이 번역되고 출판되었습니다. 물문경에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¹³

다른 계시들—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경전에서 우리는 지구가 창조된 이유와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¹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과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이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계획—“위대한 행복의 계획”¹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¹⁶다는 약속과 함께 시험을 받고 경험을 얻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살았습니다.¹⁷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러분]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능적인 특성이다.”¹⁸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저편까지 지속될 수 있게 해 줍니다. 성전에서만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결속시켜 줍니다. 결혼, 가족, 가정은 교회의 기초입니다.¹⁹ 교회와 문명 그 자체에 있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자신의 가족을 가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행복의 계획과 그것을 다스리는 율법은 죽음의 지평까지 계속됩니다.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는 그들은 영원한 관점에서, 결혼과 가족을 포함하여 승영에 필요한 축복을 거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축복은 기다리고 고대하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미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결혼에 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젊은이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리하이 는 젊은 자녀들에게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²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육신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행복과 승영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주님은 생명을 낳는 그 능력을 부도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가혹한 벌이 있을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²¹

사탄은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을 타락시키고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하여 생명 잉태의 송고함을 떨어뜨릴 때, 그만 큼 인간의 행복의 계획을 혼란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²²

저는 훌륭한 젊은이 여러분의 예민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죄로 가득한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사탕, 간음, 외설물, 매춘, 도박, 욕정, 학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비롯된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의 죄와 연관된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신성을 모독하는 저속한 말과 그에 수반되는 사악하면서도 농담스러운 유머를



피하자면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합당치 않은 여흥, 즉 음악, 잡지, 연극,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물론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어린 요셉이 숲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경험한 첫번째 시험을 기억하십시오. 곧 캄캄한 어둠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실체인 원수의 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으며 악의 세력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²³

기도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여러분은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기도로 힘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²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고 행동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탄은 선한 어떤 것도 타락시키려 할 것입니다.²⁵ 인터넷은 바로 그런 것으로 외설물이라는 나쁜 습관에 여러분을 빠지게 하는 그물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불행이 따를 것입니다.²⁶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도덕과 결혼을 무제한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금지된 어떤 것으로 재정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태초부터 인간의 생활과 행복을 지배해 온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열정이나 버릇 또는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열정, 버릇, 또는 약점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확신을 주며 결코 원치 않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들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성의 불꽃이 점화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들과 딸로서 선택의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²⁷ 파괴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임에 의해 달라질 수 없다고 믿게 된 열정과 버릇과 약점은 변화될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²⁸ 죄의 짐은 벗겨지고 고통은 치유될 것입니다.²⁹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부모의 자녀로서 상속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상 생활의 고통스럽고 힘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향이나 유혹으로 정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³⁰ 합당치 않은 설득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경우, 정죄를 받거나 교회 선도 평의회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세우지 않지만 표준을 가르치고 지키라는 명을 받았습니 다. 그 표준은 혼전 순결과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견상 현대 사회의 표준과



모순되고, 아무리 표준이 하찮게 보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도덕적 표준에 순종하고 지혜의 말씀을 준수하는 일은 신권 성임과, 선교사의 부름, 그리고 성전 추천서의 발급에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승인하거나 경고하는 속삭임이 있을 것입니다.³¹ 성신은 여러분이 길을 잃고 방황할 경우 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하고 여러분을 다시 주님께 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을 영원히 가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회개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 현재 교회에는 여러분 같은 수백만의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같은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범이요, 회복에 대한 간증입니다. 학교나 직장에 있을 때, 놀고 있을 때나 군대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말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르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며 계속 다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을 쓰면, 역시 그 말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순종, 정직, 절제, 회개 중심의 내 생활 방식에 대해 관용을 보이기 바랍니다.” 선택이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은 보수적이고 오랫동안 지켜져 온 도덕을 선택한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합당한 남편과 아내, 합당한 부모가 되는 일을 선택한다고 하십시오.

온 교회가 홀로 서서 이 표준을 수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만 홀로 남아 ... 나의 부친의 명하신 바를 수행하였도다.”³²

두려워하지 마십시오.³³

젊은 날, 제가 새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동부로 가서 우리 일을 방해하는, 권력을 가진 저명한 공직자들을 만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면서 저는 잠시 해롤드 버리 대관장님을 만나 “권고해 주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은 1830년이 아니고, 회원수가 6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두려움을 없애 주었습니다. 저는 표준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문명의 멸망을 야기시키는 길에 들어선 사회는 죄악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문명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청소년 여러분은 온 세상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수백만의 선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사업을 생각할 때 저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여러분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³⁴

이 위대한 예언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어떤 손도 이 사업이 발전해 가는 것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을 침투하고 모든 나라를 휩쓸어 모든 국가에 퍼지며, 모든 귀가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다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담대하고 고귀하게 그리고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³⁵

젊었을 때 저는 종종 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의와 진리 지키기에
시온 청년 지체하라
우리 원수 물려올 때에
겁을 내어 피하라 아!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성 다해 수호하려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³⁶

하나님 일 거역하는
암흑의 능력 알 때
언약된 자녀들
굳건한 쇠의 막대 버리라 아!

진리 향해 나아가며
구원 위해 일하라
젊은 힘 다하여
성심껏 기도와 노력하라 아!

주의 말씀 사랑하고
지키는 자와 함께
주님의 왕국에 합당한
우리 신앙 세우리 아!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성 다해 수호하려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³⁶

복음의 표준들을 합당하게 따르고 마음속에 강한 간증을 지니고 있는 수백만의 젊은이들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그 간증은 또한 저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전하는 바로 그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참조(pamphlet, 2001).
2. 교리와 성약 101:78.
3. 교리와 성약 115:4 참조.
4. 요셉 스미스서 2:19; 마태복음 15:9 참조.
5. 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6. 요셉 스미스서 2:19.
7. 교리와 성약 13:1.
8. 교리와 성약 20:41; 33:15.
9. 교리와 성약 27:12~13; 요셉 스미스서 2:72 참조.
10. 교리와 성약 107:3.
11. 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12. 교리와 성약 18:9; 20:1~2; 107:22, 29 참조.

13. 교리와 성약 27:5.
14. 모세서 1:30~39 참조.
15. 앨마서 42:8; 니파이이서 11:5; 앨마서 12:25; 17:16; 34:9; 41:2; 42:5, 11~13, 15, 31; 교리와 성약 101:22; 모세서 6:62 참조.
16. 신앙개조 3조.
17. 민수기 16:22; 전도서 12:7; 히브리서 12:9 참조.
18.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24쪽.
19.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24쪽 참조.
20. 니파이이서 2:5.
21. 야곱서 3:12; 교리와 성약 42:24; 104:8~9 참조.
22. 고린도전서 10:13.
23. 요셉 스미스서 2:1:15~16 참조.
24. 야고보서 4:7 참조.
25. 교리와 성약 10:22; 누가복음 22:3; 니파이이서 2:17~18, 27; 니파이삼서 18:18; 교리와 성약 50:3 참조.
26. 앨마서 41:10 참조.
27. 창세기 1:26~27; 모세서 2:26~27; 6:9; 아브라함서 4:26~27 참조.
28. 니파이이서 2:1~6 참조.
29. 앨마서 7:11~12 참조.
30. 교리와 성약 101:78; 신앙개조 2조 참조.
31. 교리와 성약 8:2~3; 9:7~9 참조.
32. 몰몬서 8:3.
33. 디모데후서 1:7; 교리와 성약 68:6 참조.
34. 베드로전서 2:9.
35.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4:540.
36.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으십시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요셉 스미스의 모범과 회복의 모형을 따르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성신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증을 얻고 개종되는 것은 연구와 기도로 시작되며, 그 뒤에는 인내로써 지속적으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영이 임하도록 노력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 스미스의 생애와 회복

의 모형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예입니다. 오늘 회복의 사건들에 관한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간증으로 인도되는 다음 단계들을 찾아보십시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다, 성신의 속삭임을 느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릅니다.

요셉 스미스는 1805년 12월 23일 버몬트 주 샤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요셉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대하여 “목사는 목사들, 개종자는 개종자와 서로 대[투는]” “대혼란”¹을 목격했습니다.

그 혼란은 그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혼란은 몇 세기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대배도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 … 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²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지 몇십 년 후, 그분의 사도들은 죽임을 당했고, 가르침은 변질되었으며, 신권은 지상에서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날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³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상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회복하시고자 했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세상에서는 그 회복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출판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이 발견되었습니다. 개혁의 영이 전 기독교 세계에 널리 퍼졌으며, 한 나라가 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바로 그 나라에서 태어나 열네 살의 나이에 “종교적 의견의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이 교회들] 중에서 옳은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⁴

요셉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보았고, 야고보서에서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⁵

야고보의 지시에 따라 요셉은 집 근처 숲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이] … 내려”왔고 “두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요셉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다른 한 분을 가리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⁶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대화하셨습니다. 그 두 분은 요셉의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졌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들 신회의 구성원들이므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요셉의 이름을 알고 계셨으며, 요셉의 기도에 기꺼이 답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으며 배도의 밤이 지나가고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도 요셉처럼 진리의 빛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회복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신의 인생에서 복음의 빛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때



로 그 준비는 환경의 변화, 즉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아기가 태어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불행이나 비극을 당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옵니다.

이 변화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관한 답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으며,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셉은 이와 같은 지식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전을 찾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의심하는 마음과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극복하고 겸손하게 되며 신앙을 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번째 시현이 있는 후 3년 동안, 요셉은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자신의 미약한 점과 불완전함으로 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⁷라고 말했습

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잃거나 기도의 힘을 잊지 않았습다.

요셉이 17세 되던 해인 1823년 9월 21일, 요셉은 무릎을 꿇고 그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 받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입장과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지시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⁸ 이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줄기 광채가 다시 나타나 점점 퍼져 “마침내 [그의] 방은 한낮의 햇빛보다 더 밝아졌습니다.”⁹ 그 빛 속에서 한 분이 “지극히 흰”¹⁰ 성의를 걸치고 계셨습니다. 그는 요셉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모로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키실 일이 있네”¹¹ 것을 말해 주었고, 금판에 쓰여진 고대 기록에 대해 얘기해 주었으며, 그 기록은 번역되어 모몬경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로나이의 조상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충만한 복음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집 근처의 언덕, 지금은 구모라라고 불리는 언덕에 묻혀 있던 그 기록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요셉은 금판을 발견했지만 그 금판들은 아직 세상에 나올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모로나이는 요셉에게 그 때로부터 4년 동안 매년 같은 날에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명했습니다.¹²

요셉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매년 그는 그 언덕으로 갔고 그곳에서 모로나이는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 관하여 “가르침”¹³을 주었습니다. 신약전서에 묘사되어 있는 구세주의 어린 시절과 대단히 흡사하게 요셉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¹⁴ 영으로 “강하여”¹⁵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침례 받은 어떤 회원들은 복음 안에서의 자신의 지혜와 키에 대해, 즉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낙담하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이 초기에 경험했던 순종하는 노력과 복음의 가르침과 영적인 성숙을 잊어버립니다. 오래된 회원들 역시 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영적 가르침과 학습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년 동안의 지속적인 순종 끝에 1827년 9



월 22일, 스물한 살의 요셉은 금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우림과 돛뭍이라 불리는 고대의 번역 기구를 받았습니다. 그 해 12월 요셉은 성신의 인도로 이 신성한 번역기를 사용하여 번역을 시작했습니다.¹⁶ 때마침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라는 교사를 만났고 그는 서기로 일했습니다.¹⁷

스물세 살의 요셉이 올리버와 함께 금판을 번역하고 있었을 때 두 사람은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에 관한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구도자처럼 그들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1829년 5월 15일, 두 사람은 주님께 여쭙어 보기 위해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 침례 요한이 “빛의 구름”¹⁸에 싸여 나타났습니다. 그는 생전에 구세주께 침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의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권 열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올리버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¹⁹ 그때로부터 요셉과 올리버는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신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은 요셉과 올리버의 모범을 따르고 기도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침례를 준비하며 그에 합당한 모든 사람은 이 경륜의 시

대에 침례 요한의 손으로부터 그대로 전수되어 온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29년 5월 말이나 6월 초에 더 높은 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이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요셉과 올리버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몰몬경의 번역 또한 그 해 6월에 끝났으며, 그 후 채 일 년이 안 된 1830년 3월 26일에 출판되었습니다.

몰몬경이 출판된 날로부터 12일이 지난 4월 6일, 교회가 뉴욕주 페이엠티에 있는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에서 정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언했던 대로 고대의 그리스도 교회가 다시 한번 지상에 세워졌습니다.²⁰

그러나 회복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교회 회원들은 성전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1836년 3월 27일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인 4월 3일에는 그 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엄숙하고 조용한 기도에 뒤이어 요셉과 올리버는 그들 앞에서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²¹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들의 거룩한 집에 오셨습니다. 모세와 일라이아스, 그리고 엘리야도 그 곳에 나타나 왕국의 열쇠와 구원에 필요한 의식들을 요셉에게 맡겼

습니다.²²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모형을 볼 수 있습니까? 회복의 모든 주요 사건들, 즉 첫째 시현, 모로나이의 나타나심, 몰몬경의 출현, 신권의 회복, 그리고 신성한 성전 헌납 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등은 모두가 기도에 뒤이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116개의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룩한 모임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헌납 기도가 들려졌습니다. 성신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마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니파이는 소망하고 믿고 신앙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나서 성신을 따르는 이러한 과정에 관해 분명하고 힘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파이기 전한 말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나의 부친께서 [생명 나무의 시현에서] 보신 것을 심히 알기를 원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부친이 보신 것을 나에게도 알려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의 영에 이끌려 ... 갔더니 영이 내게 이르시기를”²³

일단 영의 증거를 얻으면, 우리의 간증은 연구와 기도 그리고 복음에 따른 생활을 통해 강화됩니다. 우리는 커지는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복의 계획에 대한 신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계명에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 받습니다. 이것은 강한 마음의 변화와 함께 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우리의 개종은 거룩한 용서, 치유, 기쁨 및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려는 소망을 가져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과정을 시작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몰몬경에서 모로나이가 주신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

희가 참마음 참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²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빨리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에 걸쳐 점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는 성신이 “영적 존재”이며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²⁵ 있기 때문입니다. 성신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며, 그분들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²⁶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때때로 성신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와 확인을 받은 사람들만이 권능 있는 자의 안수에 의해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항상 동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회원들에게 이 동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과 복음 원리 및 의식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신은 물러갈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동반자들과 논쟁을 한다거나, 주님의 기쁨 부은 자를 비난한다면 성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항적이고 부도덕하고 경건치 못한 복장이나 행동을 할 때, 정신과 육체가 정결치 못하거나 불경할 때, 신권의 부름과 의무에 게을러 때, 그 밖의 죄를 지을 때 성신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은 성스럽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시기”²⁷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성찬을 취하고,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²⁸ 주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성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은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채워 줍니다. 간증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라도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올 때 느끼는 것보



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²⁹ 우리 자신의 간증을 강화시킴에 있어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가족은 강화될 것이며, 우리 와드나 스테이크가, 그리고 지역 사회가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우리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현재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고 있으며, 고든 비 헝클러 대관장이 그 분의 후계자요, 예언자이며, 오늘날 교회 대관장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며 기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요셉 스미스의 모범과 회복의 모형을 따르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성신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셉의 경우처럼 여러분의 이름과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응답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진대, 이러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³⁰ 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특별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셉 스미스서 2:6.
2. 데살로니가후서 2:3.
3. 에베소서 1:10.
4. 요셉 스미스서 2:10.
5. 야고보서 1:5; 요셉 스미스서 2:11 참조.
6. 요셉 스미스서 2:16~17.
7. 요셉 스미스서 2:29.
8. 요셉 스미스서 2:29.
9. 요셉 스미스서 2:30.
10. 요셉 스미스서 2:31.
11. 요셉 스미스서 2:33.
12. 요셉 스미스서 2:52~53.
13. 요셉 스미스서 2:54.
14. 누가복음 2:52.
15. 누가복음 2:40.
16. 요셉 스미스서 2:59,62.
17. 요셉 스미스서 2:66~67.
18. 요셉 스미스서 2:68.
19. 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요셉 스미스서 2:68~69.
20. 에베소서 1:10 참조.
21. 마태복음 8:20.
22. 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23. 니파이일서 11:1~2 참조.
24. 모로나이서 10:4~5.
25. 교리와 성약 130:22.
26. 니파이일서 32:5.
27. 힐라맨서 4:24.
28. 교리와 성약 4:2.
29. 교리와 성약 18:15 참조.
30. 니파이일서 15:11.

예언자들의 분명한 외침

설리 디 크리스텐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오늘날 온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이 사업의 맨 앞에 예언자와 사도들이 서 계십니다.



이 엄청난 회중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의 눈으로 컨퍼런스 센터에 참석한 사람들뿐 아니라 전세계의 집회소와 가정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도 보게 됩니다. 비록 가까이 또는 멀리 계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사업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의 교회 건설에 지극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즉 영원하신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 단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 곧 독생자요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합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는 성신의 권세를 통해 여러 가지 면에 대한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느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신앙, 그리고 회복된 복음의 원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진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분들의 존재를 느끼고 온 마음으로 그분들의 뜻을 알고자 소망하며 그분들과 같이 되고자 할 때, 우리를 좀더 그분들께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이 사업의 맨 앞에 예언자와 사도들이 서 계신다는 것이 제 메시지가 간증입니다. 그 분들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참으로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입니다. 주님은 그 분들을 사랑하시며, 교회 회원인 우리는 그 분들을 존중하고 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여깁니다. 예언자들의 분명한 외침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분명하며, 예언자들의 간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통치하러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하지만 한편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구조와 안전에 있어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과 국가간의 불화와 적대감, 지역 사회간의 갈등, 가족간의 다툼을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그 원리들을 모든 인류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세상의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예언자들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 신성한 교리와 가르침을 분명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진리를 들을 때 그 진리들은 똑같은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가슴속에 전달됩니다.

우리가 예언자들의 역할을 생각할 때, 먼저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부름에 대해 세상에 증거하신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영들을 바라보실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지라, 그가 저들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영이 된 이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그가 보시니 저들이 좋았더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서 3:23)

구약전서에는 예언자 사무엘에 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사무엘상 3:19~20)

물론경은 고대 미대륙에서 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그분은 구약전서의 예언자인 이사야의 예언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말씀을 상고하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 명하노니, 너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라. 이 사야가 전한 말씀이 위대함이라. 진실로 저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내 백성에게 관하여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으니, ... 이사야의 모든 말이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리로다 ... 선지자의 말을 상고하라. 이러한 것을 증거한 이가 많음이라.”(니파이삼서 23:1~3, 5)

두 번째로 예언자의 역할은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고, 그분의 신성과 사명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자인 아담은 아내 이브와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후에 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대관장단(가운데).

가을 경륜의 시대를 위한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대한 사건에 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아담은 하나님께 복을 돌리며 성신으로 충만하여졌고 세상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였으니, 가로되 주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고 또다시 육체로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니,

“그 아내 이브는 모든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가로되,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더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니라.”(모세서 5:10~12)

고대 미대륙의 예언자 힐라멘은 그의 아들 니파이와 리하이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어다. 그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내며 회오리 바람을 불어 치게 하고, 그의 우박과 강한 폭풍으로 너희를 휘몰아 칠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하고 끝없는 저주의 구렁으로 쓸어 넣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가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졌음이라. 이 토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힐라멘서 5:12)

아마도 이 경륜의 시대에 구세주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간증은 1832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받은 계시일 것입니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교리와 성약 76:22~24)

예언자들의 세 번째 특성은 그들의 가르침이 기록되며 그 뒤를 계승한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그것을 지상의 주민들에게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구약전서의 예언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출애굽기 24:12)

오늘날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들도 1995년 결혼과 가족의 신성한 본질에 관해

세상에 증거하는 감동적인 간증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 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그 후 그 분들은 또한 주님의 사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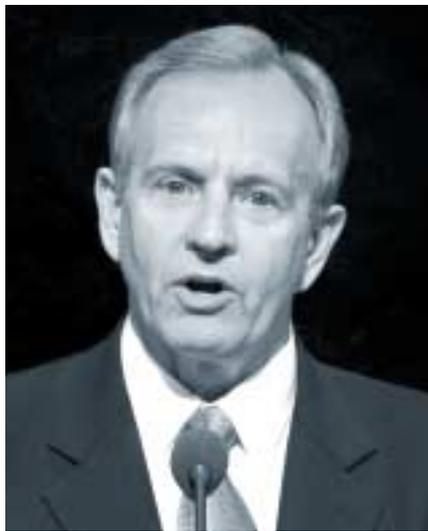
“우리는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갈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의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 …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경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

핵심적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 여명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예언자들의 역할과 주님과 구세주에 관한 개인적인 간증을 전해주려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자들의 계승이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오늘날 주님의 예언자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의 간증과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손을 잡아 주시리라

더블류 크레이그 즈워크 장로
철십인 정원희

우리가 … 그분의 길에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다면, 신앙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많은 불안이 우리 가정과 개인 생활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령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현재 싸울 힘이 있고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물문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물문서 5:23)

손은 몸의 지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의 하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손을 의미하는 가장 흔한 낱말인 야드(yad)는 또한 힘, 능력,

세력을 의미하기 위해 은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William Wilson, Old Testament Word Studies, 1978년, 205쪽 참조)

따라서 손은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펼쳐진 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강화되고, 향상되며,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주의 깊은 보살핌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힘으로 인도되고 보호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전 곳곳에는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의 신성한 도움이 거듭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손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또 그 손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만큼 부드럽습니다.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된 구세주를 묘사한 요한의 다음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볼 때에 …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요한계시록 1:17~18)

그분께서 그 손을 우리에게 얹으실 때, 우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24년 전 작은 몸으로 갓 태어난 제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아였기 때문에 아이의 폐는 충분히 성장해



있지 않았으며 호흡하기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몸집은 너무도 작았지만 살겠다는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젊고 경험 없는 부모로서, 용기 있는 충실한 아내 쟈과 저는 주님의 손이 나타나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기가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인큐베이터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갓난 아기의 고사리 같은 손을 붙잡았는데, 그때 결코 잊지 못할 강력한 영적인 교감이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병자 축복을 할 때에 왼손과 오른손의 두 손가락 만으로도 아기의 작은 머리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순수했지만, 지상에서의 그의 운명은 우리나 아기를 보살피고 있던 의료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충분한 권세와 권능이 떨리는 제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기 머리에 놓여진 제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과 권세가 놓여져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축복을 한 후, 정서적 평안을 느끼며 제 영원한 동반자와 저는 인큐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의 개인적인 효과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새로운 희망과 위로의 영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면전을 방금 떠난 한 갓난 아이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 때 우리는 아들에 대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손을 구세주의 손 안에 놓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구세주의 손이 호흡에 필요한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아기가 숨을 쉬고 다시 영양 섭취를 하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한 차례 호흡을 할 때마다, 그리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우리 아들과 은혜를 입은 그 부모는 구세주의 도움의 손길에 지금도 크나큰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아가고 또 “왕위, 왕국, 주권과 여러 권세”를 상속 받는 신성한 약속 가운데는 “모든 높임과 깊음”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2:19)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는 오르내리는 청룡 열차와 같이 가장 즐거운 시절과 함께 어려운 시절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과 슬픔의 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비틀거릴 때도 있고, 좌절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포 자기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홀런드 장로님은 “지나가게 할 수 없는 잔은 구세주의 생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는 시련의 상징입니다. 그런 시련은 훨씬 작은 방법으로, 훨씬 작게 오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에는 충분합니다.”(*Trusting Jesus*, 2003년, 42쪽)

우리 모두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계속 나아가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그분의 손 안에 놓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나타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들어올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한 아버지가 심한 병을 앓는 아들을 예수께 데려왔을 때,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마가복음 9:27)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면, 짐은 가벼워질 것이며 우리 마음은 위로 받게 될 것입니다.

스코트 장로님께서서는 최근에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상황의 어려운 정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 마음의 화평, 괴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불확실과 시험의 시기에 지켜 주는 신앙의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6, 78쪽)

우리는 어떻게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까? 어떻게 손을 뻗어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위안을 붙잡는 법을 배웁니까?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부어 주리라.”(교리와 성약 19:23, 38)

여기 네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 배우십시오
- 귀를 기울이십시오
- 영을 구하십시오
-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문을 열고 주님의 신성한 도움의 손을 잡기만 한다면, 주님은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님은 구해 주시려는 구세주의 도움의 손에 관해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더욱 찬양합니다. 그 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해의 문을 두드리십니다.”(“손”, *Tambuli*, 1991년 3월호, 5쪽)

최근에 제 딸과 사위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준비를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볼 보모에게 당부 사항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날 준비를 마치고 문에 이를 때까지 한 아이의 침울한 표정과 다른 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엄마와 아빠가 자기들을 두고 가는 것에 아이들이 슬퍼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네 자녀를 주위에 불러 모았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라고 했습니다. 모두 8개의 고사리 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다음 엄마와 아빠는 각각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거나 무섭거나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들의 작은 손을 뺨에 대면 엄마와 아빠가 언제나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도 행복했고 딸과 사위는 집을 떠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손을 뺨에 대고서 창문 앞에서 있는 네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어린아이 같은 완전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또 그분께서는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우리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소망과 위안의 확실한 근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 안에 놓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히브리서 12:1)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 외동딸이 마라톤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매우 열심히 훈련을 하며 노력했습니다. 경주는 어려웠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한 번에 한 발씩 집중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네 왼쪽에 맹인이 간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를 쳐다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을 추월하고 있는 맹인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경주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을 지나갈 때 딸 아이는 그 맹인이 그 친구의 손을 얼마나 꼭 잡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에 녹초가 된 딸 아이는 손에 손을 잡고 달리는 두 남자를 보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맹인 친구에게서 동기를 받았으며, 그 맹인은 친구의 손을

잡고서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 딸은 그 맹인이 혼자서는 결코 경주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딸은 그 맹인의 신뢰와 그 친구의 헌신적인 사랑에 고무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손을 우리 각자에게 펼쳐 주시며, 따라서 우리는 혼자서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휘청거리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을, 그분은 안정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그 곳에 계십니다.”(*Trusting Jesus*, 43쪽.) 우리가 결승점을 향해 앞으로 나갈 때, 그분은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 그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상처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풍상을 겪으신 그분의 손, 즉 육신과 육체적 희생으로 찢겨진 그분의 손은 우리의 손에 더 큰 권세와 지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상처 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공기나 따라갈 방향, 또는 계속 나아갈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도와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길에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다면, 신앙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하십시오.

평안을 주시는 분과 그분의 완전한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될 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이니라”(이사야 41:13)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주요 살아 계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 드립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사랑의 손을 우리 각 사람에게 펼쳐 주심을 간증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회개와 변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개인이나 가족의 윤리 및 민족의 관행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지역의 안부를 전해 드립니다. 그 곳에는 500,000명 이상의 회원, 2,200명의 선교사, 80개의 스테이크, 13개의 선교부, 그리고 많은 지방부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곳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들에는 연로한 부부 선교사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부부 선교사의 봉사가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알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다른 분들도 이 중요한 봉사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I.

한 용감한 선교사가 저에게 말했던 것을 소

개할까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하와이에서 맨발로 파도타기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저와 같은 사람이 세 번째 선교 사업을 마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세주의 사랑을 느꼈을 때, 저는 그분께 봉사하고 싶었으며,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스탠리 와이 큐 호는 나이가 서른이 되도록 무위 도식하며 와이키키 해변을 “어슬렁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알게 되어 말일성도 자매와 결혼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감독과 스테이크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름을 수행했습니다. 호 장로와, 남편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사랑하는 그의 아내는 세 차례나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다른 예를 들기 위해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냐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누가복음 19:1~6)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것에 대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근거”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7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오래된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자기의 집과 마음을 연 사람의 애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8~10절)

여리고의 삭개오와 하와이의 스탠리는 우리 모두를 대표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사람을 모범 삼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했으면 합니다.

II.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변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개”는 가장 자주 듣는 메시지이며,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개인이나 가족의 윤리 및 민족의 관행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평범한 인간을 헤의 왕국의 백성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며, 거기에는 변화가 요구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양한 집단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누가복음 3:8) 위해 각자 변화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세리장, 군인, 평민, 모두가 회개의 과정을 통해 버려야 할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양한 집단의 전통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손 씻는 의식을 생략했다고 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불평하자,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에게 그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마태복음 15:2~3)고 응수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다”(6절)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외식하는 자들”은 전통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7절)

주님은 현대 계시에서 “사악한 자”는 “불순종과 ...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교리와 성약 93:39)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이나 문화, 혹은 생활 양식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할 일부 관행이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결이 한 예입니다. 주님은 시내 산에서 “간음하지 말라”(출애굽기 20:14)고 명하셨으며 현대의 계시(교리와 성약 42:24; 59:6 참조)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신약전서에도 “음행을 피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고린도전서 6:18; 갈라디아서 5:19; 데살로니가전서 4:3 참조)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늘 “음행”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

원한 계명은 여러 나라의 강력한 전통에 의해 빈번히 무시되거나 거부되거나 혹은 조롱당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한 나라의 영화, 잡지 및 인터넷 통신이 여러 나라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외 정사를 묵인하거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외설 문화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는 그분이 “정결치 아니한 것은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파이삼서 27:9)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대중의 전통을 거스르는 계명의 또 한 가지 예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우리의] 성찬을 바치라”(교리와 성약 59:9)고 명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려면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라는 명을 받았으므로, 대부분의 비기독교인들과 불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힘든 변화가 요구됩니다.

술, 담배, 차, 커피를 금하라는 주님의 계명

(교리와 성약 89편 참조)은 많은 사람들의 전통과 맞지 않습니다. 오랜 중독이나 습관은 쉽게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하며, 약속된 축복은 변화를 위한 도전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정직입니다. 일부 문화는 거짓과 절취와 기타 부정직한 관행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러나 유희책이나 체면, 혹은 이익 추구 등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 부정직한 복음의 계명과 가치관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개인에게 이득이 되고 발각될 확률이 높지 않을 때에는 약간의 거짓과 속임 또는 기만이 괜찮다는 사고에 젖게 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것은 힘든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것으로 좀 덜 심각한 세상의 전통은 지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에 대한 통념입니다. 세상에서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승진이나 강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책에는 승진이나 강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러 자리로 옮겨다니

고 있을 뿐입니다. 감독이 합당한 권능에 의해 해임되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부름 받는 것은 강동이 아닙니다. 해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부름, 즉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부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할 때 당사자는 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개월 전에 필리핀에서 잇을 수 없는 예를 보았습니다. 마닐라 근처에 있는 파시그 스테이크의 한 와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우구스토 림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는 일찍이 스테이크장, 선교부장, 총관리 역원, 마닐라 성전장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와드 감독단의 일원으로 젊고 경험이 별로 없는 감독의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장이었던 형제가 와드의 감독단 2보좌로 봉사하는 것은 복음의 문화가 실천되고 있는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이같은 사례를 통해 저는 세상의 한 나라의 문화나 전통을 다른 나라의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와 모든 나라 또는 백성의 문화나 전통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도 미덕을 독점하거나, 변화하라는 계명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로마서 2:11; 갈라디아서 2:11~16, 3:1~29, 5:1~6, 6:15 참조)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님의 종들은 필리핀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변화시켜 미국인이 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구세주는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시며,(니과이서 26:33; 교리와 성약 43:20 참조) 그분의 종들은 미국인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말일성도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복음의 문화에 어긋나는 전통과 문화의 관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권합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기를 그친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 우리가 서로 사랑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요한1서 1:7)입니다.

III.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복음 문화, 즉 가치관과 기대와 관행이 있습니다. 이같은 복음 생활 방식은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명과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표현됩니다. 가족 선언문에 언급된 원리는 우리의 복음 문화를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약을 맺습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영원한 복음에 부름을 받아 영원한 성약을 맺을 때에는 저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인간의 맛으로 인정되나니.”(교리와 성약 101:39) 세상의 소금으로서 성약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그 소금이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던져져



서 못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니라.”(니파이 삼서 12:13; 마태복음 5:13; 교리와 성약 101:40 참조)

이것은 우리가 가족의 문화, 윤리 문화, 또는 민족 문화에서 일부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계명, 성약 및 문화에 어긋나는 행동의 모든 요소들을 바꿔야 합니다.

복음의 계획은 개인적인 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개조는 “사람이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는다”(신앙개조 제2조)는 영원한 진리를 말해 줍니다. 교리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는 개인적인 책임의 요건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모세서 4:1)겠다고 한 사탄의 계획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의 계획은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노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책임과 노력을 중시하는 교리나 관행은 여러 나라의 개별적인 전통 및 현지 문화와 상충됩니다. 우리는 소득과 물질의 소유가 크게 다르고,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기관과 개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세상에 살

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추종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물은 의존을 조장하며, 그 수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식량이나 주거지를 애써 구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영원한 발전의 필요성마저도 약화시킵니다. 복음의 계획이 요구하는 발전은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중시하는 태도에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의존을 가르치는 문화에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자원을 남에게 의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를 영적으로 약하게 하고 복음의 계획이 의도하는 발전을 지연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난과 의존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문화는 가난한 사람까지도 충실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포함하여 의존의 전통과 문화를 이겨낼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수백 년간 계속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예언자를 따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강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녀들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핏박이나 빈곤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경우 그분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진했으며, 실제로 그분께서 축복하신 바 있는 물론 개척자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 문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변화는 길고 때로는 고통스런 노력을 필요로 하며, 가시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우리의 빛이 감추어져서는 안 됩니다.(마태복음 5:13~16 참조) 사도 요한은 이로 인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요한1서 3:13 참조) 그래서 변화하겠다고 성약을 맺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할 성스러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문화로 진입하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한1서 3:18)

안락한 가정과 주변의 것들로부터 떠나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는 교회의 승고한 남녀만큼 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부 선교사들을 축복하십니다.

IV.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통해 그 사랑을 보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요한복음 14:15 참조)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회개는 변화, 즉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모든 전통을 버리는 변화가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문화에 완전히 참여할 때,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 의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십시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의 사도로서 여러분이 참으로 누구인지 깨닫기를 권고합니다...
신성하게 주어진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 영을 분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 근에 저는 이만 명에 달하는 말일 성도 젊은이들이 영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메모를 하고 연사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순수함과 의로움, 헌신의 강렬한 영이 발산되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곳에 있고 싶어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2,000명이 넘는 전임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곳은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성구를 인용해 가며 너무도 잘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들과 악수를 하며 그들의 눈을 바

라보았을 때, 순수함과 헌신의 영을 느꼈습니다. 감동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들 개개인 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가 될 수 있는 일에 합류하라는 부름에 응하기 위해 개인적인 관심사를 제쳐 두었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과 이러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세 곳의 말일성도 대학교 교수진들은 학생들의 영적인 민감성과 능력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십니까? 진실로 세계 모든 곳에서 순종심과 도덕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주님은 지상에 더욱 뛰어난 영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이 젊은이들은 그 선조들보다 평균적인 능력 수준에서 뛰어납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성장 및 긍정적인 기여에 대한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부모와 지도자들로서 여러분은 그 잠재력을 어떻게 계발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의 젊은이로서 여러분은 자신의 비범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성취와 행복의 높은 봉우리에 오르겠습니까? 범법을 통해 그러한 잠재력을 훼손하려는 사탄의 노력을 여러분은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오직 여러분만이 이러한 핵심적인 질문들에 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로서 여러분이 참으로 누구인지 깨닫기를 권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틀에 박힌 일상 너머를 볼 것을 권유합니다. 신성하

게 주어진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능력을 통해 영을 분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줄 합당한 선택들을 내릴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용감한 선교사들이 차디찬 바람과 폭우를 견뎌 내고, 미끄러운 진흙탕길을 헤쳐 지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간증을 나누지만 자주 거절당하거나 노골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저는 그들이 새로운 언어로 진리를 전달하고자 애쓰는 모습도 보아 왔습니다. 때로는 듣는 사람이 혼란스러워 하며 가만히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러나 만일 세계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든 어려움을 가지 있게 만들어 주는 참으로 값진 성공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보상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이 영원한 선을 위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찾아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리를 나누는 일은 그것을 더욱 값지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어두운 미지의 세계로 들어설 때, 주님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영혼이 지닌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 할 것입니다. 도전할 과제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유능하고, 보다 잘 준비된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분은 깨끗하고 순수하여 영의 인도를 받아 개종으로 이끄는 권세로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뛰어난 선교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대관장단은 현재 선교 사업에 요구되는 도덕적 합당성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성에 관한 높은 표준을 규정했습니다. 그 표준들은 엄격하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표준에 따라 생



활함으로써 오는 평안과 확신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표준이 높아진 것은 선교사가 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영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에서 선교 사들이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 토론을 하는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복음 토론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영의 인도를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합당성이 필수적입니다.(대관장단 서한에 첨부된 “선교 사업에 관한 지침”, 2002년 12월 11일 참조)

여러분은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보기 드문 세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손상시키고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의인을 이길 어떠한 권세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아직 선교 사업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죄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는 대가입니다.

선교 사업과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한 준비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로서 아들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진리에 대한 간증이 자라나도록 인내심을 갖고 각 자녀의 영적 능력을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 그리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살았을 때 받게 되는 권세를 정성스럽게 설명하십시오. 그 토대는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막아내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아들들에게 전임 선교사로 합당하게 봉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감독과 스테이크장은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영적 능력을 강화시키십시오. 부모들의 가르침을 강화시켜 주는 교회 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청남들은 자신의 신권 정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청녀들은 반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개인 발전 기록부의 목표들을 완수하십시오. 청남 청녀 모두 여러분이 배운 것을 잘 간직하려면 주일학교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하십시오.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여 진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을 쌓으십시오. 그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듣지 마십시오. 배운 것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값진 진주의 요셉 스미스 2서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시험을 공부하십시오. 승영에 필수적인 신권 권능과 의식을 포함하여 온전한 진리의 회복을 가져온 뒤이은 사건들에 관해

배우십시오. 이러한 것들에 관한 자신의 간증을 얻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간증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속에 단단하게 세우십시오.

단지 읽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읽고 싶기 때문에 몰문경을 읽도록 노력하십시오. 스스로 몰문경이 참됨을 알아 보십시오. 각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이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아니면 요셉 스미스가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쓰인 것일까?” 자신이 배운 가르침을 적용하십시오. 그러한 가르침은 사탄의 악에 맞서도록 여러분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모로나이의 권고에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몰문경의 가르침이 참된지 진지하게 여쭙어 보십시오.(모로나이서 10:3~5 참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직접 확증을 얻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몰문경이 참되다는 영적 확증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으며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몰문경 소개 특히 마지막 단락 참조) 구세주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여러분들의 생산적인 삶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가족과 충분한 교회 경험을 할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축복을 모두 누리지 못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른 몇몇 분들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얻는 것으로 보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그분의 교리가 참되다는 개인적인, 강렬한 확신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 소중한 보물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그 길들은 알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의 깜박이는 불꽃은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면 완전히 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꽃은 진실한 기도와 몰몬경 및 다른 경전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결코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꽃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여러분이 배운 원리들을 적용할 때 지속될 것입니다.

합당성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막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여러분의 참된 잠재력의 실현을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젊어서부터 그 시기에 여러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성장과 강화되는 경험은 예외 없이 합당한 전임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은 용감하게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높은 합당성의 표준에 부합되는 자격을 갖춘 뛰어나고, 잘 준비되고, 헌신적인 선교사 군대의 일원이 되십시오. 어디로 부름을 받든, 어떠한 도전 과제에 당면하든, 주님을 섬길 것을 택한 사람들의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선교 사업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치료되어 전임 선교사로서의 고된 생활을 감내할 수 있다면,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교 사업 동안이나 유능한 의료 담당자가 달리 조인한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치료약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서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 모두



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후 남아있는 한계 내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용하십니다.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상태로 인해 교회 대관장으로부터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대관장단 서한에 첨부된 “선교 사업에 관한 지침”, 2002년 12월 11일 참조) 그럴 경우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감독이나 스테이크장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봉사의 기회를 찾아내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봉사의 기회는 교회 가족 역사 센터나 성전, 복지 계획, 고용 센터에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지역 병원, 요양원, 보호소나 기타 장소 등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짐을 떠나지 않고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름은 몇 달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테이크장은 여러분이 봉사해야 할 장소와 봉사 기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이 공식적인 부름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름을 받게 되든, 전임 선교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

료들을 가지고 회복의 메시지를 공부하십시오. 그런 후 그 메시지를 나눌 기회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한다면 감동을 받아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로 인도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 사업에 관해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아마 “내게는 해당되지 않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청드리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은 선교 임지에서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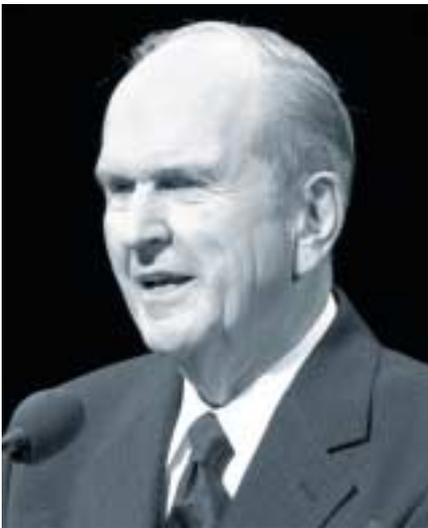
만일 여러분이 나쁜 선택들을 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진보와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젊은이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지도자와 모범이 되십시오. 청남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의 일원이 되십시오. 합당한 청소년들은 성전 의식을 받고 자신의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의 합당한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개인의 신권 책임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권의 직분에 성임될 때 여러분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권세는 그 권능을 의롭게 행사할 때 옵니다.



사랑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 우리는 비록 많은 나라에서 모였지만,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¹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있는 신앙의 힘은 그룹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 수술에 당면한 여덟 살짜리 소년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 소년은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를 올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하기 전에 저를 위해 기도 좀 해 주시겠어요?”

의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보고 말

합니다. “저런,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 혼자 기도할게요.” 그리고 소년은 수술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린 고아입니다. 몸이 많이 아픈데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수술을 잘 하도록 도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낮게 해 주시면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다시 수술대에 누우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고 “이제 됐어요.”²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영적인 힘도 커졌습니다. 형제 여러분은 그 아이보다 나이도 많고 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회에서는 우정과 봉사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신권의 힘을 키우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개인으로서만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앙과 개인적인 기도 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직 개인으로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직 개인으로서만 구원과 승영을 위한 의식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여러분에게 인봉 될 때, 그녀의 힘과 잠재력은 여러분의 힘과 잠재력을 증대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신권 정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형제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합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십이사도들은 사업계, 교육계, 법조계 및 과학계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배경 때문에 봉사하도록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신권 책임의 직책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현재 그들이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고 택함 받습니다.³

일생을 통해 여러분은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 의무와 책임의 대부분은 일시적인 것이며 해임과 함께 그것에서 손을 떼게 될 것입니다.(여러분은 아마 복지농장의 잡초 뽑는 부름에서 해임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및 가족의 발전과 관련된 책임에서는 해임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권의 직분에 성임될 때 여러분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권세는 그 권능을 의롭게 행사할 때 옵니다.

주님에 대한 책임

대관장에서 새로 성임된 집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께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참되고 충실해야 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모든 원리와 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키도록 주어진 계시나 계명을 놓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고 “왕국을 세우고, 그의 의를 이루게”⁴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각 사람은 주님께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⁵ 이 사실을 여러 해 전 임종을 목전에 둔 친한 친구와의 진지한 대화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대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용기와 확신을 갖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어린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 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⁶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접견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십일조를 내고 있는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저속한 말과 욕을 하지 않는가? 도덕적으로 의로운가? 부활할 수 있게 해 주고 영생의 가능성까지 가져다 준 속죄에 대해 나는 정말로 감사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 영원히 인봉해 주는 성전 성약을 존중하는가?” 이에 대해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신권의 권세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그 권세에 더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성신을 받았으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 관해 말해 줍니다.⁷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 은사를 향상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음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십시오. “내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말해야 할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순간에 너희가 말할 바를 얻게 될 것임이니라.”⁸

개인적인 책임과 신권의 권세

신권의 권능은 아담,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신약 시대, 아랫 백성, 니파이 백성 및 기타 여러 경륜의 시대에도 존재했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는 시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각각 배도로 끝났습니다. 또한 세상의 작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륜의 시대, 즉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륜의 시대는 세계적이고 전체적이며, 완전한 연합을 주관하면서 아담의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경륜의 시대, 열쇠, 권세 및 영광을 단단히 묶을 것입니다.⁹

아론 신권은 1829년 5월 15일 침례 요한에 의해 회복되었으며, 멜기세덱 신권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¹⁰ 하늘의 다른 천사들이 신권의 특정한 열쇠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모로나이는 몰몬경의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¹¹ 모세는 이스라엘의 집합과 열 지파를 인도하는 열쇠를 가져왔습니다.¹² 일라이어스는 만유를 회복하는 열쇠¹³를 전했으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성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¹⁴ 그리고 엘리야는 인봉의 열쇠를 부여했습니다.¹⁵

여러분은 열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집이나 차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신권 열쇠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신권의 권능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어떤 열쇠들은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뿔 수 있게 하는 권세를 전합니다.¹⁶

요셉 스미스는 신권의 열쇠를 십이사도 모두에게 부여했습니다.¹⁷ 그 열쇠들은 후임 지



도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어느 시대에든지 경륜의 시대를 위임 받은 모든 자”¹⁸가 지녔던 회복된 모든 열쇠에 대한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역사를 염두에 둔다면 신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¹⁹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개인적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하는 각 기회가 여러분의 신권의 권세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가짐에서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²⁰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멜기세덱 신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여러분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는 일에는 권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별하고, 성임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권능이 주어집니다.²¹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²² “내가 나의 영을 네게 나누어 주리니와 … 네가 받게 되리라는 신앙으로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모두 다 이로써 알게 되리라.”²³

청소년 여러분은 아론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얻는다.
- 선교 사업을 하기에 합당하게 된다.
-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키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한다.
- 개인적인 교육을 추구한다.

- 교회 표준을 지키고 미래의 동반자에게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 다섯 가지 목표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손을 보십시오. 두 번째 손가락으로 경전을 가리키게 하십시오. 경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그런 다음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가운데 손가락은 선교 사업을 하는데 합당하게 되는 것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반지를 끼는 네 번째 손가락은 결혼과 엔다우먼트, 인봉, 그리고 성전 축복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새끼손가락은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적인 책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²⁴ 엄지손가락은 위로 치켜 세우면서 교회 표준을 지키고 영원한 동반자에게 합당하겠다는 것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그 다섯 가지 목표를 실현시킬 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여러분은 해의 영광의 가장 높은 등급을 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는 이 신권의 반차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말함]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만일 참여하지 못하면 이를 얻을 수 없느니라.”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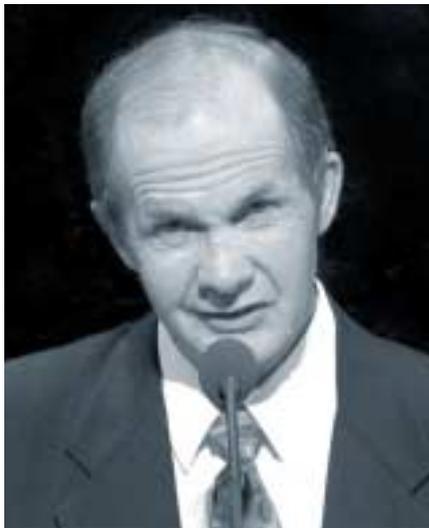
그 서약은 여러분이 아내를 존중할 때 존중됩니다. 남편의 첫 번째 우선 순위는 아내를 돌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충실하십시오. 결코 외설물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선택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바로 그 선택은 장차 개인의 선택의지를 제한합니다.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나서 각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 [이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²⁶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숨기고,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면, 우리는 신권의 권능과 권세 모두를 잃게 됩니다.²⁷

청남 - 열쇠를 지닌 사람들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임명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임되었음을 알고
부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청남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1947년
에 인쇄된 *경전상의 지도자들*이라
는 제목의 주일학교 교재입니다.
저자는 매리는 지 머클리와 고든 비 힝클리입
니다. 56년 전의 일입니다. 이 교재는 오랫동안
저의 집에 있었으며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829년 5월에 회복된 아론 신권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사자가 빛의 구름에 싸여 내
려와 동시에 그의 두 손을 각각 우리들의 머리
에 얹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리들을 성임
하였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이 나는 너
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의 신권을 부여
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¹

이 연차 대회와 신권 모임에 참석한 수만
명의 청소년들은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있는 집사, 교사, 제사 정원회에 속
해 있습니다. 각 정원회는 각 신권 정원회를
이끄는 열쇠를 갖고 있는 회장을 포함하여 정
원회 회장단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청소년 지
도자들이 그 중요한 책임의 직분을 맡기에 너
무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참
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몇몇의 예를 통
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
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와 보
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형제 여러분, 온화함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깨끗한 지식과 모
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봉사하십시오.²⁸ 그
러면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
럼 [여러분의] 영육을 적실”²⁹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분 한분을 사랑하며, 여러
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봉사, 그리고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
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후손이 여러분이 의롭게 신권의 권세를
추구함으로써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분은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 교
회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에베소서 4:5.
2. George Albert Smith,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comp. Preston Nibley(1948), 144~145쪽 참조.
3. 마태복음 20:16; 22:14; 베드로전서 2:9; 요한계시록 17:14; 열마서 13:3, 6, 9; 니파이삼서 12:1; 교리와 성약 3:10; 52:1; 95:5; 121:34, 40~46 참조.
4.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8.
5. 히브리서 13:17; 열마서 5:18; 11:43; 교리와 성약 72:13~16 참조.
6. 교리와 성약 135:4.
7. 니파이삼서 9:20 참조.
8. 교리와 성약 100:5~6.
9. 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10. 요셉 스미스서 2:72; 교리와 성약 27:8, 12 참조.
11. 교리와 성약 27:5 참조.
12. 교리와 성약 110:11 참조.
13. 교리와 성약 27:6 참조.
14. 교리와 성약 110:12.
15.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33쪽; 교리와 성약 27:9; 110:13~16; 128:21 참조.
16. 마태복음 16:19; 18:18; 교리와 성약 124:93; 127:7; 128:8, 10; 132:46 참조.
17.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3권, 132~134쪽 참조.
18. 교리와 성약 112:31; 128:18 참조.
19. 히브리서 5:4.
20. 교리와 성약 107:3; 요셉 스미스 역, 히브리서 7:3; 열마서 13:1. 참조.
21. 교리와 성약 1:20, 38; 84:19~21; 26~27; 107:18~20; 124:39~46; 133:6 참조.
22. 교리와 성약 132:47.
23. 교리와 성약 11:13~14.
24. 교리와 성약 130:18~19 참조.
25. 교리와 성약 131:2~3.
26. 교리와 성약 121:36.
27. 교리와 성약 121:37 참조.
28. 데살로니가후서 1:3; 교리와 성약 121:41~42 참조.
29. 교리와 성약 121:45.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²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13살 된 집사 정원희 회장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두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다른 젊은 사람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 동반자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한은 바로 이 청년의 신앙과 간증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 서한에서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³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⁴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열네 살 된 교사 정원희 회장이 감독으로부터 성별될 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교사 정원희 회장의 부름도 “거룩하신 소명”이 아닐까요? 열여섯 살 된 제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경전은 확고하게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놀랄 만한 공헌을 한 젊은이의 가장 위대한 예 중 하나는 바로 몰몬입니다. 그의 기록의 일부를 읽어 봅시다.

“이제 나 몰몬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이를 몰몬서라 하노라.

“앰마룬이 기록을 주 앞에 숨기려 하였을 때(그 때 내 나이 십여 세로 우리 백성들이 배우는 바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였을 때) 내게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보며 너는 착실하며 또한 재치가 있는 아이라.

“네 나이 이십사 세쯤 되거든 이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잘 살펴 기억해 두었다가 앰뎀 땅에 있는 시므라 하는 산으로 가라. 내가 그 곳에서 이 백성들에 관한 성스러운 기록을 주께 맡기었으니,”⁵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체구가 큰 나를 백성들은 저들의 지도자, 곧 저들 군사의 지휘자로 삼은지라,

“내 나이 열여섯에 ... 니파이 군대의 앞장을 서 나아가니”⁶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 있어 얼마나 큰 사건들이었겠습니까! 그는 고대의 신성한 기록에 관한 지식을 얻고 10살에 예언자의 부름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니파이 백성의 임명으로 그는 16세 나이에 니파이 군대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열두 살이 되던 해 6월에 저는 저의 고향인 유타 주 렌돌프에서 신문을 배달하다가 말에 채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6개월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크리스마스에 처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사 정원회 회장단이 저의 집으로 찾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 중에는 데일 렉스, 더그 맥키논 및 집사 정원회 회장단에 있었던 13세 된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원회 회원으로서 저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솔트레이크시티 국제 공항의 짐 찾는 곳에서 있던 저에게 한 여성이 와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오래 전에, 사우스 리치 고등학교의 옛 학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동창회에 나갈 때의 두려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약간의 흰 머리와 주름이 있었습니다.(물론 저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오는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학창 시절 회원이 아니었던 그녀 가족은 우리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스 고메즈였습니다. 저나 제 친구 또래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친절하고 늘 예의 바른 여성이었으나 교회의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엘리스, 얘기 좀 해 주겠어요?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활동적인 것 같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교회 다니자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 우리 정원회는 정말로 그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자메이카에 있는 어린 제사 정원회 회원들이 선교사들을 돕겠다고 결심했던 이야기를 최



근에 보고 받았습다. 이 청년 정원회는 선교사들을 위해 약속을 만들어주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곧 선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구도자를 찾았습니다.

유타 케이스빌의 한 제사 정원회는 정원회 회원을 한 명도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정원회 회원이 저활동 회원의 집을 찾아가서 그 저활동 소년의 침대를 둘러싸고 앉아 주일 학교 공과를 전해주었습니다. 곧 그 청년은 정원회에 가입하여 다른 회원에게 주일학교 공과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2003년 현재, 교회에는 26,000개 이상의 와드와 지부가 있으며, 약 78,000개의 집사, 교사, 제사 정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군대입니까!

아론 신권 정원회에서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 유지와 정원회의 다른 회원들을 활동화시키는 사업에 그들이 기여하는 바는 대단합니다.

열여섯 살 된 몰몬이 대규모의 군대의 지휘

관이 될 수 있고, 어린아이로서 예레미야가 그의 입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으며,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지혜가 있었다면, 제 말씀을 듣는 모든 청소년은 정원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의 책임은 장로 정원회나 대제사 그룹의 책임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천사의 성역을 베푸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임명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임되었음을 알고 부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아론 신권 정원회가 하나님의 신성한 신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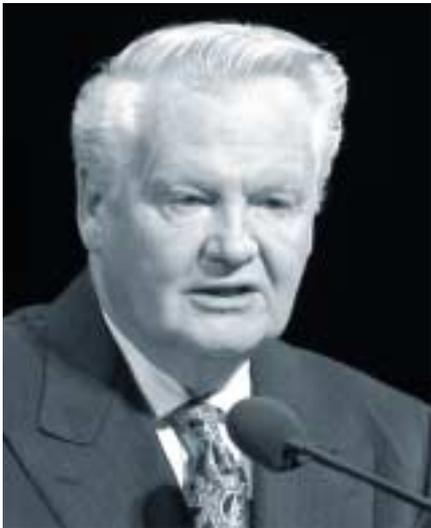
주

1. 요셉 스미스서 2:68~69.
2. 예레미야 1:4~7, 9.
3. 디모데후서 1:6, 9.
4. 디모데후서 3:15.
5. 몰몬서 1:1~2, 4.
6. 몰몬서 2:1~2.

신권, 열쇠와 축복의 권세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칠십인 회장단

합당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은 그들에게 위임된 권세를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놀라운 증거의 하나는 신권과 그것을 지시하는 권세가 지상에 회복된 방법에 관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더리의 간증입니다. 각 경우에 신권과 신권 열쇠는 초기에 그것을 지니고 있던 거룩한 사자들에게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과 더불어 회개와 침례의 열쇠를 회복했습니다.¹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왕국의 열쇠”도 회복했습니다.² 모세와 엘리야는 “집합”과 “인봉”의 열쇠를 갖고 돌아왔습니다.³ 신권의 회복을 설명하는 사건들은 이전의 경륜의 시대에 신권을 회복한 경

전상의 모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구세주 시대에 신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전달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역이 끝나갈 무렵, 자신이 곧 사도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며 또한 승천한 후에 그들이 사업을 인도할 경우 신권의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는 베드로에게 “왕국의 열쇠”⁴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열쇠를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며 그곳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보였습니다.”⁵ 이 일이 있고 나서 구세주께서는 이제 사도들이 성역을 인도할 열쇠를 지녔다고 선포하셨습니다.⁶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구세주, 모세, 그리고 일라이어스가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열쇠를”⁷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마태가 설명한 신권 회복의 방법은 우리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전 시대에 열쇠를 갖고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지상에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세기에 팔마이라 지역에 있던 성직자들은 대배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권을 받는 것에 관해 전혀 다른 방법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도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소망을 통해 믿는 자에게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안수를 통해 권능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권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⁸ 또한 그들은 신권 열쇠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그분의 권세와 권능입니다. 신권 열쇠는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권리입니다. 교회 대관장은 전교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대관장단에 있는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도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며 대관장의 지시 아래 움직입니다. 스테이크장, 감독, 성전장, 선교부장, 정원회 회장도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교회를 인도할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좌들은 열쇠는 갖고 있지 않지만 “부름과 임무 지명에 의하여 위임된 권능을”⁹ 받습니다.

신권과 신권 열쇠는 속죄의 축복을 받도록 문을 열어 줍니다. 신권의 권세를 통해 사람들은 구세주의 위대한 자비의 행동으로 가능해진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성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성신을 받음으로써 불로 정결하게 되고, 진리로 인도되며, 위로 받고, 성결케 되고, 속죄의 열매를 취하는 자로서 많은 면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인봉의 권능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를 영원히 묶어 다가올 세상에서 승영을 가능하게 해 주는데, 이것 역시 구세주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합당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은 그들에게 위임된 권세를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회복이 가져다준 위대한 유산 중 하나는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된 아버지가 영의 속삭임을 받을 때 아내나 자녀가 원할 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의 중요성, 가치,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해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이 여러분에게도 흥미가 있을 것입니다.

큰아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베이트먼 자매와 저는 새 학년이 시작될 무렵이 되면 가장의 축복을 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가정의 밤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인 마이클이 3학년이 되던 해에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 여름에 아들은 어린이 야구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 해는 운동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기 바로 전, 가정의 밤을 가졌을 때 마이클은 축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린이 야구의 첫 시즌을 마쳤고 축복은 더 어린 애들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베이트먼 자매와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격려하면서 축복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축복은 그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한 친형제 자매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격려와 설득은 실패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컸습니다. 우리는 선택의지의 원리를 믿고 여덟 살 된 아들에게 축복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을 제외한 모든 아이가 그 해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학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마이클과 다른 자녀들은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학교 생활과 가족 생활을 잘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5월이 되어 어린이 야구 경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자, 마이클의 코치가 팀 훈련을 소집했습니다. 마이클의 기대는 한없이 컸습니다. 그의 꿈이 실현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선발 포수였습니다. 야구장은 집에



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코치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건너 야구장으로 갔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아이들과 코치가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과 한 친구가 코치와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서 차량이 많은 도로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주변을 살피지 못한 마이클은 16살 짜리 청소년이 처음 모는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청소년이 느꼈을 두려움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는 브레이크를 힘껏 밟으면서 방향을 틀어 아이를 피하려 했습니다. 불행히도 앞바퀴 덮개의 모서리와 범퍼에 부딪친 마이클은 길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베이트먼 자매와 저는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위급한 상태였으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집을 나서

기 전,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와서 아이를 축복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20분은 내 생애의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생명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응급실 문 옆에 차를 세우면서 울고 있는 젊은이와 경찰관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관은 우리를 알아보고 그 젊은이가 사고 차의 운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우리는 팔로 그를 감싸 안고는 사고가 그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병원으로 들어가서 마이클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의사와 간호사는 신속하게 아이에게 응급 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도착해 있었으며 우리는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2, 3분



대회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유타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합창단원들.

정도 시간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권을 지닌 제 친구가 기름을 붓고 제가 인봉했습니다. 마이클의 머리에 손을 얹자 제게 위안과 평안의 느낌이 왔으며,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입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은 곧바로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그 후, 4주 동안 마이클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리에는 고정 장치를 한 채 입원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야구부 친구들이 경기가 끝난 후 방문하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이 경기 이야기를 생생히 전해줄 때마다 마이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고정 장치 착용 4주 후에 마이클은 가슴에서 발가락까지 깁스를 했으며, 우리는 두세 번 그를 경기장으로 데리고 가서 친구들의 경기 모습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4주 후에 전신 깁스는 엉덩이에 서 발가락까지 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으며 학기

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마지막 깁스를 떼어 냈습니다. 다음날 저녁 가족이 모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축복을 원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난 번 보다는 조금 더 나이를 먹고, 훨씬 더 현명해진 아홉 살짜리 아들이 첫 번째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자녀들은 신권 축복을 받았다고 사고가 늘 방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신권을 통해 한 가지 형태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자녀들이 신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이 가족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열네 살 된 소년 요셉 스미스가 어느 교회가 옳은가를 묻기 위해 숲 속으로 들어간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받은 응답과 뒤이어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및 다른 거룩한 사자들을 통해 신권과 그 열쇠가 회복된 것을 영원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권세를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3; 요셉 스미스서 2:68~72 참조.
2. 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3. 교리와 성약 110:11~16 참조.
4. 마태복음 16:19 참조.
5. 마태복음 17:1~3.
6. 마태복음 18:18; 교리와 성약 7:7 참조.
7.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76), 154쪽.
8. Milton V. Backman, Jr., *Christian Churches of America: Origins and Beliefs*, rev. ed.(1976, 1983), 54~55쪽.
9. *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1998), 159쪽.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자신의 조상에 관해 좀더 배움으로써 자신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내십시오.



세 계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인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의 사랑과 인사를 전합니다.

미국의 평원을 횡단하는 여섯 살짜리 여자 고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름은 엘시 앤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두 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했으며 아이는 한동안 계모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마저 윈터 쿼터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모는 재혼하여 이 어린 고아를 계모의 친척인 피터와 셸리나 로비슨 부부에게 남겨 두고 멀리 이사했습니다. 엘시 앤은

1849년 7월에 로비슨 가족과 함께 윈터 쿼터를 떠나 서부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셸리나가 10 개월 된 딸을 돌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사랑이 몹시도 그리워졌습니다. 때때로 아이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라고 묻곤 했을 것입니다.

저는 위로하고 도와 줄 혈육도 없이 불확실한 앞날을 눈앞에 두었던 이 아이를 생각할 때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엘시 앤은 제 증조모였으며 우리는 최근에서야 그녀의 생모가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엘시 앤이 제인 로비슨의 딸이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 우리는 그녀의 친부모를 찾았으며 몇 해 후에 엘시 앤은 생부인 존 애컬리와 생모인 메리 무어에게 인봉되었습니다.

제 양가 조부모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분들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 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제임스 애컬리 파우스트라는 성함을 가지신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분에 대해 아는 것은 오직 할머니와 부모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그 분의 한 부분이므로 그 분과 큰 연관성을 느낍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분은 유타 중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카우보이, 목장주, 그리고 우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한번은 할아버지가 겨울에 아이다호로 여

행을 했는데 그 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느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날씨는 몹시 추웠으며 할아버지의 친구는 코트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코트를 벗어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젊음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조상에 관해 좀더 배움으로써 자신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내라고 권고합니다. 뿌리(Root)라는 책의 저자인 알렉스 헤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유산을 알고자 하는, 즉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를 알고자 하는, 원초적으로 깊은 어떤 굶주림이 있다. 마음을 채워 주는 이 지식이 없는 공허한 동경이 따르게 된다. 우리가 생에서 무엇을 얻든지 간에 여전히 공허함, 빈상태, 그리고 가장 불안한 외로움이 있다.”¹ 활력 있고 힘찬 조상들에 관해 알게 될 때 우리는 흥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문제와 희망과 꿈을 갖고 있었던 정말 활기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면에서 조상들의 결실입니다. 그 분들이 지니고 있던 덕성들이 우리의 덕성이 될 수 있고, 그들의 힘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분들의 어려운 과제가 우리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특징들이 우리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장거리는 증손자 하나가 재미있게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제게 “재가 꼭 당신처럼 걷네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특성을 누구에게서 물려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오래 전에 돌아가신 조상을 알게 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우리 각자는 매혹적인 가족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상들에 관해 알아내는 일은 젊음이 여러분이 풀어 낼 수 있는 가장 흥미 있는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든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노소를 막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아크라 가나 라테비오코르시 스테이크에 있는 170명의 어린이들은 두 시간에 걸친 프로그램 동안 4대 가계도를 작성했으며 그 중 74명 이상이 작업을 완성해 전시를 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



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다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떤 기록을 수집해야 하고,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²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영화나 어떤 컴퓨터 게임보다도 매혹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부모와 증조부모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분들을 위해 어떤 성전 사업들이 행해졌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모른다면, 와드에서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족 중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물어 보십시오. 조상에 관해 좀더 자세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 가족 성경과 같이 가까운 곳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다음, 출생, 사망, 결혼 등에 관한 기록, 교회 기록, 인구 조사 기록 및 군대 기록 등과 같은 다른 정보 출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다면, 여러분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교회의 가족 탐구 사이트인 FamilySearch.org에 접속하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역사는 컴퓨터가 여러분의 탐구에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세련된 활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집 또는 가까운 가족 역사 센터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집되어 있는 방대한 가족 역사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역사 센터는 현재 88개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세계적으로 가족의 유산을 보관하는 일을 돕는 독보적인 기록 보관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솔트레이크시티 가족 역사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가족 역사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교환하고 제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별도의 봉투에 다섯 명의 자녀를 보내 드립니다.”

죽은 친족을 위한 구원 의식을 베푸는 위대한 사업은 교회의 3대 사명의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죽은 조상들을 구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성전 사업

은 자신들을 위한 이러한 구원의 의식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죽은 친족과 우리들 모두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필수적인 이유는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해질 수”³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의식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인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계를 추적하여 아무도 제외되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죽은 친족을 찾는 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 회원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삶이 계속되고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고 믿습니다.⁴ 우리는 가족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맺은 특별한 성약을 지킬 경우 다음 세상에서 계속 함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죽은 조상들을 대신하여 성약을 맺을 때 그들도 가족과 영원히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조상들이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기를 선택할 경우 이 성약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⁵

성전에서 행해지는 죽은 친족을 위한 위대한 대리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공의와 공평 모두를 잘 보여 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이 없을 경우 하나님의 자녀가 당면하게 될 굉장한 모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해의 복음을 결코 듣지도 못하고 죽어 땅에 묻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져 그가 듣고 받아들여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영광의 상속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소망 없는 멸망에 처하게 됩니까? 그에게 벗어날 기회는 없습니까?”⁶ 다행히도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그들의 신분을 밝혀 내어 이 성스러운 의식을 그들을 위해 대리로 행할 때 이 구원의 의식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입니다.

케틀랜드 성전에서 주어진 위대한 시현에서 예언자 엘리야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성전 사업의 열쇠와 인봉의 권세를 요셉 스미스의 손에 맡겼습니다.⁷ 이것은 엘리야가 와서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⁸라고 한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선조에게 돌이킨다는 것은 돌아가신 조상들의 이름을 찾아내어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 구원의 의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조상을 연결하는 끊임없는 고리가 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모두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이브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가정의 밤에서 자녀들이 자기 개인의 기억의 책들을 가져왔을 때 열한 살 된 한 소년은 마음이 조상들에게 돌이켜졌습니다. 어린 제프는 어머니를 따라 국립 기록 보관소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즐겼으며 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져



결국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네 시간 동안 탐구를 한 후에 아이가 “엄마, 할아버지를 찾았어요.”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그는 5대조 할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⁹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역사부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본 하나만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해의 왕국의 가족 조직이 “완전한 것” 다시 말해 “한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부터 다른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에게로 연결되어 끝까지 연결되는 가족”¹⁰이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족의 이름들을 추적하면서 우리는 종종 출처에 따라 이름의 철자가 다른 것을 봅니다. 계보 연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된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한 대학생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도서관을 걸어가면서 시어링(Searing) 가족 중에 누군가가 뉴욕 주에 있는 어느 마을이 조상 가운데 한 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찾게 된 아주 오래된 뉴욕 주 색인에서 1,600년대 중반에 롱아일랜드의 정착을 도운 시몬 시어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그의 조상일까요? 그는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진지하게 탐구를 시작하여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러나 여전히 1,8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기치 않게 시어링(Syring) 가족의 역사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시어링 책에 있는 가족들은 그가 탐구한 같은 세대에서 끝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세대를 연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정착민인 시몬 시어링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¹¹

가족 역사에 흥미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저명한 사람에게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제 자신의 경험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몇몇 사람들에게 대해 알고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영웅적인 삶을 말해 줍니다. 아더 알 바셋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조상에게 돌을 던지고 싶어합니까? 저는 그들의 전쟁, 승리는 물론 패배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 저는 가장 평범한 삶처럼 보이는 것에 매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것에 숨겨진 고무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¹² 여러분이 조상들 중에서 말을 흥신 사람들을 찾을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그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죽은 자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죽은 자의 영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의식에 따르므로써 구속 받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범법에 대한 형벌을 받고 깨끗해진 후에 그들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¹³ 되기 때문입니다.

조상을 하나씩 찾는 일은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또한 흥미롭고 보상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의 신분을 밝혀내는 출처에 다가설 때 영적인 인도를 느낍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장막 다른 편에서 오는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친척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의식 사업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서 오는 영향력을 느낍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인 까닭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그 일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참여하면서 성전 사업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일찍 가보면 젊은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흰 옷을 입고 이 훌륭한 경험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헌신에 대해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미 성전 안에 있는 평안과 평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만 특권을 주시지 않을 것이며, 조상들에게서 그것을 금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와 조상들이 영원히 함께 결합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¹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대리로 침례, 엔다우먼트 및 인봉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또한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이 중요한 사업에서 우리를 인도할 때 주님께서 그 분께 지시하시고 영감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신권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때 오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What Roots Means to Me", *Reader's Digest*, 1977년 5월호, 73~74쪽.
2. 보이드 케이 패커, "여러분의 가족 역사: 일을 시작함",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15쪽.
3. 교리와 성약 128:18.
4. 사도행전 24:15; *앨머서 교리*, 2:154.
5. "Why Family History?" Internet, www.familysearch.org 참조.
6. *History of Church*, 4:425~426.
7. 교리와 성약 110:13~14, 16 참조.
8. 교리와 성약 110:14~15 참조.
9. R. Scott Lloyd, "Hearts of the Children", *Church News*, 1986년 9월 14일, 16쪽.
10.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2:154.
11. Bryan Searing, "The link made", *Church News*, 1990년 10월 27일, 16쪽.
12. "The Relationship of Genealogy and History" in *Proceedings of the 1980 World Conference on Records*, 13 vols., *Archiv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4.
13. 교리와 성약 138:58~59.
14. 윌포드 우드러프, *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sel. G. Homer Durham(1946), 149쪽.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소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구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당당한 회중 이외에도 수많은 신권 소유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님이 말씀하신 신권 권능의 정의가 생각났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권은 통상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세라고 간단히 정의됩니다. 이 정의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으로 볼 때 저는 신권을 봉사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종종 '완전한 봉사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¹

아론 신권의 집사 직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멜기세덱 신권의 장로 직분을 소유하고 있던 우리는 교리와 성약 107편 99절에 있는 주님의 계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저의 막내 아들 클라크가 열두 살이 되기 얼마 전에, 제가 그 애와 함께 교회 행정 건물을 나서는데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께서 저희에게 오시더니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클라크가 곧 열두 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리 대관장님은 아들을 보고 "열두 살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아들이 영감을 받아 적절한 대답을 하도록 기도합니다. 클라크는 주저하지 않고 리 대관장님께 "집사에 성임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 대관장님께서 원하시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은 제 아들에게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저는 와드 회원들에게 성찬을 전달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 집사들은 의무에 관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와드 회원 가운데 중풍에 걸린 루이스라는 형



제님이 계셨는데 그 분의 머리와 손은 너무나 심하게 떨려서 혼자서는 성찬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 집사는 루이스에게 성찬을 전달할 때 그 분이 빵을 드실 수 있도록 입에다 넣어 드리고,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붙들고 다른 손으로 컵을 입에 대주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성찬기는 다른 집사가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항상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 이와 같은 대회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임에서 성찬이 집행되었는데 맥케이 대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취하기 전에 저는 이 정원회에 새로 들어온 몬슨 형제께서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해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에게 가르침을 주기

를 부탁드립니다.” 그 때 저는 “결정의 시기가 오면, 준비의 시간은 간 것이다.”라는 옛 격언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간에 저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다음과 같은 권고가 떠올랐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²

저는 가끔씩 잊혀진 한국 전쟁의 최전선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던 우리 와드 회원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일요일 아침, 주변에서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 어떻게 소대원 몇 명이 헬멧에 담겨진 빵과 물을 취했는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성스러운 상징물에 대한 축복의 중요성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개인의 책임을 기억했습니다.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와 함께 했던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한 기억은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합니다.

군대에 있던 선교 사업을 하든, 혹은 다른 목적으로든, 가정과 가족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공휴일이 되면 그리움이 생기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자녀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형제 자매의 포옹을 느끼는 것은 천국과 그 곳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미리 보는 일이 됩니다.

어느 12월 저녁, 싱가포르의 질식할 것 같은 더위와 습기 속에 서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몬슨 자매와 함께 기다리는 동안 공항의 대형 방송 시스템에서는 빙 크로스비가 부르는 다음과 같은 귀에 익은 경쾌한 멜로디가 흘러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나는 집에 있겠네

나를 위해 계획할 수 있다면
눈과 겨우살이를 준비해 주오
그리고 나무에는 선물들을,
크리스마스 이브가 나를 찾겠네
사랑이 비추는 곳에서
크리스마스에 나는 집에 있겠네
그것이 비록 꿈에서이지만³

대관장단은 오랫동안 다음 말씀을 강조해 왔습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이며, 그 어떠한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그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⁴

경솔한 말로 자신들을 가족에게서 떼어놓는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극을 어떻게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몇 년 전 한 젊은 이의 생활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의 이름을 잭이라 부르겠습니다.

잭은 그 동안 여러 번 아버지와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열일곱 살이 되던 어느 날, 잭과 아버지는 매우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잭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말을 남기고 잭은 방으로 가서 가방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사정했지만 너무나 화가 난 잭은 듣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우시는 어머니를 두고 그는 떠났습니다.

마당을 지나 막 대문을 나서려는 잭에게 그를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잭, 네가 집을 떠나려는 것은 대부분 내게 책임이 있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싶을 땐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때엔 네게 좀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마. 언제나 널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주길 바란다.”

잭은 아무 말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먼 곳으로 가는 표를 샀습니다. 버스에 앉아 집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한 말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과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권유하며 남긴 “널 사랑한다.”는 말이 여름 날의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보여 준 것과 같은 성숙함과 선함, 그리고 사랑을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잭은 버스에서 내려 다시 돌아가는 표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막 지나서 집에 도착한 그는 집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그 곳 흔들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를 들고 잭을 바라보자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났으며 두 사람은 서로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잭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었던 그 마지막 몇 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인이 된 소년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를 억누르고 자존심을 자제하여 아들이 결손 가정과 무너진 가족의 결과로 생겨난 수많은 “길 잃은 영혼” 가운데 하나가 되기 전에 그를 구해낸 아버지도 그 곳에 있었습니다. 사랑은 결속시키는 끈이며 치유하는 유행입니다. 사랑은 자주 느낌으로 오지만 표현이 어렵습니다.

시내 산에서 올리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⁵라는 말씀이 우리 귓전에 천둥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후일 주님으로부터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⁶라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활동 회원이 되었거나 가족의 품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신성한 의무입니다.

교리와 성약 18편에 있는 주님의 계시에 담긴 아름다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것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

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⁷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으로서, 또한 정원회들의 고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구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마음에는 결의를 갖고, 저활동 소년의 손을 잡고 함께 신권 모임에 나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도록 준비하신 일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으므로 여러분은 그분의 신성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쪽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⁸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와 관련해 똑같이 성스러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수반되는 똑같은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공을 거둘 때 여러분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린이의 마음에서 나오는 부드럽지만 표현되지 않은 느낌에 응답될 것이며,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찾아가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의해 영원히 존중될 것입니다.

제 자신이 경험했던, 어쩌면 개인적이지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감독 시절에 저는 교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 저활동 회원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걱정을 하며 차를 몰고 벤과 에밀리 풀머 부부가 살고 있는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노년에 접어들어 느끼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활동보다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일상의 활동과 교제로부터 고립되고 분리되고 단절되었습니다. 벤과 에밀리는 여러 해 동안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감독을 지낸 벤은 항상 거실에 앉아 신약전서를 읽으면서 암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시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스트리로드에 있는 공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

손 이유에서인지, 저는 목적이인 공장으로 가기 위해 전에 한 번도 다녀 본 적이 없는 퍼스트 웨스트 거리로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임에 가는 길이었지만 차를 주차하고 벤과 에밀리를 찾아가 보라는 분명한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 느낌을 무시하고 두 블록쯤 갔지만 다시 그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들의 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다가갈 때 귀여운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 자매님은 저를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전화 한 통 없고, 우체부가 편지라도 가져왔으면 했지만 청구서뿐이었어요. 감독님, 오늘이 제 생일인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에밀리 자매님, 그분은 자매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저는 이 부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곳에 오도록 인도 받았는지 정말로 모르겠지만 제가 인도 받았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유를 아십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 보기로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여 응답을 얻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저는 풀머 형제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님, 모든 신권회 형제들이 함께 만나는 신권회에 오셔서 제가 소년이었을 때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즉 어느 일요일에 형제님과 한 무리의 소년들이 조단 리버로 수영을 하러 가는 길에 어떻게 영이 주일학교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는가에 관한 그 이야기를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은 그 때 영의 속삭임을 따르셨죠. 그리고 그 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한 소년은 물에 빠져 숨졌지요. 청소년들이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리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풀머 자매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전 자매님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와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합창단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합창단에 참여하여 와드 대회에서 독창을 해 주시면 어떨겠습니까?”

“몇 장을 부르나요?”라고 자매님이 물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이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노래를 부르시고, 형제님은 아론 신권 정원회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벤과 에밀리가 다시 돌아와 활동하게 되자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 날부터 거의 성찬식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영의 언어가 주어지고 들렸으며, 또한 이해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영혼이 구원 받았습니다. 벤과 에밀리 풀머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공연된 뮤지컬의 하나가 *레 미제라블*입니다. 프랑스 혁명 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뮤지컬의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그는 싸우러 나가는 마리우스라는 청년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진지한 기도

를 노래로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제가 필요한 때에
당신은 늘 계시어 주셨나이다

그는 어리고 두려워하나이다
그를 편안케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소서

그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소서
그는 젊은 소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데려갈 수도 있고 도열보내실 수도 있
나이다

그가 살게 하소서 그가 살게 하소서
죽어야 한다면 제가 죽으리이다,
그를 살게 하소서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소서⁹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의무를 배우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찾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는 못할지라도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¹⁰라는 그분의 인사를 기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라는 그분의 말없는 간청을 마음속에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Conference Report, 1937년 4월, 46쪽.
2. 베드로전서 3:15.
3. Kim Gannon and Walter Kent, “I’ll Be Home for Christmas”, 1943년.
4. Clark, J. Reuben, Jr., meeting of General Church auxiliary executives, 1940년 3월 29일: “대관장단 서한”,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1쪽 참조.
5. 출애굽기 20:12.
6. 교리와 성약 42:45.
7. 교리와 성약 18:10, 15~16.
8. 교리와 성약 84:88.
9. Herbert Kretzmer, “Bring Him Home”
10. 마태복음 25:21.

이스라엘의 목자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훌륭한 감독님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분께서만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속에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저는 조금은 이례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15년 전 신권 모임에서 드린 말씀 중 몇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감독에 관해 그 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훌륭한 무리입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감독이나 지부장을 위해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 회원에게 감독과 지부장이 짊어진 짐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 도와야 하며, 그들에게 의지하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우는 짐으로 그들을 몹시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현재 만팔천 명 이상의 감독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해 부름 받았으며 안수에 의해 성별되고 성임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그 와드에서 회장단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감독은 대제사로서 그 와드의 감리 대제사입니다. 모두 막중한 청지기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모든 감독은 와드에서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무도 봉사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와드의 감독도 그가 감독으로 일하는 수고에 대해 교회에서 보상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감독의 요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던 때의 그것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즉 약한 자를 못살게 굴거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며] ... 다루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

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디모데전서 3:2~6)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디도서 1:7, 9)

이 말씀들은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감독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감독님들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성실함과 선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감리하는 회중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다 높은 곳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끌어올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주님의 기금, 회원들의 십일조, 금식 헌금,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 바치는 헌금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창고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신임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함은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악마는 여러분을 파멸시킬 때, 그것이 전와드에 손상을 입히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간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 조그만 오점이라도 찾게 되지 않도록 모든 관계에 있어서 지혜를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외설 서적을 읽거나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의 방의 은밀한 곳에서조차도 외설적인 동영상과 보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힘은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개인적인 타협이나 당황함 없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설득 때문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도록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감독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로서 갖는 자격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판사로 서는 일은 두렵고 막중한 책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합당한가에 대해,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성에 대해, 침례 받기 위한 합당성, 신권을 받기 위한 합당성,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합당성, 조직에서 역원으로 봉사하고 가르치기 위한 합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금식 헌금으로 도움을 주고 주님의 창고를 통해 생필품을 제공해 주어야 할 사람들의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비록 도움청하기를 꺼린다 하더라도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거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양 떼 모두에 관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원들이 슬픔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상담자가 되고 위로해 주고 그들의 닻

과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오는 그 힘으로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그 지혜로 현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은 회원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야 하며, 여러분의 등은 그들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튼튼해야 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그들의 필요 상황을 판단하는 데 민감하고 여러분의 거룩한 사랑은 잘못 행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고 강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꺼이 듣고 이해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감독이 받은 편지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감독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독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자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찾아갈 사람

이 아무도 없었으며, 돈도 직업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집은 빼앗겨 살 곳도 없었으며, 교회가 제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열일곱 살에 교회를 떠났으며 저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 기존의 모든 규칙과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행복 대신 제 생활은 비참함과 고뇌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게는 희망이나 미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극을 벗어 버리기 위해 죽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분까지도 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또한 그분께서 저를 거절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독님과 교회를 찾아간 것이 그 때였습니다.

“감독님은 제 말을 이해로써 들어주시고, 권고하고 인도하고 도와 주셨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던 제 생활에 어떤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또 제게는 그렇게 할 가치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대로 생활하고 회개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적인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뇌와 절망의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속죄로 인해 제 연약함과 죄가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축복하고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길을 열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며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장애를 하나씩 극복할 때마다 제 사업은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가족에게 유익을 주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독님은 지난 2년 동안 제게 이해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독님의 사랑과 인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와 같은 위치에 결코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방황하는 그분의 자녀인 저를 도와 주신 것에 대해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관리하는 와드라는 망대에서 파수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 와드에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회원들 간에 거짓 교리가 스며들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간증 안에서, 성실과 의로움 안에서 그리고 봉사심 안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회원들의 사랑이 커지고 또 그것이 서로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고백을 듣는 사람이 되어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그것을 철저히 기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아는 것으로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학대의 경우, 법적 요건에 의해 별도로 지시되어 있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비밀로 이야기되는 사항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분에게 보고된 학대 사건에 관해 즉

시 연락할 수 있는 긴급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개인적으로 와드의 아론 신권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마음이 있든 없든 그들의 지도자요, 교사요, 모범입니다. 여러분은 감리 대제사로서 와드라는 가족의 아버지가 되며, 불화를 해결하고, 고소당하는 사람의 변호자로 부름 받습니다.

여러분은 교리를 가르치는 모임을 감리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모임의 영적인 본질과 회원들에 대한 성찬 집행에 대해 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짊어진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성스러운 성약과 의무를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미망인과 고아에게, 연약하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에게, 학대 받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확실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팔 소리는 분명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와드에서 죄와 무관심과 배도를 정복하여 승리를 이끄는 주님 군대의 대장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일을 하는 데 결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가 매우 많고 또 자주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마땅히 바쳐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흠쳐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도 흠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신성한 인도를 구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지혜를 넘어선 지혜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힘과 능력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시간을 잘 계획한다면 여러분은 직장과 가족과 여러분의 양 떼 중 어느 하나에게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훌륭한 감독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자신의 직분에 따르는 짐에 관해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봉사에서 얻는 기쁨도 알고 있습니다. 짐이 무거운 만큼 그 대가는 가장 감미롭고 보람있으며 또 여러분이 가정 밖에서 해

온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세계적으로 이 교회에 있는 훌륭한 감독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팔천 명 이상이나 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참되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세운 목표에서 확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 기간이 길고 피곤할 지라도 여러분이 취하는 휴식이 감미롭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분께서만 주시는 평안을 마음 속에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의 감독들이 갖고 있는 힘과 선함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들을 돕는 보좌들과 그들의 지시에 따라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침서 상에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십시오. 그런 다음 나머지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언젠가 그 직에서 해임될 것입니다. 그 때가 여러분에게는 슬픈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릴 때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며 이후로도 감사의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역원 중에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부름 받고 성임 받고 성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해 주는 사랑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자신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름의 신성한 본질과 여러분이 그 일을 성취하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할 때 여러분과, 보좌들과, 아내와 자녀들이 축복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



대회 위성 방송에
참석중인 과테말라
회원들.(위쪽과 하단
왼쪽) 상호부조회
총회를 시청중인 일본
자매들.(하단 오른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여원

대관장단

2003년 11월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제2보좌

십이사도 정의회



보이드 케이 팩커



켄톤 페리



레이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저 오스



엠 러셀 페리드



조셉 비 워스린



리처드 디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스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철심인 회장단



엘 시 탠기



디웨이브 크리스토퍼슨



데이비드 이 소렌슨



데니스 비 노인슈타더



찰스 디디에이



디티어 에프
양용득드윈프



메릴 제이 베이트먼

최십인 제1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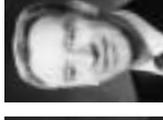
김태호



남영



몬트



셴



앤



게리



스펠서



진



린



클라



로버트



존



크리스



월터



존



브루스



도널드



에프



해럴드



에프



제이



맬린



케네스



다블류



오시



존



리처드



린



클랜



브루스



칼



로널드



존



세실



스티븐



포터



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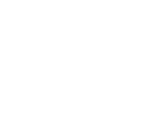
다블류



로버트



린



리처드



스티븐

최십인 제2 정원회



마빈



이



더글러스



데이브



셴



밥



다윈



키스



아레



제임스



대릴



디



에이지



로버트



키스



스티븐



제임스



클라



데이브



매



로버트



로버트



스티븐



윌리엄



웨인



에이지



네드



알



다블류



데니스



도널드



로버트



데이비드



에이지



윌리엄



고든



스티븐



리처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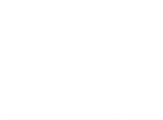
로버트



에이지



에이지



에이지

감리 감독단



리처드



에이지



키스



대회 방송에 참석 중인 남아프리카 회원들(맨 위와 가운데 왼쪽), 폴란드 회원들(가운데 오른쪽)과 하와이 회원들(아래쪽). 최근에 개종한 폴란드 회원들은 이번이 처음으로 접하는 연차 대회 방송이다.

다리를 짓는 사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예수 그리스도는 ...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데이비드 에스 라벤더가 쓴 *서쪽 바다로 가는 길*이란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태평양에 이르는 육로를 찾고자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그 유명한 탐험대를 이끌었던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락의 영웅적이고 흥미 진진한 여행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악몽과도 같은 고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깊은 골짜기들을 건너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다음 강줄기를 만날 때까지 무거운 필수품으로 가득 찬 배를 들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읽으며, 골짜기나 거센 물결을 지나는 현대식 다리라도 있었다면 하고 자주 생각하곤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자랑인 아름다운金門교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탄탄한 하버 브리지, 또는 다른 여러 나라의 다리들과 같이 우리 시대의 웅장한 다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모두 여행자, 아니 필멸의 세계를 지나는 탐험가들입니다. 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유익을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인생 여행을 하는 동안 가파른 절벽과 소용돌이치는 물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아마도 암담한 그런 생각이 시인 윌 앨런 드럼굴리의 고전시 “다리를 짓는 사람”에 영감을 불어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딴 길을 가는 한 노인이

쭈고 어둑한 해질녘에

크고 깊고 넓은 협곡에 이르렀네.

그 아래로 음침하게 계곡물 흐르고

땅거미 짙게 내리는데 노인은

음침한 계곡물 두려움 없이 건너네

무사히 건너편에 이르자 뒤돌아

계곡물 지나는 다리를 짓네

“이 보게” 곁에서 여행하던 친구가 말하네

“이곳에 다릴 짓느라 힘을 허비하다니

이 여행도 죽고 나면 다 끝나네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갈 일이 없을 곁세

깊고 넓은 협곡을 건넌건만

왜 이 밤에 다리를 짓는단 말인가?”

노인은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들어 말하길

“좋은 친구여, 내가 걸은 이 길을

오늘 내 뒤 따라 오는 사람 있으니

바로 이 길을 지나야 하는 젊은이라네
내겐 아무 것도 아닌 이 협곡이
금발의 그 젊은이에겐 위험이 될 수도 있다네
그 또한 땅거미 속에 건너야 하니
좋은 친구여,
나는 그를 위해 다리를 짓는다네!”¹

이 시의 메시지는 제 생각을 일깨웠고 제 영혼에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다리의 설계자이시며 건축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구세주의 사명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²

그분의 출생이 있었고 이어서 마구간으로, 그 어머니에게로, 그 아이에게로 서둘러 목자들이 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조차도 별을 따라 와 어린 아이에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전은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³ 있었으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⁴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따라야 할 길을 보이시며, 그분은 이 필멸의 세상에서 어떤 개인적인 다리를 지으시고 건너셨습니까? 그분은 필멸의 삶이 위험과 어려움으로 가득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⁵

예수께서는 **순종의 다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면서 개인적인 순종의 변함없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고자 영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그분은 금식으로 약해져 있었습니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인(왼쪽으로부터)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와 악수를 하고 있는 헝클리 대관장(가운데)과 몬슨 부대관장(오른쪽).

다.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능력으로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첫째 유혹은 배고픔을 포함하여 구세주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구세주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⁶

그 다음으로 사탄은 권세를 제안했습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⁷

마지막으로 구세주께서는 부와 세상의 영광을 제안 받았습시다. 구세주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⁸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시대는 물론 우리 시대를 위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⁹

우리가 애매하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미국 ABC 방송의 나이트라인 프로그램의 테드 코펠의 논평을 인용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

에서 가져온 것은 열 가지 제안이 아니라, 십계명이었습니다.”¹⁰

마크 트웨인과 한 친구가 나눈 대화에 이런 날카로운 유머가 나옵니다. 부유한 친구가 트웨인에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난 성지로 순례 여행을 갈 생각이네. 시내 산 정상에 올라 십계명을 소리내어 읽을 걸세.”

트웨인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잘 지키기나 하게!”

우리가 건너도록 주님께서 마련하신 둘째 다리는 **봉사의 다리**입니다. 우리는 봉사의 모범으로 구세주를 바라봅니다. 비록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지상에 오셨지만 이웃에게 겸손히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필멸의 인간으로 살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런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축복하셨고, 앓은뱅이를 걷게 하셨고, 눈 먼 자를 보게 하셨고, 귀 먼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세주는 그분이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 우편에 서게 될 충실한 사람들에게 관해 이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입금이 ...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입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¹¹

언젠가 리차드 엘 에반스 장로님이 이런 권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¹²

전혀 예기치도 못한 뜻밖의 방식으로 제

찾아온 봉사의 기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 합니다. 하루는 오랜 친구의 한 손녀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부대관장님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프랜시스 브렘스 형제님을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재 105세이십니다. 작은 요양원에서 살고 계시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과 만나 그 곳에서 주일학교 공과를 전해 주세요. 지난 일요일에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난 이번 주에 이 세상을 떠난단다. 토미 몬슨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려 주겠니?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거야.’”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저녁에 브렘스 형제를 찾아 뵈었습니다. 귀가 멀어 말을 건넬 수도 없었고, 눈이 어두워 메시지를 읽도록 써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가족들이 그의 오른 손가락을 잡고 그것으로 왼손 바닥에 방문한 사람의 이름과 메시지를 적어서 의사 소통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따라서 그의 손가락으로 그의 손바닥에 토미 몬슨이라는 제 이름의 철자를 적었습니다. 브렘스 형제는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저는 신권 축복을 받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요양원까지 차로 데려다 준 형제와 함께 브렘스 형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토록 바라던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축복을 마치자 시력을 잃은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분은 우리 손을 꼭 잡았으며, 우리는 뭔가를 말하려 하는 그분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였습니다.

바로 그 주에 브렘스 형제는 자신이 예견했듯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전화 연락을 받았으며 그 후 장례식이 거행되었을 때 그 가족과 만났습니다. 봉사에 응할 기회를 미루지 않았던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봉사의 다리는 우리가 그것을 자주 지나나도 되도록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도의 다리**를 놓으셨



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부여 주리라. 내가 받을 복이 크리니”¹³

기도와 관련하여 제게 보내 온 한 어머니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때때로 저는 제 아이들의 인생에서 제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는 독신모로서 귀가했을 때, 기쁨은 난장판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연차 대회를 보고 있었는데 부대관장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들에게 벌써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 주셨어요. 하루는 제가 뭘 물어 보려고 엄마 방에 갔는데 엄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계셨어요. 엄마에게 그분이 중요하시다면, 제게도 중요하세요.’”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이 끝맺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영

향력을 줄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셋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드린 기도처럼 제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그 기도가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¹⁴

때가 되자 그 여행은 십자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견디기 힘든 길을 가시면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서 이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¹⁵

마침내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

나가시니라”¹⁶

이러한 사건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더불어 **순종의 다리, 봉사의 다리, 기도의 다리**를 엮는 마지막 다리를 완성하셨습니다.

다리를 짓는 분인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망이라 부르는 광활한 협곡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¹⁷ 얻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그분께서 지으신 다리를 건너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리를 짓는 사람”이란 시를 이렇게 고쳐서 전해 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깊고 넓은 협곡을 건넌건만
왜 이 밤에 다리를 짓는단 말인가?”

“오늘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 길을 지나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일세
내겐 아무 것도 아닌 이 협곡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네
그들 또한 땅거미 속에 건너야 하니
좋은 친구여,
나는 그들을 위해 다리를 짓는다네”

구세주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지으신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결심을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In James Dalton Morrison, ed., *Masterpieces of Religious Verse*, 1948년, 342쪽
2. 마태복음 1:21.
3. 누가복음 2:40.
4. 사도행전 10:38.
5. 마태복음 11: 28~30.
6. 마태복음 4:4.
7. 마태복음 4:7.
8. 마태복음 4:10.
9. 고린도전서 10:13.
10. Duke 대학교 졸업식 연설, 1987년 5월 10일.
11. 마태복음 25:34~40.
12. *Richard Evans' Quote Book*, 1971년, 51쪽.
13. 교리와 성약 19:38.
14. 누가복음 22:39~44.
15. 누가복음 23:34.
16. 요한복음 19:30.
17. 고린도전서 15:22.

하나님의 위대하심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서 그분의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참된 본질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본질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당시나 현재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분에게 더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을 보다 완전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전서 모두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의 첫째는 이것이니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는 커다란 계명이니]”¹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가르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아는 것이 복음의 첫째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알기 원하며, 그분과 친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² 우리는 그분의 온전함과 속성에 관해 … **정확한** 생각을 갖고 … [그분의] 탁월한 성품에 [대해 칭송]해야 합니다.”³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선언의 첫 구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⁴ 예수님도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거룩한 계획에서의 자신의 독자적인 역할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 아는 것”⁵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세대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길을 인간 가족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으나 대부분 거의 성공하지 못한 이후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에 있었던 많은 위대한 목적들 중에서, 그 사명의 한 중요한 면이 종종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의 제자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세주께서는 그것에 관해 되풀이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고통과 희생을 포함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또 모든 시대와 나라에 걸쳐 그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헌신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서 그분의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참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분의 독생자며 완전한 아들을 지상으로 보내셔서, 일상의 도전 속에서 인간들 가운데에 살며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지상으로 오셔서 엘로힘의 위치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판단하고 봉사하시며, 사랑하고 경고 하시며,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도 위대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녀의 특성이 될 충성과 결단으로 예수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임무들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며 또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후, 칭찬과 명예가 주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겸손하게 모든 칭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⁶ 또다른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⁷

오늘 아침, 저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의 진심에서 우러난 고백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안타까운 오해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버림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지는 모르나 하나님과의 준엄한 만남을 생각할 때에는 불편하다고 말합니다.⁸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모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이며, 그 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⁹ 같은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의 지시 아래 항상 행하신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읽음으로써(그리고 분명 일부 경우는 번역의 오류 때문에) 현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몰몬경의 주목할 만한 공헌 중의 하나는 장엄한 책 전체에 걸친, 신성함에 대한 빈틈 없고 완벽하게 일관된 견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처럼

빈 간격이 없으며, 빠진 시간적 간격 때문에 생기는 신학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읽기를 멈추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구약 시대에 시작되어 신약 시대에 끝나는 몰몬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긴급하게, 애정을 가지고 충실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원상대로 세상에 회복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나타나심을 통해 재현된 그분의 모든 풍요로움과 복잡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견해가 담겨 있는 몰몬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전들, 특히 회복된 경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경전들은 신화의 각 구성원의 위대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값진 진주에 감동적으로 생생하게 묘사된 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복은 하늘이 그의 눈 앞에 펼쳐 놓은 인류에 관한 장대한 시현 가운데서 필멸성의 축복과 난관 모두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눈을 돌리고는 그분이 우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 어떻게 우실 수 있사옵나이까? ... 당신은 공의로우시며 영원히 자비로우시며 친절하시나이다. ... 평화 ... 만이 ... 당신의 보좌가 좌정 하시는 곳이며, 자비는 당신을 앞서 나아가 끝이 없으시니 어떻게 당신께서 우실 수 있나이까?”

거의 모든 시대의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형제들을 보라. 저들은 내 손의 숨씨니 ... 또한 서로 사랑하고 나 저들의 하나님을 택하라는 계명을 주었으며, 저들에게는 아무런 애정도 없어 자신의 혈족을 미워하는도다. ... 어찌 하늘이라 할지라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보고 울지 아니하겠느냐?”¹⁰

그 감동적인 한 장면은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가르침에 있어 그 어떤 종교 저술이 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또한 몰몬경의 감람나무 비유의 그 생생한 순간을 정말로 우리가 훨씬 잘 이해하도록 도와 줍니다. 이 위대한 포도원 주인은 땅을 파고 거름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 주며, 가지를 쳐 주고 손질하며, 옮겨 심고 접붙인 이후, 가래와 전지 가위를 던지고는 듣게 될 자에게 크게 소

리치며 울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포도원에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¹¹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택하지 않고, 그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¹²도 택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를 그처럼 유일하게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월이 서서히 지나감에 따라, 그토록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잘못된 세대의 인간이 만든 신조에 따라, 점점 더 잘 알려지지 않고 잘 알 수도 없는 분으로, 즉 형태도 없고 냉정하며, 붙잡기 어려우며 만질 수도 없는, 어디서나 계시는 동시에 아무 곳에도 계시지 않는 분으로 다양하게 묘사되어 왔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몰몬경의 예언자들의 눈을 통해 우리가 본 분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버지의] 형상”¹³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신 채, 살아 계셔서 숨을 쉬시며, 몸을 가지고 계신 나사렛 예수와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결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개선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개선시키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인간들을 사랑해 오셨으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처럼 인간들도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간청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도 그들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깊은 헌신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위선자를 꾸짖고 신앙을 호소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선함으로 가득 찬”¹⁴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보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통해, 특히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내 자신의 자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니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을 아들이 완벽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두 분께서 우리 모두의 죄와 마음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언의 궁극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¹⁵

저는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그분의 영의 자녀로 영원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살아 계신 개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저의 간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본연의 너무나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안전을 하나님의 다른 모든 일들보다 우위에 두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¹⁶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는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고대인들의 증언이

회복의 메시지

찰스 디디에이 장로
칠십인 회장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참된 교회가 한 예언자에 의해 현대에 회복된 이유를 알리는 이런 권유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세상의 구세주께서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팔마이라는 현대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나타나심을 간증드리며 또한 저도 다음과 같이 그 예언자의 말씀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매우 자유롭고, 그의 자비와 축복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 하나님은 [최소한의] 죄[라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멸망당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 그들의 죄를 가려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¹⁷

저는 그러한 어깨를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도 직분의 영으로 고대에 이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¹⁸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가복음 12:29~30; 마태복음 22:37~38 참조; 신명기 6:5.
2. *History of the Church*, 6:305
3. *신앙 강화*, 1985년, 38,42쪽
4. 신앙개조 제1조.
5. 요한복음 17:3.
6. 요한복음 14:10; 5:19.
7. 요한복음 8:38, 28; 6:38.
8. William Barclay, *The Mind of Jesus*(1961) 참조, 특히 현대의 이런 경향을 토론하기 위해 “Looking at the Cross”의 장을 참조함.
9. 예. 니파이일서 10:18; 니파이이서 27:23; 모로나이서 10:19; 교리와 성약 20:12.
10. 모세서 7:29~33, 37.
11. 야곱서 5:41; 또한 47, 49절도 참조.
12. 로마서 1:1.
13. 히브리서 1:3, 또한 고린도후서 4:4 및 골로새서 1:15 참조
14. *신앙 강화*, 42쪽.
15. 요한복음 3:16~17.
16. 창세기 1:26~27; 모세서 2:26~27.
17.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57, 240~241쪽.
18. 요한1서 4:10~11.

날 말은 우리가 느낌, 지식 또는 정보를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기 위해 사용하는 어휘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낱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일의 원인 또는 이유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우리의 필멸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낱말이 사용되지 않거나 무시된다면, 생각하는 과정은 멈추고 무지가 확산됩니다. 그렇다면 이 필수적인 낱말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라는 낱말입니다.

왜는 어린이와 특별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손자 가운데 하나가 **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 제가 채소를 먹어야 하죠?” 그런 다음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왜**라는 말은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왜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그 후에는 지식이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왜 제가 교회에 다니며, 선교사로 봉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라는 명을 받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은 참으로 도전적입니다! 선교 사업은 또한 “이웃 각 사람에게 ... 온유하고 겸허[하게] 경고의 말”(교리와 성약 38:41 참조)을 전하라는 모든 회원의 책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구원의 의식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모로나이서 10:32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참된 교회가 한 예언자에 의해 현대에 회복된 이유를 알리는 이런 권유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권유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계시의 하나님임을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예언자들의 계시와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종교 역사의 연대는 성경과 함께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에게 주신, 인간에 관한 초기 계시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



의 열쇠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세상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속죄에 대해 가르치며 예언할 신성한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3:7 참조)

신약전서는 구약전서에 있는 예언자들의 가르침, 간증, 그리고 예언들을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성역, 그리고 그분의 속죄와 부활의 기사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설립, 신성한 권능, 복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답과 이브의 기사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창조, 타락과 그 결과, 즉 필멸,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필멸의 세계로의 첫 발걸음 등입니다. 아마도 그런 다음 그들의 첫 번째 질문 가운데 하나는 “왜 우리가 이 곳에 있을까?”였을 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한 그들의 첫 번째 방법은 참된 지식의 유일한 근원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26 참조)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인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자신들에게 명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4:4; 모세서 5:4~5 참조) 아담과 이브에게 온 추가적인 계시는 제물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의 모형이라는 점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신의 은사가 약속되었으며 그것에 의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서 5:6~7; 6:52 참조)

나중에 아담은 성신의 권세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 즉 세상의 구속주요 구세주라는 확실하고도 완전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신과의 관계

에 관한 지식을 받음으로써 타락한 그들이 처한 필멸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문자 그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지식은 속죄와 부활에 관한 지식이었으며 구원의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에 관한 추가 지식이었습니다.

아담은 그가 듣고 본 것으로 인해 지상에서 첫 번째 예언자, 즉 인간에게 주어진 계시에 대한 개인적인 증인으로 부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의 주요한 책임은 복음의 진리가 그에게 주어진 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반대 세력을 대표하는 사탄은 계시에 의해 받은 복음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기 위한 어떤 것이라도 행하고 가르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배도 상태, 즉 혼란, 분열, 신앙의 단념 또는 포기 상태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 후 구약전서의 나머지 이야기는 거듭되는 배도로 말미암아 잃어 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경륜의 시대로 불리는 여러 시기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계속적인 계시에 관한 종교 역사입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은 항상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습니 다. 그들은 신성한 권능을 받고, 신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는 그분의 계명에 관해 말해 줍니다.

신약전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녀요 ... 한 덩어리가”(니파이사서 1:17) 되기 위해서 한 우리, 한 신앙, 한 복음, 한 신권, 한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박해, 신성한 존재에 대한 부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권능을 받은 종들을 거부한 일 등이 부활 이후의 시대의 특징을 이루었으며 종교 역사는 신권 권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세상적인 권능에 의해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또한 신성한 교리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으며, 왜곡된 인간의 철학과 어떻게 자리를 바꾸었는지, 어떻게 구원의 의식이 변경되고 돈으로 매수되었는지, 그리고 계시가 어떻게 영적인 암흑 시대로 이끄는 어둠의 장막으로 대치되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하지만 전에 예언된 이 대배도의 기간 동안에 왜 그것이 그런지를 묻는 종교적 추구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나 그릇된 교리와 그릇된 영적 권능을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정



연차 대회 동안 노래를 부르고 있는 태버나클 합창단.

직하고 진지한 노력은 결국 자신의 이름과 주장을 내세우는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하고 더 큰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킬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개혁에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 즉 인류에게 신성한 진리를 전해 주는 주님의 유일한 방법인 계시와 권능이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 역사의 연대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한 날짜와 한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날짜는 1820년이며 이름은 요셉 스미스입니다. 당시의 전체적인 종교적 혼란과 교회 분열에 관해 깊이 생각하면서, 이 젊은이는 만약 그들 중에서 옳은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셉 스미스서 2:10 참조)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까? 예언에 따른 해결책은 하나님께 여쭙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역사는 인류가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반복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응답으로 시현이 주어졌으며 이번

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타나신 시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룩한 간증이 주어졌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7) “내가 어디에 가입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묻는 요셉 스미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한번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는 대답을 받았으며 ... 모든 교파가 다 그릇되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8~19) 다시 한번 배도가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이 뒤따라야 했으며 참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계시에 의해 요셉 스미스는 거룩한 교리적 지식과 권능, 그리고 신권의 열쇠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결국 183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원의 모든 교리 및 의식과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현대에 회복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고대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시의 증거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다른 성약인 물문경은 요셉 스미스가 고대의 예언자들처럼 계시와 권능을 받은 예언자였다는 현대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물문경의 진실성에 관한 간증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이 왜 예언자에 의해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살아 계신 예언자, 곧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계시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복음의 모든 의식들이 구원의 준비에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궁극적인 이유와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이생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성스럽기 때문에 참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누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열네 살 때 이 지구상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거룩한 숲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은 어린이들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초등학교와 신권 지도자들이 어린이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¹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은 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

여 내느니라”라고 증거합니다.²

주님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도 아시고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어머니들에게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낮에 직장에서 일하던 엄마가 평소에 하지 않던 전화를 했을 때 놀랍게도 평일에는 대개 집에 없던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야, 특별한 영감을 받으셨나 봐.” 사실 두 사람은 방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고 애써 울음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조음과 검사를 했는데 탯줄이 아기의 목을 이 중으로 감고 있대요. 의사는 빨리 제왕절개를 하는 수 밖에 없대요.” 걱정거리의 진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4주 동안 신생아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는 안 된대요!” 딸은 수술하기 전 주님께서 그녀의 필요 사항을 아시고 그녀를 사랑하시며 집에 남겨진 어린 세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들의 가족을 축복하고 강화시켜 줄 것을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분은 종종 길을 보여 주십니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의 일원인 게일 클레그 자매와 그녀의 남편은 함께 브라질에서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그 자매는 최근에 초등학교 관련 임무 지명을 받고 일본에 갔습니다. 일요일에 예배당에 갔을 때 그녀는 일본인 성도들 중 브라질인 가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브라질 사람들처럼 보이더군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시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엄마와 아이들은 열의가 있으나 아 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단으로 안내를 받으면서 그녀는 “모임이 끝나면 그들과 얘기를 해 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영어로 말씀을 하자 일본어로 통역이 되었습니다. 그 때 그녀는 포르투갈어로 간증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르투갈어 통역자가 없었으므로 사람들 중 98%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망설였으나, 그래도 그녀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브라질인 아빠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 곳 관습은 아주 다릅니다. 그 동안 외로웠지요. 교회에 나가도 뭐가 뭔지 알 수 없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집에서 경전을 읽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소” 라고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포르투갈어로 간증을 하자, 영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이 제가 있을 곳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하나님은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얘기를 마친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초등학교 회장단 중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포르투갈 대신에 일본으로 파견된 것은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누군가 그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했으며 그녀가 영의 권고를 따를 용기를 지녔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교회 부름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의 하나는 주님께서 영을 통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완전한 십일조를 낼 경우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축복을 받고 개인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

다. 주님은 우리가 십일조를 낼 때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³

오래 전에 존 오스는 호주의 주물 공장에서 일하다가 녹아 있는 납물이 얼굴과 몸에 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병자 축복을 받고 오른쪽 시력의 일부를 되찾았으나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하였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후 처가 쪽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그들의 사업도 실패한 처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집 저 집에서 막일을 해 주고 받은 푼돈으로 식비와 집세를 충당했습니다. 어느 해엔가 십일조를 한 푼도 내지 못해 지부장을 찾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부장은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십일조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기도와 금식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존과 아내 앨리스는 금식과 기도를 한 끝에 그들에게는 귀중품이 약혼 반지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반지는 행복했던 시절에 산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한참 고심한 끝에 그 반지를 전당포에 잡히기로 했으나, 빌린 돈은 겨우 십일조와 밀린 청구서를 지불할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지부장을 찾아가서 십일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부장실을 나오면서 우연히 선교부장과 마주쳤는데 선교부장은 존의 눈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에들레이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는 오스 형제의 아들은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교부장이 안과 의사였던 탓에 그는 보통 의사 리즈 부장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 분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여 눈을 검사한 후 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권고를 따랐으며 ... 때가 되어 왼쪽 눈은 15% 오른쪽 눈은 95%의 시력을 되찾았고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⁴ 시력이 회복되자, 존은 다시는 실직되는 일이 없었고, 되찾은 반지는 이제 가보가 되었으며, 그 후로 그는 계속 완전한 십일조를 냈습니다. 주님은 존 오스를 아셨으며 누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의사 리즈 부장”은 저의 외할아버지였는



데, 어쩌면 그 날 일어난 기적을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려웠지만 한 가족이 십일조를 내기로 한 후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안과 의사였으며, 그가 그들의 삶에 일으킨 변화로 인해 여러 세대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이 일을 우연한 일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는⁵ 그분께서 이 일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가족은 2년 전이야 비로소 이 이야기를 알았지만, 할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했고 평생 그분을 위해 봉사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교회 회원들이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한 청년에게 “하나님

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성공을 바라시며 그분의 최대 소망은 당신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친구에게 “이생 다음에 내세가 있고, 당신의 아이는 살아있으며 그 아이를 다시 만나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의에 잠긴 젊은 어머니에게 “제가 도와 드리지요, 자매님이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이 여러분이 말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분의 사랑과 권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환난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기타 어떤 상황이나 권세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바울의 말씀에 공감합니다.⁶

구세주는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알고 계시며, 저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침례식에서 그분과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구원을 전할 이름이나 길이나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⁷ 그분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에게 나아오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0:14.
2. 요한복음 10:3.
3. 말라기 3:10 참조.
4. 2001년 12월 13일자 제이 오스의 편지.
5. 마태복음 10:29 참조.
6. 로마서 8:35~39 참조.
7. 모사이야서 3:17.

세 가지 선택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저의 개발 프로그램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세 단계로 되어 있으며, 제게 아주 유용했습니다.



최 근에 저는 수많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대중 감량에서부터 머리 술을 많게 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약속하는 제품들의 광고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이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것이 확실합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개발 프로그램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세 단계로 되어 있으며, 제게 아주 유용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게다가 이 자기 개발 프로그램은 공짜입니다. 신용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절호의 제품 구입 기회가 5분 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텔레비전 화면에 번쩍거리는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원리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일 겁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었고, 집도 없이 술과 다른 악물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 후 그는 심한 병에 걸렸고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병과 절망이 깊어질수록 존은 자신의 생활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도 신속히 바꾸지 못한다면, 비참하고 쓸모 없이 쓸쓸히 죽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은 소년 시절 초등학교에 얼마 동안 참석했었기 때문에 결국 근처 집회소에 가서 감독을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존은 상처 받은 저 깊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괴로움과 비통함으로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존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자신을 짓밟은 자기 파멸과 불행의 행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감독은 존의 슬픈 얘기를 경청하면서 그가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감독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제 인생에서 제게 도움이 되었던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것들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발 얘기해 주십시오.” 존은 간청했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새로



시작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감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옛날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형제님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개를 시작하겠다는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들 모두는 어느 정도 존과 같이 실수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때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고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물몬경에서 우리는 엘마 2세에 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는 위대한 예언자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로 악행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력하게 하고 말도 할 수 없게 만든 천사의 방문을 받은 후에 회개하여 이전에 그가 입혔던 손해를 보상하는 데 남은 여생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엘마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저주 받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이 회개하여 그가 있는 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

다.

어떻게 회개를 시작합니까?

첫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오늘, 바로 오늘, 더 좋은 일을 행하겠다고, 더 고귀하고 더 자비로운 생활을 하겠다고, 매일 매일을 더욱 구세주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과 운명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전서의 위대한 예언자 여호수아는 이 점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¹

여호수아는 더욱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후회와 절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하고 우리의 나날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하시겠습니까?

내일의 기쁨이나 절망은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도 될 거야.”라고 혼자 생각

하기도 합니다.

변화를 위한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면서 항상 인생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도록 강도에 서서 물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이 바로 결심할 때입니다.

존은 감독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존은 약물과 술에 중독되어 있었기에, 회개를 하고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시설에 들어가 검사를 받고 그 곳에서 장기간의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걷기와 그 외 다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존은 술과 약물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건강이 향상되고 있고 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인생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는 힘에 부쳐 용기를 잃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감독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때 존은 감독으로부터 두 번째 선택을 배웠습니다. 감독이 말했습니다. “존, 한꺼번에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형제님이 알아야 할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발전은 느리게, 한 번에 한 단계씩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한다거나 숙달된 운동 선수가 되거나 제트기를 조종하는 기술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인생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가 기대하는 발전을 이루지 못할 때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위대한 조각가나 미술가들은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바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완벽을 기대하면서 조각칼이나 붓 또는 팔레트를 집어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울 때마다 많은 실수를 할 것을 이해하지만, 먼저 기본 사항들, 즉 기초적인 핵심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즉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 즉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더 큰 행복과 화평을 가져다줄 결정에 대한 한 가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곳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그 곳이 우리의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곳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카드를 한 장 꺼내어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우선 순위대로 적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면 이 카드를 확인한 후, 목록에 적힌 맨 첫 번째 항목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 항목을 완수한 다음에는 두 번째 항목으로 옮겨 가고 계속 이렇게 옮겨갑니다. 어떤 날은 목록 전체를 끝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몇 가지 일을 끝내지 못하는 날도 있는데,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들에 저의 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은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즉시 바꿀 수는 없지만 우선 순위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고 차차



그의 삶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의 도움으로 존은 적당한 집도 구했습니다. 존은 생계를 꾸려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건강과 태도가 향상되어 감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매일 밤 존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날 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존은 고정된 수입을 갖게 되었고, 좀더 안락한 집으로 이사했으며, 차도 샀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해 훨씬 좋은 느낌이 있었지만 여전히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은 감독과의 세 번째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이 아직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세 번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감독이 말했습니다.

존은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과 결심을 하고 매일 실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에 인생을 사용하고 많은 것을 이루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들은 자신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존이 느껴왔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감독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을 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존이 물었습니다.

감독은 미소를 지으며 서랍에서 경전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닳아 주름이 가 있었으며, 금박이 입혀진 종이 모서리는 거의 다 해진 상태였습니다.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경전과 말일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바른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들이 우리를 제약하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로 경전은 행복에 관한 지침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면, 즉 원리, 교리, 그리고 계명들은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얻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감독은 물문경을 펼쳐 베냐민 왕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보라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범사에 축복을 받으며, 이들이 끝까지 충실할진대 하늘에 영접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리로다.”²

감독이 얘기할 때, 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일들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감독의 말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 때 오는 것 같았습니다.

“구세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감독은 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³

바로 그 날 밤, 존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과 교리를 스스로 알아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의 공허함을 줄여주기 시작했고 그 대신에 그는 점차 그의 지각을 능가하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감독이 존에게 말했던 것들은 실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 타락과 비탄 가운데서, 죽음에까지 다가가 있던 곳에서 그는 이제 생존감과 활력과 가득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경전을 주셔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뻐해야 할 큰 이유는 그분의 아들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천국에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벽 뒤에 조용히 꼼짝 않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 아래 주님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 지상에서의 거룩한 주님의 사업을 지시 받고 계십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진리로 인도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⁴ 하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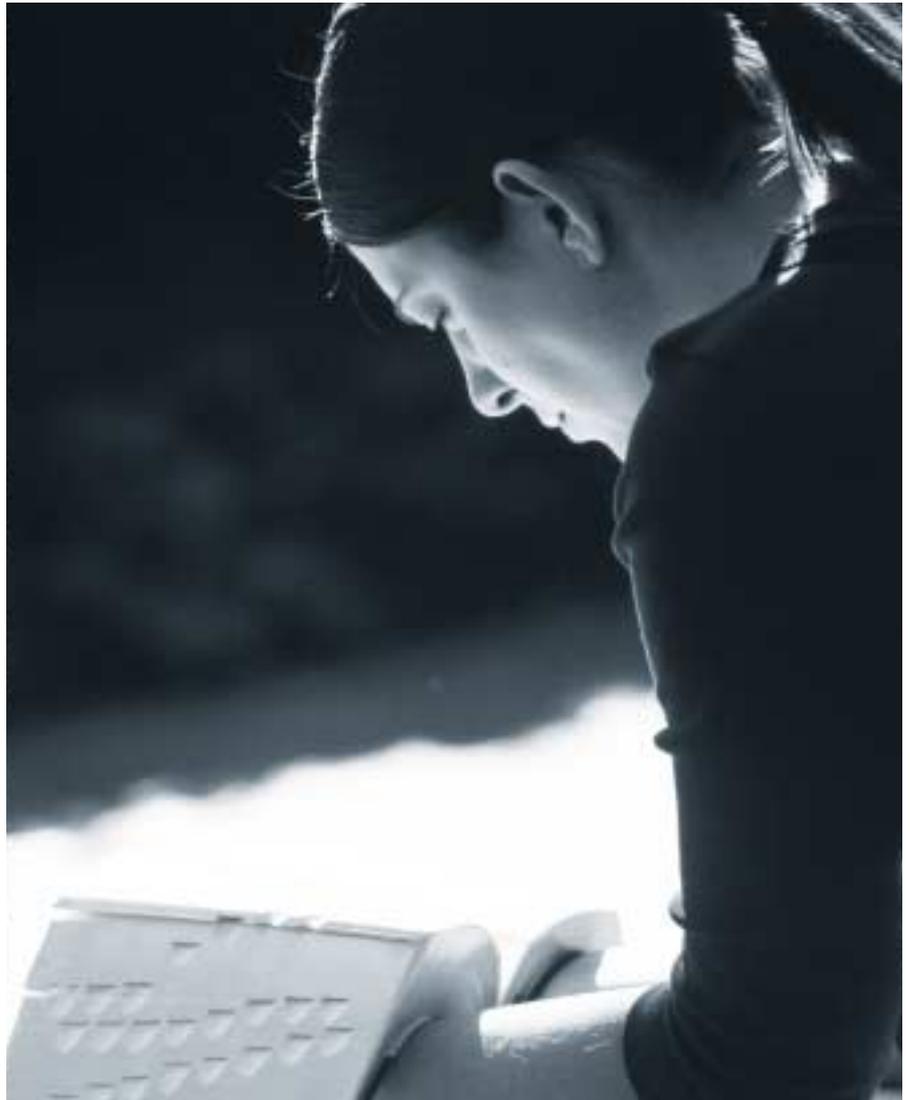
우리에게는 주님의 길을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룩한 부나 우리가 받은 칭찬에 대해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와 그분에게서 배우며,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받아들이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없애 주고, 우리 영혼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이 세 가지 선택들을 제가 대신 다시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사는 동안 성공적으로 따를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지금 회개의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선택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모임에 참석하고 기쁘게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복음 원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성전에 갈 준비를 지금 시작하십시오.

둘째, 우선 순위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맨 먼저 오게 하십시오. 훌륭한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일치시키십시오.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바쁜 일정과 좌절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매일 매일 주님의 계명에 좀더 순종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셋째, 올바른 일을 선택하십시오. 경전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을 포함한 오늘날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거룩한 가르침들을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비탄에 잠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으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요셉 스미스가 세워졌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서 저는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 온 인류는 회개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구세주의 무한한 희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여호수아 24:15.
2. 모사이야서 2:41.
3. 마가복음 8:36.
4. 모로나이서 7:16.

원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가 이 교회를 원방에 세우는 기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 더 많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특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주가 되는 신앙과 기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지도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맡기셨으며, 여러분은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충실한 말일성도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무슨 도움이 필요하든 그분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하루도 간구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총관리 역원과 회원이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업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제가 제 책임 범위 내에서 중대한 의무를 지닌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책임 영역 안에서 중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의의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말씀드리건대, 저는 우리가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이외에 어떤 이기적인 욕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관장단은 끊임없이 매우 다양한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하루를 마치던 날에 저는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브리감 영 형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분이 약간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내 문제만으로도 충분했었소. 내게 어찌 해야 할 바를 묻지 마시오. 이젠 당신이 나서야 하오. 주님의 사업이니 그분께 여쭙시오.” 이것이 바

로 우리가 하는 일이며 쉽 없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힘겨웠던 어느 날 이러한 문제들을 돌이켜 보면서, 저는 성경을 펴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다음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여호수아 1:9)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낙담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될 것이다.”

다시 구약의 이사야 2장을 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이사야 2:2~3)

솔트레이크 성전이 헌납된 이래로, 우리는 미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주님의 성스러운 집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 성전이 헌납된 날로부터 전세계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증가되는 이 장소에 대해 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라”(미가 4:1~2)

저는 이 교회의 사명이 원방에 세우는 기가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증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피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위대하고도 포괄적인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을 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단념케 하려는



세력이 도처에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우리의 결심을 약하게 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압력을 느낍니다. 우리는 결코 목적의 중요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께서 세워 주신 목표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에베소서 6:10~12)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보호자, 우리의 안내자와 계시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우리를 존경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를 성원하며, 우리의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독선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그분의 지시를 받는 수혜자로서 우리가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과 뜻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우호적이며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대회 동안 이미 다루었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강조드립니다.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실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위해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은 엄청난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기 있는 여흥의 장소에서, 인터

넷에서, 영화에서, 텔레비전에서, 저속한 문학에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간교하게, 감흥을 일으키며 물리치기가 힘들게 다가옵니다. 친구들의 압력은 어찌면 감당키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매혹적인 유혹에 굴복하기보다는 장래의 소중한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단정치 못해 보이는 연예인들이 많은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싼 입장료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많은 노래들은 본질적으로 선정적입니다.

도처에 널려 있는 외설물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의 실체를 깨달으십시오.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것들을 만들어 유포시키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돈으로 부를 쌓고 있습니다.

성의 신성함은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불결함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인기를 끄는 표현으



로 인해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 곳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교회 소유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외설스러운 내용의 프로그램 방영을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을 취소한 유일한 다른 방송사가 노트르담 대학교가 있는 인디애나 주 사우스벤드에 있는 방송사였다는 것도 흥미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꺼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은 위안이 됩니다.

인생은 흔히 묘사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여흥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왜곡시키는 유일한 악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은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큰 문제 중 하나가 과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을 저하시키고 삶을 파괴합니다. 돈과 시간과 건설적인 노력을 낭비합니다. 과음으로 자신을 해치고 기회를 그르치는 똑똑한 젊은이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학생들이 미국에서 “가장 술을 안 마시는” 학생들이라고 프린스턴 리뷰의 조사가 내린 결론은 참으로 훌륭한 찬사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부분이 다 브리감 영 대학교를 다닐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표준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뉴 이라(New Era) 지에서 테네시 주 멤피스에 있는 젊은 말일성도들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때로, 그들은 캠퍼스에서 유일한 말일성도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유일한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체적으로 혼자라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혼자 아닙니다.”(Arianne B. Cope, “Smiling in Memphis”, *New Era*, 2003년 10월호, 23~24쪽)

다른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십대들이 자신들이 정말로 복음이 참됨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 사람들이 매일 그것에 대해 묻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여러분은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New Era*, 2003년 10월호, 25쪽)

대도시에 흩어져 있는 이 젊은이들은 함께 단합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있었던 세대들 중 가장 훌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의무에 더욱 충실합니다. 유혹에 더욱 강력하게 맞섭니다.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지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감미롭고 아름다운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

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경우처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원방에 세우는 기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특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옳은 일을 수호하는 데 결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디모테후서 1:7~8)

이 교회는 그저 함께 모여 서로 즐기는 사교 조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주일학교와 상호부조회와 신권회의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성찬식이나 하고, 성전 봉사나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에게 이 왕국에서 회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청남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선정적인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서 자신을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악도 피하고 선함과 고상함의 본질을 취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빛, 즉 신성한 빛이 비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심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정에 거할 경우 그 곳은 피난처와 평화의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얻는 힘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보다 환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며,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놀라운 일은, 그들이 선택한 직업에서도 훌륭

하게 성공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화
롭게 되고 존경 받고 존중 받습니다.

여성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주
일 전 상호부조회 여성들에게 긴 시간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 대
한 제 진심 어린 견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스도의 특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강하고
고무적이며, 아름답고,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말일성도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
지와 성스럽고 구속력 있는 성약을 맺었습니
다. 그 성약을 지킬 경우 우리는 더 훌륭한 아
버지와 어머니, 더 훌륭한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우리
를 지지하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선을 수호할 수 있으며, 결코 외로이
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힘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다시 구약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
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
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열왕
기하 6:15~17)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어린 양떼들아, 선
을 행하라. 세상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
적케 하라. 너희가 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
면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
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교리와 성약 6:34,
36)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겸손하
게 간구합니다. 아멘. ■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은 지상에 위임받은 종들을 두셨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인류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습니다.¹

우리는 하늘의 문이 닫혀있지 않음을 세상
에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위임받은 종
들을 두셨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인류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
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은 의당

히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는 경전이 이
에 관해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을 계시
라고 정의합니다. 때로는 영감이라고도 합니
다. 그러나 계시의 의미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영감은 계시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계시는 시현,
꿈, 말씀, 또는 기타 영적인 나타내심을 포함합
니다.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시란 하늘로부터의 교통을 통하여 하늘
의 성스러운 진리를 드러내 알게 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

“영감이란 단어는 계시라는 단어와 거의 같
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의 어원과 초기에 사용되던 용법을 조사해
보면 두 단어가 서로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지
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감을 주다’라는 말
은 문자 그대로 영으로 생기를 주는 것을 말합
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힘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영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
다. 영감은 계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
향력보다는 약하거나 낮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감과 계시의 차이는 종
류에 있다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²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인류에게 계시하는 방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간구하여 우리의 청지기 직분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 영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감독은 지명받은 회중을 위해, 대관장단은 교회 전체를 위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청지기 직분에 필요한 계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어떤 회원이든 자기보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됩니다.”³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는 대관장단을 통하여 옵니다. 이것이 하늘의 질서이며, 신권의 권능과 특권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모든 역원은 자기 직분에 대한 계시와, 교회에서의 임무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⁴

주님께서 우리 생활을 인도하기 위해 주신 지시에 맞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인도를 간구하는 사람은 인도를 받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정하신 표준에 맞아야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보기에 의로워야 합니다. 그 삶은 경전 및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교회의 질서에 일치해야 합니다.

혹자는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직해도 좋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예언자가 인도하는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시 그런 주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세계의 수백만 회원들이 하나님과 구세주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부름에 대해 모두 똑같은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강점이자

큰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순종을 하라고 권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 회원들의 특징은 이성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리감 영의 가장 큰 걱정은 교회 회원들이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를 통해 그 말씀에 대해 증거도 얻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⁵

주님은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울 때 지상의 자녀들을 통치할 기본 원리와 율법을 설명 하셨습니다. 그 율법과 원칙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분의 심판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슬픔과 파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진로는 주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지시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시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데 중심이 되는 장소를 갖기 위해,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성막은 성전의 전신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쉽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⁶

이렇게 해서 성막은 그들이 약속받은 땅으로 여행할 때 진영의 중심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그들은 성스런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날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할 때에는 구름이 걷혔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을 때, 그들은 여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시내 산 기슭으로 진영을 옮기는 그들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 주님과 교통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또한 “증거판 돌을 받았으며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입니다.⁷

모세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백성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담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



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⁸

아론이 백성의 뜻에 못 이겨 금과 은과 귀금속을 모아 녹여서 금송아지, 즉 그들이 경배하고 여행 시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전하는 계명이 담긴 증거판 돌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⁹

이스라엘 자녀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세는 장막을 취하여 [그들 중에서 나와] 진 밖에 쳤”¹⁰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되는 장소인 성막은 그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의한 인도와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충실한 자만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한 가지 일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오랜 세월 애굽에서 속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한동안 여호와께 용서를 간구한 끝에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 다듬고”¹¹ 산으로 오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40일 주야를 떠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시내 산에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¹²

이렇게 해서 인류가 순종하며 평생 동안 사 용해야 할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순종은 이스라엘 자녀에게 율법을 가져왔습니다.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일만 지연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에 합당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예언자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그분은 예언자들을 통해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 주십니다. 이 율법에 순종할 경우,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율법의 내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모세의 율법을 이루시고¹³ 교리와 성약 59편에 있는 바와 같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 시대에 그와 유사한 신성한 지시를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에게 계명을 주며 이같이 이르노니, 곧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 네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바치라.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 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서약을 의롭게 지켜야 하느니라.



컨퍼런스 센터 내부의 플라자 층에 위치한 연못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대회 방문자들.

“그러나 이 날 곧 주의 날에는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또 이 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뀌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이다.”¹⁴

교통의 경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역사를 보면 우리는 수도 없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행해지는 교통의 경로를 변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불순종과 파멸로 인해 거룩한 일관성과 질서는 방해 받습니다.

주님의 체계만이 효율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할 때 언제나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니파이는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지니고 다닐 놋쇠 판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레이벤은 놋쇠판을 얻으려는 그들의 온갖 노력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레이벤을 니파이의 손에 붙였습니다. 니파이는 레이벤을 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를 쳐없애면 나라가 뒤흔들리고, 불신앙에 빠져 멸망되는 일보다 나으리라.”¹⁵

이 계시로 말미암아 니파이는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너의 후손이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저들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리라.”¹⁶

이에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저들이 율법을 갖지 않고서는 모세의 율법을 좇아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였으며, 그 율법이 놋쇠판 위에 새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¹⁷

반복해서 경전은 주님께서 살아있는 예언자들을 통해 인간의 자녀에게 그분의 계명을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원회, 국회, 또는 기타 어떤 당국도 그분의 율법에 어긋나는 교리를 그분에게 지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은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를 통해 계시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그분과 그분이 택하신 아들이며 우리의 주님인 구세주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

게 하시어 우리가 지상과 다가올 영원한 세계에서 그분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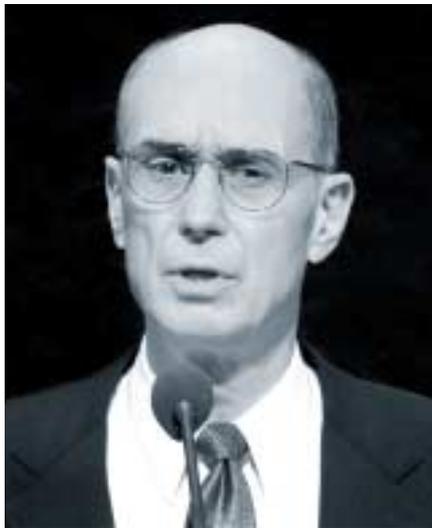
주

1. 신앙개조 9조.
2. 신앙개조(1924) 제12판, 267쪽.
3.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1976), 20쪽.
4.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04쪽.
5. Deseret News, 1857년 12월 9일, 317쪽, 1862년 2월 12일, 257쪽 참조.
6. 민수기 1:48, 50~53.
7. 출애굽기 31:18.
8. 출애굽기 32:1.
9. 출애굽기 32:19.
10. 출애굽기 33:7.
11. 출애굽기 34:1.
12. 출애굽기 34:27~28.
13. 니파이삼서 15:5 참조.
14. 교리와 성약 59:5~13.
15. 니파이일서 4:13.
16. 니파이일서 4:14.
17. 니파이일서 4:15~16.

예언자 요셉의 사명에 대한 지속적인 간증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언자 요셉은 신앙으로 잘 견뎌 낸 모범이요 교사입니다. 저는 그를 경배하지 않지만 주님의 회복의 예언자인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 당하기 전날 저녁, 간수들에게 물문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인간에게 나타나 성역을 베푸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다시 세워졌음을 간증했습니다.

그 날 밤 간수 중에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신은 간수들에게 이 굉장한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의 간증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침례를 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중한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더라면 그들은 온갖 진리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날 밤 간수 중에서 자신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에 들어서고,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내게로 오라 복된 자여, 내 아버지의 전당에 너를 위해 마련된 처소가 있노라.”는 말씀을 들을 뻔한 참나에 있었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찌면 우리의 자녀이거나 손자일 수 있습니다. 어찌면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장차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예언자가 카테지 감옥에서 한

간증처럼 인생의 온갖 시험 속에서도 마음에 불타는 산 간증을 지녀야 합니다.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목격자의 간증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셉의 증인이 되어 그분께서 해 오신 일을 증언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 목격자들은 예언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가 조직된 후 첫 번째 일요일에 최초의 선교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선교 임지로 가서 그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알고 있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는 두 명의 다른 사람과 함께 증언에 서명했으며 그들은 결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언은 물론경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 물문경을 맞이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노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하여 니파이 백성들과 이들의 형제인 레이맨 백성들,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저 바벨탑으로부터 온 야벳 백성들의 기사가 기록된 금판을 보았노라. 또한 우리가 금판의 기록이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번역되었음을 아는 것은 이를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때문이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 책이 진실한 것임을 아노라. 우리가 이제 증언하거니와 우리는 금판 위에 새겨진 기록을 보았으니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 금판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금판을 갖고 하강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로 우리가 금판과 아울러 그 위에 새겨진 기사를 보게 되었음을 엄숙히 공포하노라. 또한 우리가 이를 보고 참된 것임을 앎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의한 것이요 진실로 우리의 눈은 황홀하였도다. 더욱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명하시 이를 증거하여 증언하라 하신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여 이를 증언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면 우리가 입은 성의가 만민의 피로부터 구제되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흠 없는 자라 인정을 받을 것이요 주와 더불어 영원히 하늘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노라. 오직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²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 목격자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물증보다 더 강한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목격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신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영은 그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며 천사의 음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은 그들과 그 자리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경우, 영의 증거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 목격자는 몰몬경에 대한 증언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희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죽으면서도 몰몬경의 신성한 유래에 대해 변함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련의 시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구세주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라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와 요셉에게서 떠나 있던 시기에도, 그들이 보고 들은 기이한 경험에 대해 계속 확언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간증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말해 줍니다.

주님은 반대와 환란으로 혹독하게 시험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물증을 주시지 않고 영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히버 시 킴볼과 그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간증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신앙으로 견뎌던 것은 성신을 동반하고 성신만이 전해 줄 수 있는 불타는 간증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영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요셉이 그분들의

예언자였음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속삭여준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받은 후에 느낀 평안과 기쁨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나는 당시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느꼈으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간증에 생동감을 주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가르칩니다. 충실히 행한다면, 그들은 성신을 변치 않는 동반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그 축복을 간구하면, 영이 진리를 확인해 줄 때 그들이 기쁨과 화평을 느낄 수 있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례와 간증을 가지고 영에 대한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 부모가 성신에 대해 말씀한 것은 대부분 생각나지 않지만, 성신이 가정에서 행하도록 시킨 일들을 부모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진리를 확인해 주기 위해 영을 보내신다는 확신과 더불어, 여러분의 모범과 간증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가르칩시오. 온 나이에 이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그의 구원에 참여하며 그의 구속의 능력을 얻기 바라노라. 참으로 너희는 주께로 나아와 너희 영육을 주 앞에 드리며 쉬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라. 주가 살아 계시니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니라.”³

어린 요셉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에서 읽은 약속을 믿었습니다.⁴ 기도가 응답되리라 믿음으로 숲으로 갔습니다. 그는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어떤 말이든 들은 대로 행할 만큼 순종적이었습

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이미 순종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행하도록 주신 말씀은 그의 온 영혼을 요구했으며 결국 생명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겸손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24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겠다는 의도로 기도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신의 동반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된 경전을 읽을 때마다 영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를 증거할 것입니다. 또한 영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거듭 확인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일 경전을 상고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지금 요셉 스미스가 번역한 경전에 기록된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행해야 할 일을 배운다는 기대를 하십시오. 그러면 경전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겠느니라.”⁵

예언자 요셉은 경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몰몬경은 “어떠한 책보다도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할 것이라”⁶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며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서 3장 2절에 그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오 너희 마음이 순결한 자는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너희의 마음이 굳건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⁷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받게 되며, 말



씀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신의 은사가 주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행로를 승낙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경에 기록된 맛있는 열매를 취하여 얻는 기쁨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희생할 것을 가르칩시오. 그 희생은 영의 간증을 가져옵니다. 예언자 요셉은 고대의 한 예언자가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한 훌륭한 약속을 번역했습니다.

“그 날에 시온을 세우려 힘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들이 성신의 능력과 은사를 얻을 것이라. 저들이 끝까지 참을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받아들여질 것이요, 어린양의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받으리라. 평화를 전할 자 곧 심히 기쁜 소식을 전할 자의 모습이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⁸

누구나 이 약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와 연륜에 관계없이 회원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시온은 개인과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커지면 왕국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매일 그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은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신의 은사와 권세를 받을 자격을 줍니다. 성신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요셉은 그분들의 예언자였다는 믿음은 커집니다. 여러분은 가정 복음 교사, 방문 교사, 또는 친구로서 가정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갈 때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 축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전할 자 곧 심히 기쁜 소식을 전할 자”의 영광스런 임무보다 자신의 일에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봉사의 참 뜻을 이해하면,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워질 뿐만 아니라 내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은 이것이 말일에 주님께서 회복하신 왕국이라고 증언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칩시오. 그러면 영이 찾아옵니다. 예언자 요셉은 그것을 가르쳤고 실천했습니다. 그의 사랑스런 성품에 대해 기록된 수많은 예들 중 저를 가장 감동시킨 한 가지 예는 그가 죽기 전날 밤에 카테지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함께 간 일행 중 한 사람은 댄 존스였습니다. 예언자는 폭도들의 위험을 감지하고 자기에게 닥친 위험과 자신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들었을 때, 요셉은 댄 존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댄은 대답했습니다. “때가 됐나요? 위대한 대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요셉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기 전에 웨일즈로 가서 지명 받은 선교 사업을 수행하



게 될 것입니다.”⁹

댄 존스는 살아 남아 웨일즈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수천의 웨일즈 개종자들이 시온으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 있는 가수였습니다. 그들은 태버나클 합창단의 최초의 단원이 되었습니다. 합창단의 노래를 들을 때, 예언자 요셉의 충실한 친구 댄 존스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위로가 필요했을 때 그가 받은 위로를 기억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앙으

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 그분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 주십니다. 보혜사인 성신은 요셉에게 예언적이고 사랑어린 격려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사랑이 담긴 친절 한 행동을 통해 물몬경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좇으라. 모든 것이 실족하되,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

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다.”¹⁰

예언자 요셉은 저에게 신앙으로 잘 견뎌 낸 모범이요 교사입니다. 저는 그를 경배하지 않지만 주님의 회복의 예언자인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제가 순종하겠다는 의도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쁘게 취하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의 왕국에서 어떤 사람의 신앙을 키우려고 할 때마다 더 자주 성신을 느낍니다. 예언자 요셉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그를 통하여 계시된 경전으로 말미암아 제가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 그분의 자녀들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주 느낍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과 그분의 왕국을 믿는 신앙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성찬을 들며 항상 그분을 생각하여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킬 것을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의 밤과 선교사 토론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언행과 품성으로 성령을 초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요, 요셉은 그분의 예언자였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오늘날 그분의 예언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게 이것이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영을 통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노스서 1:27.
2. “세 목격자의 증언”, 물몬경.
3. 움나이서 1:26.
4. 야고보서 1:5 참조.
5. 니파이이서 31:20.
6. 교회 정사, 4:461; 니파이삼서 5:18; 교리와 성약 17:6; 교리와 성약 20:6~10 참조.
7. 니파이일서 11:21~23, 15:36 참조.
8. 니파이일서 13:37.
9. *History of the Church*, 6권, 600~601 참조.
10. 모로나이서 7:46~47.

“와서 나를 따르라”

윌리엄 더블류 팜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훈계와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은 삶을 위한 강력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니파이이서 25:24, 26) 어디서나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 날말로 된 그분의 가장 강력한 말씀은 “와서 나를 따르라”(누가복음 18:22; 또한 마태복음 16:24, 마가복음 1:17, 누가복음 9:23 참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는 서기관의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

라”(마가복음 12:30~31) 이 두 가지 계명을 표준으로 사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지 얘기해 봅시다.

구세주께서 아버지와의 사이에 서로 갖고 있던 사랑의 모범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구세주께서 자주 드린 길고도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강력한 모범이 됩니다.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늘 극진했으며, 특히 요한이 침례를 줄 당시에 더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태복음 3:17)

두 분 사이의 하나됨은 구세주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한복음 10:30 참조)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셋째마네에서 일시적으로 달랐을 수도 있다는 점(마태복음 26:39 참조)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늘 바라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강력한 행동의 원리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신앙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태복음 21:21~22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다음에는 두 번째 큰 계명, 즉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 또는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한복음 13:34)는 보다 높은 수준의 비슷한 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물론 바로 옆집 이웃과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구세주께서는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누가복음 10:29)라고 물었을 때 훨씬 더 어려운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질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 빼앗기고 매맞아 거의 죽어 길가에 버려진 한 사람에게 관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보고서 다른 편으로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서 경멸 받던 사마리아인은 동정심을 느끼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보이기 전에 민족에 관해 묻지 않았습다. 예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37)라는 훈계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이야기를 끝맺으셨습니다.

모든 대도시에는 억압 받고 길가에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데, 집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다만 그들이 지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습관을 버리지 못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그들이 택한 삶의 방식을 계속하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옴의 친구들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인생에서 저지른 모든 실수가 결국 그런 커다란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추측하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입니다.(욥기 22장, 모사이사서 4:17 참조)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와서 나를 따르라”는 구세주의 훈계를 생각해 봅시다. 구세주께서는 집도 없고, 오직 몸에 걸친 옷만 갖고 계셨으며, 종종 배도 고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어떤 일을 하려 하셨을까요? 그분이 하시려 했던 일은 분명합니다. 자비를 보이고 돕고 싶어하셨습니다.

자선 단체, 무료 급식소, 또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단체에 시간, 물품 및 돈을 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집 없는 사람을 돕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진 복지 원리들은 적절한 지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마가복음 14:7 참조)

구세주께서는 심판의 날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이 원리를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37~40)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베드로전서 4:8 참조)라고 말하면서 이런 종류의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은 다음과 같은 훈계로써 비슷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

희에게 사랑이 없을진대 너희는 헛된 것이라. 사랑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좇으라. 모든 것이 실족하되,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니라.”(모로나아서 7:46~47)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 노력할 때 고려해야 하는 많은 개인적 성품들을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품에는 사랑, 온유함, 겸손, 동정심, 의에 목마름, 기도하는 마음과 자비롭고 순수한 마음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이웃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의 외적인 행동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제를 행하고 금식하고 은밀히 기도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왼쪽 뺨을 돌려 대고 십리를 동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고 각별한 주의를 주셨습니다.(마태복음 5~7장 참조)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명령에 충분히 따르기 전에 배워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보낸 처음 30년 동안 죄없는 삶을 사시기도 했지만,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마태복음 13:54~56; 마가복음 6:2~3 참조) 이런 점은 우리가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조용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보다 잘 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훈계와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은 삶을 위한 강력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과 행동에서 보다 그분과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구세주에 대해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당신은 성도입니까?

퀸틴 엘 쿡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한다면, 자신을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악한 행위와 파괴적인 활동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저는 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어떤 사람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었습니다. 여러 날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최종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날 밤 매도인 중 한 사람이 “협상 성사”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제게 알코올 음료를 권했는데 저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은 성도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자 그가 다시 “당신은 말일성도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는 협상 기간 동안 제 개인적인 습관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말일성도가 아니면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데이비드 비 헤이트라는 한 교회 회원을 알고 지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큰 점포망을 갖고 있던 시카고 소재의 한 기업의 경영진이었습니다. 그는 헤이트 장로가 그의 삶에 미친 지대한 영향에 대해 말했으며, 또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의 느낌에 저 스스로 놀랐다는 것과 한 뛰어난 모범(헤이트 장로)이 그 훌륭한 사람에게 남긴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제가 감명 받았다는 점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회원들은 말일성도이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의 왕국에서 살기 위해 구세주를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며 구원의 의식을 받으려 노력합니다.¹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는 복음이요,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 ...”²

말일성도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되도록 계획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사는 궁극적 목표는 거의 이해를 뛰어넘는 특권입니다.

교회가 이제까지 직면했던 가장 큰 시련들 가운데 하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순교였으며, 그 뒤에 결국은 성도들이 나무에서 추방당한 일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평원을 횡단하고 있을 때, 윌리엄 클레이튼은 펜을 들어 훌륭한 찬송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작사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북돋고 성스러운 사명을 기억하도록 도움을 준 찬송가였습니다. 우리가 “... 행복한 날 여행이 끝나는 그 날이 오리니 ... 모든 것 잘되리”라고 노래할 때 그들의 희생과 용기와 각오를 느끼면서 감동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³

이 찬송가는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과 더불어 크게 어려웠던 시기에 그들에게 위로와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찬송가는 그들의 기운을 북돋고 이 필멸의 생이 전세와 앞으로 올 영생 사이의 한 여행, 즉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클레이튼 형제의 영감에 찬 찬송가는 희생과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척자 조상들은 성도가 되기 위해 그들 시대의 도전을 이겨 내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성도”라는 낱말은 “따로 떼어 놓아, 분리되고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⁴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한다면, 자신을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악한 행위와 파괴적인 활동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과 부도덕한 영상의 홍수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부적절한 음악과 외설물은 점점 더 용인되고 있습니다. 약물과 알코올의 사용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직과 인격은 별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와 책임과 책무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거칠어지고 천박하고 상스러운 것들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악마는 행복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자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행위에서 자신을 분리시킨다면, 생활 속에서 영을 지니고 또 합당한 말일성도가 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또한 세상적인 신들을 경



배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것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말씀하셨고 “채물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파멸과 해독을 맛보게 됩니다.”⁵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1630년에 존 윈스럽은 범선 *아벨라호*를 타고 항해하면서 동료 승객들을 위해 새로운 땅(미대륙)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언덕 위의 도시”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윈스럽은 신명기 30장을 언급하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즐거움과 이익”⁶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몇 해 전에 김볼 대관장님은 가정, 보트, 학위나 자격증, 직위 및 우리가 추구하는 이와 비슷한 것들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봉사에서 멀어지게 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셨습니다.⁷

예언자 모로나이는 우리 시대에 관해 이야기하며 돈과 물질에 대한 사랑에 관해 경고했으며 우리가 “... 가난하여 궁핍하며 병들고 고난 받는 자들을 사랑”⁸하기 보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세

주의 훈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에서 분리되는 일에는 거룩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구세주를 사랑하고 또 거룩함과 헌신 속에서 그분을 따릅니다.⁹ 이런 종류의 거룩함과 헌신에 대한 증거는 헌납과 희생에 의해 잘 나타납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¹⁰ 희생은 복음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시간, 재능, 정력, 그리고 세상적인 재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와 성약 97편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희생 곧 나 주가 명한 모든 희생을 바쳐 이로써 언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는 모두 내게 용납된 자니라.”

구세주의 메시지를 따르는 성도는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활동에 의해 빛나가지 않도록 인도될 것이며 적절한 희생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생의 중요성은 복음의 중심인 구세주의 속죄 희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¹¹

제가 아는 사람이 애틀랜타에서 “당신은 성도입니까?”라고 물었던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

가서, 저는 자기 평가가 될 만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가 믿는 것과 일치하며, 헤이트 장로님의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악에서 분리되어 있음을 친구와 동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둘째, 세상적인 즐거움, 이익, 그리고 유사한 활동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구세주를 따르고,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셋째,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성약에 따라 희생하고 있습니까?

말일성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축복입니까. 저는 찬송가 “오 시온의 성도여”에 있는 마지막 소절의 가사를 좋아합니다.

오 시온의 성도여, 충실한 조상이 걸었던 길을 걸으라

*감사하며 너희 마음을 들어올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라*²

봉사를 위해 악과 파괴적인 활동을 피하고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충실한 말일성도가 되는 기쁨을 경험할 자격을 갖게 할 것이며 경전에서 약속한 대로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¹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서 9:18 참조.
2. 니파이삼서 27:21.
3. 찬송가, 16장.
4. In Daniel H. Ludlow, ed., *Encyclopedia of Mormonism*, 5 vols.(1992), 3: 1249쪽.
5. 고든 비 힝클리, “Thou Shalt Not Covet”, *Tambuli*, Feb. 1991, 6.
6. “A Model of Christian Charity”, in Robert L. Ferm, ed., *Issues in American Protestantism*(1969), 11쪽.
7. 용서가 낚는 기적(1969), 43~45쪽 참조.
8. 물문서 8:37.
9. 터블류 엠 그랜트 뱅거터 장로, “What It Means to Be a Saint,” *Ensign*, May 1987, 11쪽.
10.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565쪽.
11. 엘마서 34:8~16 참조.
12. 영어 찬송가, 39장.
13. 교리와 성약 59:23.

겸손의 힘을 부여받다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교회의 힘은 매일 구세주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겸손한 수백만의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일마 전 대제사 정원회 모임에서 교사가 공과를 시작하며 회원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영웅이 누구이며 그 이유를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회원 각자가 번갈아 답변한 내용은 별다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구속주이신 구세주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노예를 해방시켰으며 미국을 이끌고 남북 전쟁을 치른 후 미국을 통합한 에이브러햄 링컨을 언급했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우리의 사랑하는 현재의 예언자인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을 택했습니다. 저는 회원 각자가 영웅을 말할 때 그들 모두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특성 중 몇 가

지를 제가 지녔다면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답변할 차례가 되자, 저는 제 우측에서 몇 자리 건너 앉은 한 형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영웅은 켄 스위트필드와 그의 아내 조 앤입니다.” 저는 20년간 켄과 조 앤이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을 부모가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사랑과 인내로 간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영국 리즈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2주 전 끔찍한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전에 아들 쉘인에게 걸었던 두 사람의 희망과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을 저는 이때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켄과 조 앤이 쉘인을 휠체어에 태워 햇살을 받게 하거나 이웃으로 데리고 나가 아들에게 경치를 설명해 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듣고 느끼며 신선한 공기와 햇살이 그의 잠자는 영을 일깨워 줄 것이라는 바램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20년간의 간호로 인해 휴가나 저녁 외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노여움이나 절망 또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의심을 나타낸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오히려 늘 신앙과 낙천적인 생각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좌측의 형제를 보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영웅은 짐 뉴턴과 그의 아내 헬렌입니다.” 짐과 헬렌의 아들 제크는 페루로 선교사 부름을 받은 직후 교통 사고로 사

망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저는 제크가 살아서 회복되기를 바라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는 가장 품위 있고 온화한 태도로 아들 제크가 장막 저 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굳건한 부모의 조용한 결심을 보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속의 구세주를 믿는 깊고 변함없는 신앙을 지닐 때 비로소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저의 신앙은 강화되었고 그들이 받은 영감으로 인해 저는 이러한 시련과 비극을 접할 때 그들의 모범을 따르겠다고 재차 다짐했습니다.

저는 또한 톰 애보트와 그의 아들 존도 저의 영웅이라고 답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종종 방문하기 힘든 편이었지만, 그는 한번도 가정 복음 교육 임무를 거른 적이 없는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였습니다. 그 밖에 제가 존경하고 영웅이라고 칭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이른바 높은 직책에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모두 어떤 직책이라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와드 성찬식에 참석할 때면 회중을 내려다 보면서 일요일마다 만나는 얼굴들을 바라보며 종종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일부는 20년 이상 성찬식에서 정기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은 아니지만 모두 변함없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인생의 어려운 과제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제가 만나는 분들이요 존경하며 감사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직위나 명예나 명성을 탐하지 않지만, 각자 나름대로 일상 생활의 일을 해나가면서 아버지의 왕국에서 어떤 지위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꾸준하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일을 하지만 겸손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중요한 일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지만, 힘겨운 사투 끝에 역경을 극복한 후 조용히 찾



아오는 화평을 누립니다. 이런 상황은 전세계의 수많은 와드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은 매일 한 번에 한 걸음씩 구세주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겸손한 수백 만의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이 겸손한 회원들의 국적과 계급과 경제적 배경은 천차 만별입니다. 그중에는 교육적 배경이 대단한 분도 있고 오지에 자리한 작은 오막살이에서 사는 분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힘있는 간증과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충실한 회원들을 생각할 때면 그들 모두가 지녔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겸손으로 주님의 뜻을 유순하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생의 난관과 시련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생의 선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겸손과 감사는 실로 행복을 약속해 주는 한 쌍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의 만남에 대해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언자는 브리감 영 형제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두고 심하게 꾸

짚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심히 놀라 브리감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후일 주님의 사자로 알려진 브리감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리감은 천천히 일어나 평소의 성품과 겸손이 풍기는 어투로 머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요셉은 연단에서 달려 내려와 흐느껴 울며 브리감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리감 형제님, 시험을 이겨냈군요, 시험을 이겨냈어요.”(in Truman G. Madsen, “Hugh B. Brown—Your Youthful Veteran,” *New Era*, 1976, 16 참조)

우리는 대부분 겸손이 나약함으로 오인 받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회사가 겸손을 소중한 덕목이나 경영상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배우면서 겸손과 순종의 정신은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겸손하고 순종적일 때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미덕은 하나님의 축복과 신권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신임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그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힘과 희망이 생깁니다.

주님은 교회 회원들이 지녀야 할 요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이들에게) ... 침례를 베풀어 교회에 받아들여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20:37)

교회 회원들 가운데는 신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권고에 겸손히 따르는 남녀가 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약간 주눅이 든 가정 복음 교사를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름난 기업의 중역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감독의 권고에 겸손하게 따르는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감독과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했던 분이 초등학교 교사의 부름을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유아반의 일을 도우며 전 세계의 궁핍한 자들에

게 보낼 인도주의 원조 물품 상자를 정리하는 일을 돕기도 합니다. 수많은 노부부가 편한 집을 떠나 전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낮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봉사를 거둬주고 거둬주어서 행합니다. 세계에 산재한 빈곤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궁핍한 사람들에게 작은 생필품을 나누어 주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나누어 줍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함당하다고 여기어 내리는 모든 것에 ... 기꺼이 순종해야”(모사이사서 3:19)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겸손의 힘 즉 인생의 역경을 이겨 낼 수 있는 힘, 화평의 힘, 희망의 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간증으로 고동치는 마음의 힘, 그리고 구속의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구세주는 겸손과 순종의 힘을 상징하는 최상의 모범이십니다. 마침내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경전에 포함된 말씀 중 가장 거룩한 말씀은 아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간단한 말씀일 것입니다.(누가복음 22:42)

우리에게는 불타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 즉 영웅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을 적절한 말로 표현한다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야겠습니다. 헝클러 대관장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에 관련된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으뜸된 선견자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요셉 스미스가 신성한 세 가지 계시 중 단 한 가지만을 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그를 예언자로서 인정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18 20년부터, 요셉 스미스는 반복되는 기소로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으나 결국 무고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의 기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그를 조롱하고, 지옥은 그에게 분노하며, 그의 이름은 “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요셉 스미스서 2:33)졌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같은 소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다니면서 계시의 혜택을 누리기보다 교회 밖에서 비난을 일삼게 하더니 필경에는 “ 으뜸된 선견자”인 예언자의 사명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했습니다.(니파이이서 3:6~7 참조)

암몬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선견자는 고대 기록을 번역할 권세를 갖고 있으며, “선견자

는 예언자보다 뛰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암몬은 “선견자는 ... 예언자”(모사이사서 8:11~16 참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견자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자기 동포에게 크나큰 유익”(모사이사서 8:18)이 되었습니다.

“ 으뜸된” 번역자는 만질 수 있고, 검증이 가능한 물문경을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교리와 성약 135:3)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볼 때 물문경은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정경과 같은 것입니다.

표제지에 기록된 대로 물문경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확신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니파이이서 25:19 참조) 이 중요한 사실을 불신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시절에 “확신을 줄 수 있는” 효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약속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물문경은 “지붕 위에서 임혀질”(니파이이서 27:11) 것입니다. 물문경은 소홀한 대접을 받더라도 “세상이 있는 한”(니파이이서 25:22)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변함없이 권유할 것입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요셉의] 이름을 물을 것”(교리와 성약 122:1)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위안을 주는 예언은 요셉의 원수들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며”, 예언자의 백성들이 배반자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니파이이서 3:14; 교리와 성약 122:3 참조)

어제 파우스트 부대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요셉은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온전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친 계시에는 오류가 없습니다.”(Andrew F. Ehat and Lyndon W. Cook, *The Words of Joseph Smith*, 1980, 369쪽)

역설적이지만, 어린 요셉 스미스는 숲속에 들어가서 다만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 알고자 했을 뿐 선견자, 계시자, 번역자, 예언자로 부름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교리와 성약 21:1 참조) 그러나 숲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예상치 않은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계시들과 번역들은 단순한 추측, 그 날 생각해 낸 진리, 또는 경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받은 계시들과 번역들의 엄청난 양은 “으뜸된 선견지”라는 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셉이 받아 현재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많은 계시들 가운데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계시들과 번역들을 통해, 1830년대의 천체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주, 즉 “무수한 세계”가 있는 코스모스가 설명되었습니다. 또 이 설명은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모세서 1:33;

교리와 성약 76:24)

옛적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 즉 어마어마한 약속에 비유되었습니다.(창세기 22:17 참조) 회복의 계시들과 번역들을 통해서 광대한 우주의 존재 가능성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수가 “대략 70×10^{21} 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최근에 추정하였으며, 이 수가 지상의 모든 바닷가와 사막의 모래 알보다 더 많은 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Allison M. Heinrichs, “The Stellar Census: 70 Sextillion,” *Los Angeles Times*, 26 July 2003, Carl Sagan, *Cosmos* [1980], 196쪽 참조)

계시들과 번역들은 하나님의 주된 목적 곧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모세서 1:39 참조) 사업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위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계획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되었으며,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신명기 8:2)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 종종 우리의 신앙과 인내가 시험받는

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모사이아서 23:21)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선과 악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악의 도시인 소돔과 선의 상징인 성전 중에서 어느쪽을 향해 친막을 칠 것인가를 항상 결정해야만 합니다.(창세기 13:13; 모사이아서 2:6 참조)

하나님은 우주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미삼아 우리를 미혹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관심과 목적의 핵심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주인없는 우주” 즉 “무의식의 우주”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뭇 다릅니다.(Bertrand Russel, “A Free Man’s Worship,” in *Mysticism and Logic and Other Essays* [1917], 50), (Albert Camus, *The Myth of Sisyphus and Other Essays*, trans. Justin O’Brien [1955], 123쪽)

마찬가지로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살아온 오랜 역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경전이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영원성에 대한 또 하나의 통찰인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93:29 참조) 이처럼 심오한 뜻을 내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무에서” 우연히 창조되었다는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인간 개개인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요한일서 4:19 참조)고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 세상의 혼란 속에서 다른 인간들의 실체 즉 그들은 진실로 우리의 영적 형제 자매이며 물건이나 경쟁자나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계시와 번역은 한결같이 “놀라운 것들”이지만, 그 중 이 세 가지 계시와 번역은 특히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염원과 의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질과 인생의 의미

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 줍니다. 이처럼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선언만큼 인간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신성한 세 가지 계시 중 단 한 가지만을 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그를 예언자로서 인정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도, 그 깊은 뜻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교리와 성약 84:38 참조)

바울이 “불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았던”(로마서 4:20참조) 아브라함을 칭찬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의 교리를 상고한 후에 것처럼 대답하고 희망찬 진리를 접한다면 감당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놀라운 계시들과 번역들을 상고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 ...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만사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모사이야서 4:9)라고 말한 베냐민 왕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멸의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맡기셨지만, 하나님이 아주 오래 전에 그분의 아들의 속죄를 통해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부활할 수 있게 하셨던 것에 진실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 이런 저런 권유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품고있는 뜻과 생각이 전혀 다른 구세주에게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모사이야서 5:13 참조)

하나님의 계획과 믿을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우주에는 놀라운 개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선] 모든 인간을 내려다 보시며 ...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뜻이나 생각을 모두”(엘마서 18:32; 이사야 66:18 참조)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우리는 미 헌법에 있는 것과는 달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 계시야말로



교회 본부 건물 광장에 세워져 있는 요셉과 엠마 스미스 상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은 구세주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재하고 계시를 증명한 것입니다. 거룩한 숲을 시작으로 곧 뒤이어 커틀랜드와 하이람 등 무명의 장소에서 두 분이 반복해서 나타나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두 분이 실재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예수님을 기껏해야 우리에게서 아득히 먼 곳에 계신 분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그분을 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복의 계시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라는 보편적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한한 속죄”를 수행하신 예수님은 그 속죄로 인해 무한한 고통을 겪으셨으며, “만물보다 낮아지셨으니 ... 이로써 만물을 아시게” 되셨고, 만사를 다 아시는 구세주이십니다.(니파이서 9:7; 교리와 성약 88:6) 그렇습니

다. 지난 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한 흑인 영가의 가사처럼 “내가 겪은 고난 아무도 모르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시들과 번역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흔히 쓰이는 표현을 빌리자면, 조용한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 즉 절망 가운데서도 남의 도움을 결코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Henry David Thoreau, *Walden* [1965], 7쪽 참조)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쾌락과 활동에 탐닉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필경에는 그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자신의 판단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모로나이서 9:20; 에베소서 4:19; 니파이일서 17:45 참조) 따라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보다 감각적인 것을 찾아 철저히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입니다.(모사이야서 29:26~27 참조)

마지막 날에 악마가 자기 추종자들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엘마

서 30:60 참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리는 만 무합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승리하실 것이며, “육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악마의 교활한 철학들도 무너지며, “그 무너짐이”(엘마서 30:53; 니파이일서 11:36 참조) 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 정신을 차린” 탕자들의 삶을 통해서 악마의 교리들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누가복음 15:17 참조) 허망하게 불의한 삶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계시들과 번역들에 대해 알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엘마서 32:6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회복된 복음에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에” 대해 위안을 주는 계시들과 진리를 알려 주는 번역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회복의 적혈구로 가장 잘 치유될 수 있는 교리의 무지 때문에 고통 받아 피곤한 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야곱서 4:3 참조) 만일 숨기면 회개를 막게 되고 “해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맑게-”(교리와 성약 105:31 참조) 될 영적인 것들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를 중요치 않은 사람들과 여기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나 그릇된 길에 빠진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결국 “크고 넓은 건물”이 비좁고 곰팡내 나는 3류 호텔임을 깨닫게 되는 부질 없는 사람들의 경멸의 손가락질을 참아 냅시다.(니파이일서 8:31~33 참조) 욕하는 자들을 욕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맙시다.(교리와 성약 31:9 참조) 그보다 온 힘을 다해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줄 영적 보호막인 신앙의 방패를 힘있게 들어올립니다.(니파이일서 15:24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이라는 말 이외에 “제가 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야곱서 6:12;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복음대로 좀더 온전히 생활합시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여러분은 이 얼마나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세계 전역에 있는 충실한 말일성도인 여러분은 확고하고 변함없는 간증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세상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이들을 떼어 신성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세상적인 일들로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온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 명상하고 깊이 생각할 기회뿐 아니라 영감을 받고 도움을 주는 말씀을 들을 기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강화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

서 우리의 간증은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¹

저는 말일성도들이 마음 속에 옳은 일을 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신 방법에 따라 생활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 대회 동안 우리는 이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대회에서 배운 것처럼 더욱 온전하게 복음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매우 훌륭하게 노래했습니다. 이 합창단은 매우 훌륭하고 헌신적인 조직입니다. 이 훌륭한 결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관대하게 바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음악을 제공한 독신 합창단계도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어젯밤 선교사 훈련원에서 온 젊은이들이 강력한 힘으로 불러준 훌륭한 음악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결론으로 모로나이서 몇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깨어나 티끌에서 일어나라 예루살렘이여, 오 시온의 딸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그 경계를 영원히 넓혀 다시는 흠어지지 않도록 하고, 오 이스라엘



의 백성들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게 하라.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인하지 못하리로다.”(모로나에서 10:31~32)

이 훌륭한 대회의 결과로서 우리 각자는 더 나은 남자나 여자, 더 나은 소년이나 소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업을 전진해 나기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훌륭한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얼마나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세계 전역에 있는 충실한 말일성도인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와,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 중의 주님, 왕 중의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새로이 시작하기 위해 이 경륜의 시대에 두 분이 나타나셨다는 확고하고 변함없는 간증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들이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사려 깊고, 조금 더 예의 바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혀를 통제하여 분노로 인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왼편 뺨을 돌려 대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면서 십 리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지닐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복음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업에 있어서 저의 훌륭하고 충실한 동료인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화평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신앙의 본질로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우리가 말일성도로서 함께 좀더 온전한 생활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저의 사랑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

주

1. See Gordon B. Hinckley, *Faith: The Essence of True Religion*(1989), 93쪽.

사랑을 선택함: 이 좋은 편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저는 서로를 그저 더욱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훌륭하게 사랑하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주님의 회복된 복음 안에서 성약의 여성인 상호부조회 자매들로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나이나 삶의 단계 또는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상호부조회에서 필요하고,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현재의 여러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 사무실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묘사한 멋진 그림¹이 걸려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여성으로서 겪는 도전에 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휴즈 자매님과 핑그리 자매님 그리고 저는 모임의 주제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활용하

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² 이것, 즉 이 좋은 편을 택하라는 주제로 오늘 밤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마르다는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으며, 이 마을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또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³ 두 여인 모두 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⁴ 그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과 함께 복음 토론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관계는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다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경전에 묘사된 대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⁵ 달리 표현하자면 그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와 달리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으며,⁶ 마르다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더욱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익숙한 상황이지요? “저녁 식사 준비하느라 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마리아는 왜 저기 가만히 앉아 있을까?”라고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⁷

마르다에게 주는 주님의 부드러운 권유는 그녀를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⁸

구세주의 응답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 날 저녁에 마르다의 집에서는 좋은 편이 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저도 구세주의 발치에 있는 말씀의 향연을 간절히 바라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세탁실에 널려 있는 옷들을 세탁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차디찬 피자 대신 다른 음식을 남편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열다섯 명의 손주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의 여린 마음과 그들이 매일 겪는 어려움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벽찬 교회 부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로, 저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빼앗길 수 없는 좋은 편을 택하여 우리 생활에서 영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들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방문 교육을 하는 것과 은행에서 돈을 흠치는 일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면 선택이 얼마나 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택은 종종 더욱더 미묘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많은 일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바로 여러분과 저이며, 상호부조회에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던 반면 마르다는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옳고 동생은 당연히 언니를 돕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마르다와 같은 자매와 마리아



아와 같은 자매만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염려를 일축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편을 택하라”는 말씀으로 그녀의 초점을 재조정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언자 리하이는 우리가 “위대하신 증보자를 따르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성령의 뜻을 좇아 영생을 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⁹

필요한 한 가지는 영생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듣고,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즉 순수한 사랑의 품안에 감싸이게 됩니다.

물론은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라고 가르칩니다.¹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자 그것을 살펴 봅시다. 이 표현에서 “의” 뒤에 있는 낱말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의 일부를 여호수아에 있는 다음 성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부지런히 유의하여 …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사랑하고 …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¹¹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며, 우리의 봉사, 인내, 동정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에 대한 다른 통찰을 이터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

었으니, 이는 [그] 다시 생명을 취하시 인간이 거할 곳을 예비하려 하신 것이요 … 이제 [그]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참으로 사랑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¹² 사랑은 또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하며, 그분의 봉사, 인내, 동정심, 이해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¹³은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일컫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또한 사랑의 은사가 어떻게 작아질 수 있는지를 잘 말해 줍니다. 도와 달라는 마르다의 요청 안에는 비록 말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분명히 남을 심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옳고 동생은 잘못하고 있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심판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독특한 상황이나 개별적인 영감을 사실상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 서로를 비판합니까? 우리가 “그 자매는 가사보다는 직업을 택했어요” 아니면 “그 자매 아들은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또는 “그 자매는 부름을 받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 자매는 독신이라 안 돼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판단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다른 많은 판단들은 우리에게서 좋은 편, 즉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

할 때 그 좋은 편을 시야에서 놓칩니다. 그녀의 머리 곁은 더 사랑스럽고, 내 다리는 더 두껍고, 그녀의 아이들이 재능도 더 많거나 또는 그녀의 정원이 더 비옥하며 … 등등 제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 대신에 우리가 되지 못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호부조회에 속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거나, 남의 소문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 하시는 주님의 감미로운 권고를 여러분은 들을 수 없습니까?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님은 이 점에 관해 아주 멋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어떤 범주 속에 집어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노하기보다는 좋은 의도가 있었지라고 단순히 생각하거나 조용히 있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차이점과 약점과 단점을 수용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을 때 화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¹⁴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자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매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녀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서로를 그저 더욱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훌륭하게 사랑하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¹⁵

마르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가장 먼저 잊게 되는 일들 중의 하나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사랑의 태도를 다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점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 시작하고, 매일의 경전 읽기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은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우선 순위에 놓을 때 사랑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¹⁶ 이것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인 과정입니다. 자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이 교회의 모든 자매 개개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을 갖게 되기를 온 마음으로 소망했습

니다. 저의 증가된 사랑을 통해 여러분이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기울여 ...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모든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¹⁷

지난 12월 주일학교 시간에 교사가 제언하기를 십일조 결산을 하는 시기에 자신이 어떤 복음 원리를 공부했고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보고를 주님께 드러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공부가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아주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속삭임은 성찬식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가 주님에게서 지시를 받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의 많은 분들과 일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함에 대해 크나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결 같은 지지에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소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느낌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은 제 부름에서 가장 감미로운 순간의 일부입니다. 최근에 제가 왜 그렇게 좋은 엄마가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던 제 자녀들의 질문으로 보아, 제가 분명히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 12월 저는 저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저의 노력에 대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지 아니할 좋은 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 곧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허락하실 것인데, 이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매일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 그리스도를 택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겠다는 선택을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선택을 하십시오. 기대를 갖고 그분의 사랑을 찾아보겠다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온 마음을 바치겠다는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월터 레인,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 교회역사 미술 박물관 제공.
2. 누가복음 10:42 참조.
3. 누가복음 10:38~39.
4. 요한복음 11:5.
5. 누가복음 10:40.
6. 누가복음 10:39.
7. 누가복음 10:40.
8. 누가복음 10:41~42.
9. 니파이이서 2:28.
10. 모로나이서 7:47.
11. 여호수아 22:5.
12. 이터서 12:33~34.
13. 모로나이서 7:47.
14.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19쪽.
15. 모로나이서 7:46.
16. 요한1서 4:19.
17. 모로나이서 7:48.

간증: “이 좋은 편을 택하라”

다음에 나오는 간략한 간증들은 “이 좋은 편을 택하라”라는 특별 음악 순서에 포함된 두 번의 간주곡 사이에 들어 있다.

재닛 에드워즈, 뉴욕 출신의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 선교사: 저는 극단에 속해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뉴욕 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9/11 사건으로 제 생활이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릇된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주님을, 즉 그분의 화평과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걸리너 페르시나, 러시아 출신의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 선교사: 교회에 들어 왔을 때 가족들은 자신들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몹시 앓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어머니에게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영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제가 좀더 가까이 있다고 느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플러랑스 추우라, 나이지리아 출신의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들어 주셨고 저와 저의 가족을



재닛 에드워즈



걸리너 페르시나

축복해 주심으로써 제 노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도너 에스 패커, 유타 출신,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의 부인, 아이들의 어머니, 할머니, 증조모: 자신의 간증을 얻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일상의 시련들 속에서 빌려온 빛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지식에 언제까지나 기댈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신만이 예수님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 영혼 속에 인봉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



플러랑스 추우라



도너 에스 패커

그분과 맺은 성약으로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의 자매 관계는 모든 연령층과 배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가 맺은 성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한 해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상호부조회의 여성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축복 받은 여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고 그분과 성약을 맺었으며,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는 주님의 발 아래서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¹ 즉 그리스도와 상호부조회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자매가 작성한 최초의 회칙을

요셉 스미스가 읽었을 때, 그는 그것이 그본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더 훌륭한 것”을 마음속에 그려 보았습니다. 그는 “신권 조직의 형태에 따라 신권의 관리 하에 여성들을 조직”하고자 했습니다.² “열쇠를 넘겨”³주고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⁴를 조직한 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제야 교회가 완전하게 조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매 여러분, 상호부조회는 신권의 권능과 권세로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교회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면서, 형제와 자매는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에서 함께 일합니다. 자매로서 우리는 결코 교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형제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여성으로서 신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성으로서의 부름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구세주와 함께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려진 그림을 살펴보면 저는 이 여인들이 저의 선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 역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지]”⁵ 많은 여성들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다른 충실한 여인들이 왕국 건설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기 위해 함께 만

났으리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성약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께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을 때 그것은 신성한 부름과, 봉사, 사랑, 서로를 돌보고자 하는 의욕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주님의 사업에서 신권의 의식과 지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행하는 봉사도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성약의 여성, 즉 주님께 성스러운 약속을 한 여성이 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우리 중 성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성약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와드에서 청년 회장으로 부름 받았습니. 머리는 갈색이었고, 몸매는 ... 글썽요, 지금보다는 좀더 유연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전 다시 같은 직책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와드에서였습니다. 저는 재활동되고 있었는데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직책이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서 봉사하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머리가 거의 백발에다 허리를 굽히는 일조차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고, 똑똑하고, 재미있는 훌륭한 청년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들과 나눌 지혜가 조금은 더 있고, 복음에 대해 더 깊은 간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제게서 배우는 것만큼 저도 그들에게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매 관계는 모든 연령층과 배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가 맺은 성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약들이 이제 불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 우리는 서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감독단에서 봉사하는 남편이 단상에 앉아 있는 동안 침착하지 못한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애쓰는 어느 젊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세 드신 한 자매님이 가장



거리는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한 단순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이나 초등학교 교사, 혹은 청년 야영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성스러운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노인을 살펴보기 위해 전화하거나, 젊은 어머니를 격려하고 도움을 주거나, 다른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회장단은 한 교회 지도자와 만났습니다. 그 분은 상호부조회 모임과 신권회가, 우리가 서로, “자매님, 혹은 형제님, 저는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매들이 간증을 나누고,

한 홀로된 자매가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얘기 하던 그 일요일 아침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배신당하고 이혼했으며, 일을 하여 적은 수입으로 자녀들을 키우느라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떠남에 따라 외로움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임은 감미로웠으며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자매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즉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날 상호부조회실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 곳은 모든 상호부조회실이 각 자매를 위해 되어야 하는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자매를 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나 청년회에서 봉사하는 자매들을 잊지 맙시다. 그들에게는 충실한 방문 교사의 보살핌과 잘 준비되고 참석하기 쉬운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점점 연로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저처럼 말입니다! 저

와 같은 나이이거나 더 연로하신 자매 여러분, 부디 자신을 “재활용”시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봉사를 필요로 하시며, 우리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에서 상호부조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자매들을 이해합니다. 충실하고 강하지만, 현재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한 자매들이라면, 서로의 필요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햇병아리 성인 시절은 널리 펼쳐진 자매가 가운데서 과도기가 아니라 자연스런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와드에는 이러한 젊은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고, 자매애의 품안으로 인도하십시오. 하지만 젊은 자매들에게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매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알기 위해 여러분의 역할을 할 때까지 상호부조회에 대해 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청년에서 상호부조회로 옮겨가는 것은 한 반에서

다른 반으로 가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자매에로부터 깊은 우정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사교 클럽은 아닙니다. 어느 한 청년이 말했듯이 우리는 “일요일에 만나는 나이든 여성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는 힘, 즉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여성 조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영감을 갖고 지역 사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세상을 이끄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기대했던 것이며, 오늘날 헝클리 대관장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의 범위가 엄청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근에 침례 받은 제 손자가 말한 바와 같이 성약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⁶된다는 경전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많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것들을 지킬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성약의 여성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딸인 우리를 위한 그분의 조직에 대해 여러분 자신의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택하십시오. 상호부조회를 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10:42 참조.
2. Sarah M. Kimball, “자서전”, *여성의 옹호자*, 1883년 9월 1일, 51쪽 참조.
3. 조지 엘버트 스미스,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행한 연설”, *상호부조회 잡지*, 1945년 12월, 717쪽.
4. “상호부조회 조직 이야기”, *상호부조회 잡지*, 1919년 3월, 129쪽 참조.
5. 사도행전 9:36.
6. 교리와 성약 82:3.

그러므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택하라

앤 시 핑그리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여성이 그리스도를 마음 한가운데 ... 모시겠다고 택할 때 ... 그것은 자신의 가정과 가족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온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겠다고 택할 수 있다는 것, 즉 구세주와 구속주를 마음 한가운데 모시겠다고 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는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¹입니다. 우리는 첫째 지체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택했습니다.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가 매일 그분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성약의 여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위태로운 때”²에 얼마나 그분이 필요합니까! 그분은 힘과 안전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빛이며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³납니다. 우리 자신의 구세주와 구속주로서, 그분은 팔을 벌린 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나아오도록”⁴ 권유합니다. 자매 여러분, 구세주의 권유를 받아들일 때, 여성은 개인적으로 강화되고 그 여성의 의로운 영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성이 그리스도를 마음 한가운데, 즉 자신의 세계의 중심에 모시겠다고 택할 때, 가족의 수가 많은 적든 자신의 가정과 가족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 어떤 상황이든, 가정과 가족의 심장으로서는 각 여성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자신의 가정에서 그 환경과 분위기에 반영됩니다. 일본에 임무 지명을 받고 가 있는 동안, 한 교회 지도자가 그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기회였지만 우리는 사

전 상의도 없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손님을 집으로 데려온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이 예기치 않은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서 신을 벗고, 상냥하게 말하는 젊은 상호부조회 자매의 정중한 환영을 받는 순간 저는 질서와 평화와 사랑의 영을 느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장난감을 들고서 서둘러 이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녀가 여덟 명이나 되는 이 가정에는 아직도 일곱 명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가족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분명했습니다. 주님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구세주의 그림,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가족 사진과 성전 사진, 많이 사용한 경전과 근처 책장에 깔끔하게 겹겹이 놓여진 교회 비디오 테이프가 그것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⁵이 그 가정에 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연령층의 자녀들로 가득 찬 작은 방에 부모가 낮은 테이블 주위에 앉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⁶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이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생자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압니까?”⁷ 이 일본 가정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예”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성이 그리스도를 마음 한가운데 두기로 택할 때, 매일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실천하려 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과제의 일부는 매일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회개의



단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섯 살 짜리 아들을 가게로 데리고 가 훔친 사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을 때 회개의 원리를 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아이들이 결코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아이는 먼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사탕을 돌려주었으며, 주인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절대로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보고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아는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가 저였으며 다섯 살짜리 아이가 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 조카들을 복음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할 때에라도, 그

와 같은 일들은 모든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를 닮는”⁸ 것은 실천을 필요로 하며 그런 다음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 한가운데 모시겠다고 택하는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그들 마음 한가운데 모시도록 가르치려 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크게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지만, 그런 실망스러운 날에 저는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위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⁹

우리가 이 좋은 편을 택하고 구세주의 인도와 도움을 위해 매일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를”¹⁰ 주십니다. 우리는 가족을 강화하는 영



적인 통찰력을 갖도록 축복을 받습니다. 어린 세 자녀의 아버지인 더그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가족 부양의 수단은 실업 수당과 약간의 저축, 그리고 친척들로부터의 약간의 도움이었습니 다. 아내 로리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시간제로 일하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애썼습니 다. 그들은 옳은 모든 일, 즉 기도, 경전 읽기, 성전 참여, 십일조 참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통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문의를 했지만, 면접 요청은 거의 없었으며 어떤 취업 제의도 오지 않았습니 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지 육 개월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로리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약간 화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딸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을 때 로리의 어머니에게 영감 어

린 말씀과 생각이 떠올랐습니 다. “로리야,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네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니! 그러나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단 다. 어쩌면 지금은 너를 연단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이렇다. 지금 곧 침실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위로와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거라.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지만 네 남편은 직장을 구하게 될 게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도와 주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라. 너는 참으로 축복 받은 사람이다.”

로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은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세주의 사랑을 자신의 삶과 가정에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제 삶에서 종종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좋을 때나 제 앞에 주어진 어려움들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을 때나, 저는 주님께 돌이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분이 항상 그 곳에 계시며,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분의 팔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펼쳐져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시각 자료 그리스도 상]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제 희망이며, 저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섬기겠노라”¹¹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고린도후서 3:3.
2. 고든 비 힝클리, “우리가 사는 시대”,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6쪽.
3. 빌립보서 4:7.
4. 율나이사 1:26.
5. 갈라디아서 5:22.
6. 니파이이사 25:26.
7. “자녀를 위한 기도”,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87쪽.
8.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9. 교리와 성약 64:33.
10. 엘마서 31:35.
11. 여호수아 24:15.

교회의 여성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과 현재 하는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여성들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들은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반은 어머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더 나은 편을 선택한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어머니이며, 어머니의 역할은 시간을 다 바쳐 일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반자로서 남편에게 가장 친한 친구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부입니다. 그 역할이 대단치 않은 것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집안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은 장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가족이 먹을 식품을 마련하고 저

장하며, 옷을 깨끗하고 보기 좋게 보관하며, 집안을 꾸러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간호사입니다. 어떤 병이 생기든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사람도 여러분이고 먼저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병이 심할 때 여러분은 환자 곁에서 밤낮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운전 기사입니다. 신문을 배달하는 것처럼 매일, 체육 행사, 워드 활동 등 자녀들을 태우고 그들의 바쁜 생활에 맞춰 이곳 저곳으로 어디든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이제 모두 장성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60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화를 걸어 제가 받으면 “어머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어머니 계신가요?” 하고 묻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의 삶에 힘이 되어 왔습니다. 아이들은 아기였을 때부터 엄마에게 의지해 왔으며 엄마는 아이들을 애정과 인도와 가르침과 축복으로 모든 면에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머니가 된 손녀들이 있습니다. 집에 놀러 오면 저는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조용히 시키고 울음을 그치게 하는 인내심과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된 손녀들은 그러한 태도로 다른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손녀들은 운전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자녀 활동에 참여하고, 요리와 바느질을 하

고, 공과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말씀을 합니다.

손녀의 남편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아내의 짐을 나눠 지도록 해라. 아내에게 정말로 감사하느냐?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느냐? 아내를 칭찬해 주느냐?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느냐?”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과 현재 하는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훌륭하게 봉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너무 벅차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벅잡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할 때 큰 보상이 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일도 잘 못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을 강화하고, 영감을 주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마음에 큰 기쁨을 가져다줄 힘과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석하게도 자신이 하는 일의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종종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오래 전에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동부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다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한 사람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몇 년 전에 이리이러한 곳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맞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고 그 당시



를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제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때 호기심으로 모임에 가기는 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막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심이사도 가운데 한 분이 계시다는 발표를 듣고 계속 머물러 있기로 했습니다.

“장로님은 제가 생각해 보도록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진로를 바꾸기로 결정했고, 제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전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며,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와드에서 감독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헤어지면서 머리를 가로 저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넌 결코 모른다.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결코 모른다.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넌 결코 모른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최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주님께

축복을 간구하십시오. 그런 뒤 굳건히 일어서서 요청 받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겨 두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값을 따질 수 없는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는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신입니다. 완벽한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까지 완벽한 남자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높게 가지십시오. 그러나 너무 높아서 도달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고, 여러분에게 절대로 충실하며,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허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정직하고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될 확률은 아주 적으며 매우 행복해질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슬퍼하면서 인생을 보내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의 재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현신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강하고 충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기 전까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과 사랑스러운 미소와 친절할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유능하고, 매력적이고 훌륭한 여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계획 안에서 기회와 보상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주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여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은 대단히 힘듭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은 절약하고 저축해야 하며, 현명하고 사려 깊게 지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강하고 당당하고 용감해야 하며, 눈에는 기쁨을 그리고 마음에는 사랑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할 자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서 인봉 받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족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모든 책임을 다하고, 훌륭하고 충실하며 사려 깊은 남자와 나란히 걸으면서 그와 함께 여러분의 자녀를 의와 진리 안에서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거나, 얻게 될 세상적인 어떤 것도 자녀에 대한 사랑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젊은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젊지도 늙지도 않은 중년이나 장년기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시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십대입니다. 어쩌면 한두 명이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간 자녀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에게 특별한 권고 몇 가지를 드립니다.

주가 주신 복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많은 할부금을 영원토록 지불하는 대단히 큰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머무는 편안하고 유쾌한 집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훌륭한 여성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고 어떤 사람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집 밖에서 일하여 얻을 수도 있는 일부 사치스러운 것이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이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딸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

들 가까이 있으십시오. 그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옷을 예쁘고 단정하게 입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들 주변에 있는 온갖 사악한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십시오. 사랑과 권고로 여러분의 아들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들에게 개인적인 청결과 단정한 복장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단정치 못한 모습은 단정치 못한 행동을 낳습니다. 그들에게 기강을 심어주십시오. 그들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합당하게 키우십시오. 그들에게 할 일을 주어서 일을 배우게 하십시오. 절약을 가르치십시오. 일과 절약은 번영을 가져옵니다. 자녀들에게 밤 11시 이후에는 정말로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을 버릇없게 키우지 마십시오.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격려하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에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게 하십시오. 이것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동시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편모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버림 받았거나 미망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은 참으로 지기 힘듭니다. 잘 지고 가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가정에서 혹은 다른 문제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신권 정원회가 주는 어떤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 조용하게 기도 드리고 눈물이 흐르거든 흘리십시오. 그러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십시오.

이제 사랑하는 할머니와 연로하신 미망인 여러분, 그리고 홀로 사시는 연로하신 자매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곧 92세가 되는 사랑하는



아내를 봅니다. 아내의 머리는 백발이고 몸은 구부정합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손을 바라봅니다. 한때 그 손은 한없이 아름다웠으며 살결은 탄탄하고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주름져 있으며 약간 여위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오랜 세월 함께 했던 사랑, 성실, 신앙, 그리고 힘든 일을 말해 줍니다. 아내의 기억력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내는 반 세기 전에 일어난 일은 기억할 수 있지만 반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은 기억하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66년 동안 우리는 손을 잡고, 사랑과 격려로, 감사와 존경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 곧 우리 둘 중 하나는 저 장막 너머로 갈 것입니다. 저는 남은 사람이 곧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내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아내도 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상호부조의 친구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어디에 살든,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과 아름답

다음을 가져오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빛과 아름다움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가 알고 있듯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불멸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삶에서 갈고 닦는다면 천국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조직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상호부조회입니다. 그에 필적할 만한 조직은 세상에 없습니다. 긍지를 갖고 사십시오. 의기를 잃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십시오. 신앙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결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삶이 축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안과 보상을 주는 성령의 포용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제이 이 맥컬로치, 가정: 문명의 구세주(1924년), 42쪽; 대회 보고, 1935년 4월, 116쪽.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제언



연 차 대회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실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위해 굳건히 서십시오.” ...

“...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지지하실 것입니다.”

82쪽에 나와 있는 말씀에 포함된 권고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런 뒤 소책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뒤쪽에 나와 있는 나의 복음 표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표준에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들과 함께 논의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 막내 아들 클라크가 열두 살이 되기 얼마 전에, 제가 그 아이와 함께 교회 행정 건물을 나

서는데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 저희에게 오시더니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클라크가 곧 열두 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리 대관장님은 아들을 보고 “열두 살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지?”하고 물으셨습니다.”

“... 클라크는 주저하지 않고 리 대관장님께 “집사에 성임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 대관장님께서 원하시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은 제 아들에게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56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펴니다. 몬슨 부대관장이 집사 시절 와드 회원에게 보였던 봉사에 관해 읽어봅니다. 이웃 또는 와드나 지부 회원에게 행할 수 있는 봉사에 관해 논의합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 할아버지가 겨울에 아이다호로 여행을 했는데 그 곳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던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날씨는 몹시 추웠으며 할아버지의 친구는 코트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코트를 벗어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 자신의 조상에 관해 좀더 배움으로써 자신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내기 시작하도록 권고합니다.”

53쪽에서 시작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분들의 조상에 관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말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어린 요셉이 숲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경험한 첫번째 시현을 기억하십시오. 곧 캄캄한 어둠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실체인 원수의 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으며 악의 세력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기도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여러분은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기도로 힘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여러분은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기도로 힘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24쪽에서 시작되는 말씀에 포함된 이 이야기에 관해 논의합니다. 그런 뒤 성스러운 숲에서 있었던 요셉 스미스의 나머지 경험에 관해 말합니다. 요셉스미서 2:15~20 참조.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를 들면, 급성 맹장으로 응급 수술에 당면한 여덟 살짜리 소년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 소년은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를 올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하기 전에 저를 위해 기도 좀 해 주시겠어요?”

“의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보고 말합니다. ‘저런,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44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읽고 소년이 다음

으로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그런 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원할 경우,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전합니다.



셀던 에프 차일드 장로, 칠십인: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들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예언자를 따름으로

써 우리는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것입니다.”

8쪽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연차 대회에서 히클리 대관장님이 주신 권고를 따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목록을 만듭니다.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본부 초 등회 회장단 제1보좌: “구세주는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알고 계시며, 저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76쪽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과 기쁨 그리고 슬픔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니까?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읽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

여러분은 가정의 밤을 돕거나 초 등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래 쪽에 나와 있는 대회 말씀들을 읽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나누거나 말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원을 횡단한 고아 소녀, 53쪽

평원을 횡단한 고아 소녀, 53
십일조를 바치기 위해 약혼 반지를 희생한 가족, 76

성전 추천서를 받는 나이지리아 성도들, 13

병든 아기를 축복하는 즈위크 장로, 34

어린이들의 손에 입맞춤하는 부모님들, 34

마라톤에 참가한 맹인, 34

신권 축복을 원하지 않은 소년, 50

집을 떠난 화가 난 청년, 56

노부부를 방문한 몬슨 부대관장, 56

주일 학교 교사를 방문한 몬슨 부대관장, 67

일본에서 포르투갈어로 간증을 전한 클레그 자매, 76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부랑자, 78

헤이트 장로님의 모범을 기억하고 있는 남성, 95



십일조를 바치기 위해 약혼반지를 포기한 가족, 77쪽



2004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네 번째 일요일 펠기세텍 신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해야 한다. 매년 대관장단은 이 모임에서 사용할 참고 자료와 더불어 열 가지 주제를 정한다. 다음은 2004년을 위한 주제와 참고 자료이다.

스테이크장단 또는 지방부장단은 추가로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한다.

네 번째 일요일 모임의 토론은 지정된 자료들 가운데서 정원회나 반원들의 필요 사항과 사정에 가장 알맞은 한두 가지 자료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 교사들은 참고 자료들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이 모임이 강이나 발표보다는 토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정원회 및 반원들에게 토론된 복음 원리들을 적용하도록 동기를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정원회 또는 반 토론을 준비하고 이끄는 것에 관한 제언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과 교수법 지도서에 나와 있다.

1. 가족, 창조주 계획의 중심

출애굽기 20:12; 말라기 4:6; 모사야야서 27:14; 교리와 성약 93:36~40; 모세서 5: 4~5, 9~12.

고든 비 힝클리 “가정의 밤”,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2~5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가정의 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2~6쪽.

보이드 케이 패커, “인생의 황혼기”,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82~84쪽.

엘 톰 페리, “가족의 중요성”,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003년 40~43쪽.

“영원한 가족”, *복음 원리* 36장.

2. 감사

누가복음 17: 11~19; 모사야야서 26:38~39; 엘마서 37: 37; 교리와 성약 78:19, 98:1~3.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24~26쪽.

달린 에이치 옥스, “범사에 감사하라”,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95~98쪽.

“감사”,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 *말일성도 여성상*, 제 2권, 35과.

3. 수고, 주님의 포도원에서

마태복음 16:24~26; 요한복음 12:26; 니파이일서 3:7; 모사야야서 2:17, 4:27; 교리와 성약 123:17. 토마스 에스 몬슨, “네게 임명한 자리를 지키지어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54~57쪽.

제프리 알 홀런드, “봉사하라는 부름”,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6~38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5~78쪽.

“희생”, *복음 원리* 26장, “봉사”, *복음 원리* 28장.

4. 영적 자립 및 세상적 자립

말라기 3: 8~10; 마태복음 6: 5~13; 엘마서 37:37; 교리와 성약 88: 119.

고든 비 힝클리, “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6~59쪽.

리셀 엠 벨슨, “기도의 부드러운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9쪽.

로버트 디 헤일즈, “십일조: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신앙의 시험”,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26~29쪽.

“일과 개인의 책임”, *복음 원리* 27장.

5. 신권에 의한 축복

교리와 성약13: 27:12; 107:39; 110:11~16; 128:20; 요셉 스미스서 2:68~74.

보이드 케이 패커, “스테이크 축복사”,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2~45쪽.

엘 톰 페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10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신권 안에서 성장함”,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43~45쪽.

“신권”, *복음 원리* 13장, “신권 조직”, *복음 원리* 14장.

6. 불확실한 시대에서의 신앙 행사

히브리서 11; 야고보서 1:3~6; 힐라맨서 12:1; 이더서 12:6; 교리와 성약 6:20; 59:21.

고든 비 힝클리, “전쟁과 평화”,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8~81쪽.

조셉 비 위스런,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2~85쪽.

리차드 지 스크트, “불확실과 시험의 시기에 지켜 주는 신앙의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5~78쪽.

로버트 디 헤일즈, “신앙은 시련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줌”,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5~18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복음 원리*, 18장, “순종”, *복음 원리* 35장.

7. 자녀 교육

예레미야 31:15~16; 누가복음 15:11~32; 요한복음1:43; 니파이삼서 17:11~24; 교리와 성약 68:25, 28.

토마스 에스 몬슨, “따라야 할 모범”,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60~67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길 잃고 헤매는 소중한 양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61~68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자녀를 위한 기도”,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85~87쪽.

“가족의 책임”, *복음 원리* 37장.

8. 성공적인 선교 사업

요한복음 21:15~17; 요한 1서 4:18~19; 모사야야서 28:3; 교리와 성약 4:5; 88:81.

달린 에이치 옥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67~70쪽.

엠 러셀 벨라드, “회원 선교
사업의 필수적 역할”,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37~40쪽.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6~49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자녀와 제자”,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9~32쪽.

“선교 사업”, 복음 원리 33장.

9. 성찬과 성찬식

이 주제는 4/4분기 동안 네 번째
주 안식일에 가르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26~29;

니파이삼서18:1~12; 모로나이서 4,
5; 교리와 성약 59:9~14.

고든 비 힝클리, “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6~59쪽.

러셀 엠 넬슨, “성찬식 예배”,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델린 에이치 옥스, “우리
생활에서의 복음”,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6~39쪽.

델린 에이치 옥스,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14쪽.

“성찬”, 복음 원리 23장.

10. 그리스도의 제자 되다

마태복음 11:28~30; 갈라디아서
6:8; 엘마서 38:8~9; 교리와 성약
64:34; 101:36~38.

토마스 에스 몬슨, “잠잠하라,
고요하라”,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3~56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2~7쪽.

닐 에이 맥스웰, “영육의 생명을
염려하라”,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68~70쪽.

리차드 지 스코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6~88쪽.

“회개”, 복음 원리 19장,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키”, 복음 원리 34장.

■

아론 신권 교재 2 참고 지도서

2004년에 사용함, 제1~25과.
앞으로 참고 지도서는
리아호나 5월호와 11월호에 실릴
것입니다. *리아호나*는 여러 언어로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제1~25과)는 대체
자료가 아닌 보충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교수 제안은 *리아호나*
일반호의 *리아호나* 활용하기 편에
나와 있습니다.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교재에는 부활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세주의 생애와 사명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차 대회 말씀, 교회
잡지 기사, 찬송가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제1과: 나는 누구인가?

토마스 에스 몬슨, “대관장단
메시지: 주님의 등대”,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2~7쪽.

엔 엘돈 테너, “오늘 저는 ...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아호나*,
2003년 3월, 26~29쪽.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43쪽.

제2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

고든 비 힝클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리아호나*,
2003년 5월, 117~119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리아호나, 1999년 2월, 2~6쪽.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3년
5월, 113~114쪽.

제3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살아 계신 그리스도—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
2~3쪽.

조셉 비 워스린,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2~85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42~43쪽.

제4과: 성신의 동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성령과의
교통”, *리아호나*, 2002년 3월,
2~7쪽.

케서린 존슨,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9~91쪽.

마가렛 디 네이들드, “보혜사,
안내자, 증언자”,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09~111.

제5과: 선택의지

제스 엘 크리스틴슨, “필멸의 삶을
시작케 한 선택”, *리아호나*, 2002년,
38~41쪽.

새론 지 라슨, “축복이자 집인
선택의지”, *리아호나*, 2000년 1월,
12~14쪽.

“너를 얽어 매지 않도록 하라”,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33쪽.

제6과: 그리스도인의 봉사

제임스 이 파우스트,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9~22쪽.

엘 톰 페리, “봉사하는 것을 배움”,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10~19쪽.

“자신을 유일한 존재로 만듦”,
리아호나, 2001년 3월, 24쪽.

제7과: 가족의 영원한 중요성

러셀 엠 넬슨,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0~83쪽.

스코트 빈, “내 가족에 관한 진실”,
리아호나, 2003년 3월, 30~31쪽.

“가장 위대한 행복”, *리아호나*,
2003년 6월, 26~29쪽.

제8과: 영성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주님의

영을 구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8~39쪽.

새론 지 라슨, “거룩한 곳에 삼”,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03~105쪽.

“인생에서의 갈등”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30~31쪽.

제9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리차드 지 스코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6~88쪽.

제이 이 젠슨, “회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14~17쪽.

스펜서 브이 존슨, “죄의 악취를
이겨 냄”, *리아호나*, 2003년 5월,
88~89쪽.

“용서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리아호나*, 1999년
11월, 26~28쪽.

제10과: 경진 공부

보이드 케이 패커, “물론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리아호나, 2002년, 71~74쪽.

레니 리스, “100가지 질문”,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8~9쪽.

“경진 공부 제안”,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29쪽.

제11과: 사탄과 그의 유혹

고든 비 힝클리,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들을 물리침”,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2~6쪽.

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인 악어”,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8~11쪽.

데이비드 이 소렌슨,
“방울뱀하고는 못 노는 거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48~50쪽.

리차드 시 에즐리, “사탄의
스나이프 주머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2~53쪽.

제12과: 기도

제임스 이 파우스트, “기도라는
구멍 뚫기”,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2~69쪽.

헨리 비 아이어링, “기도”,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6~19쪽.

조엘 비 마카리올라, “3 센터보”,
리아호나, 2002년 6월, 20~21쪽.

제13과: 금식

조셉 비 워스린, "금식의 법",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8~91쪽.

타이스 마르틴스 레알, "내가 해야 했던 중요한 일", *리아호나*, 2002년 2월, 32~33쪽.

브리гада 아코스타 페레스, "금식으로 인해 축복을 받음", *리아호나*, 1999년 10월, 46~48쪽.

제14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휴 비 브라운, "까치밥 나무", *리아호나*, 2002년 3월 22~24쪽.

로버트 디 헤일즈, "명예롭게 귀환하라",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10~15쪽.

에이치 로스 워크맨, "투덜거림을 조심하라", *리아호나*, 2002년 1월, 98~100쪽.

제15과: 성약을 지킴으로써 승영에 이름

토마스 에스 몬슨, "승영으로의 초대", *성도의 벗*, 1993년 9월, 2~7쪽.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의식과 성약",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16~23쪽.

보니 디 파킨, "거룩한 마음으로",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03~105쪽.

제16과: 십일조와 헌물

로버트 디 헤일즈, "십일조: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신앙의 시험",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26~29쪽.

얼 시 텅기, "십일조의 법", *리아호나*, 2002년 7월, 10~12쪽.

제니퍼 엠 세베리노, "십일조를 낼 때 오는 축복", *리아호나*, 2002년 12월, 46쪽.

제17과: 축복사의 축복

보이드 케이 패커, 스테이크 축복사", *리아호나*, 2002년 11월, 42~45쪽.

리차드 피 린지, "축복사의 축복에 따라 인생의 향로를 설계함", *성도의 벗*, 1991년 8월, 18~21쪽.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리아호나*, 2001년 8월, 22~24쪽.

제18과: 아론 신권 교사의 의무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0년 1월, 58~61쪽.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리아호나*, 2002년 1월, 47~49쪽.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사실이 그렇습니다", *리아호나*, 2003년 5월, 48~50쪽.

제19과: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음의 큰 변화", *성도의 벗*, 1990년 3월, 2~7쪽.

스펜서 제이 콘디, "계속하여 선행하려는 마음",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14~21쪽.

미셸 툴리, "잠겨진 문 밖에서", *리아호나*, 2003년 7월, 22~24쪽.

제20과: 성찬을 집행함

고든 비 힝클리,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 *성도의 벗*, 1989년 5월, 2~6쪽.

피터 비 가드너, "말 이상의 것", *리아호나*, 2002년 2월, 28~29쪽.

웨이비 린, "성찬을 전달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리아호나*, 2001년 5월, 8~9쪽.

제21과: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함

로버트 디 헤일즈, "하나님에 대한 의무성", *리아호나*, 2002년 1월, 43~46쪽.

제프리 알 홀런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6~49쪽.

헨리 비 아이어링,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44~47쪽.

제22과: 가정에서 족장으로서의 지도력

제프리 알 홀런드, "아버지의 손길", *리아호나*, 1999년 7월, 16~19쪽.

에프 멜빈 하몬드, "아빠, 깨어 있으세요?",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97~99쪽.

로즈마리 드피, "아버지", *리아호나*, 2003년 6월, 22~24쪽.

제23과: 선교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제임스 이 파우스트, "나의 아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성도의 벗*, 1996년 7월, 40~42쪽.

엠 리셀 벨라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6~49쪽.

대릴 에이치 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3년 5월, 46~48쪽.

제24과: 일의 축복

조셉 비 워스린, "인생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34~43쪽.

더블류 톨프 카, "무익한 중", *리아호나*, 2003년 10월호, 26~29쪽.

키스 비 맥멀린, "시온에 모두 오라", *리아호나*, 2002년 11월, 94~96쪽.

제25과: 자기 수련을 통한 개인적인 순결

제임스 이 파우스트, "내부의 적",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4~57쪽.

닐 에이 맥스웰, "순결해야 할 이유들", *리아호나*, 2003년 3월, 6~12쪽.

제프리 알 홀런드,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2000년 10월, 40~43쪽.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설물의 함정을 피함", *리아호나*, 2002년 10월, 12~17쪽. ■

청년 교재 2 참고 지도서

2004년에 사용함, 제1~25과. 앞으로 참고 지도서는 *리아호나* 5월호와 11월호에 실릴 것입니다. *리아호나*는 여러 언어로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제1~25과)는 대체 자료가 아닌 보충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교수 제안은 *리아호나* 일반호의 *리아호나* 활용하기 편에 나와 있습니다.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교재에는 부활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 일요일에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세주의 속죄, 부활, 생애와 사명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차 대회 말씀, 교회 잡지 기사, 찬송가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제1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감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2~24쪽.

고든 비 힝클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2~5쪽.

제프리 알 홀런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리아호나*, 2002년 9월호, 10~13쪽.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24쪽.

제2과: 영적인 은사

조셉 비 워스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6~29쪽.

캐롤 비 토마스, “영성을 위한 재능을 발전시킴”,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06~108쪽.

크로포드 게이츠, “창조와 말일성도”, *성도의 벗*, 1987년 5월호, 45~49쪽.

제3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

엘 톰 페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룩함”,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41~44쪽.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교회를 세움”, *리아호나*, 2003년 9월호, 36~39쪽.

글렌 엘 페이스,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지 않군요”,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43~45쪽.

키스 비 맥밀런, “시온에 모두 오라”,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94~96쪽.

제4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게 함

고든 비 힝클리,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12~115쪽.

엠 리셀 벨라드, “의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4~43쪽.

마가렛 디 네이돌드, “햇불을 높이 드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08~110쪽.

제5과: 가정 환경

러셀 엠 벨슨,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0~82쪽.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거룩한 장소, 성스러운 곳”,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1~72쪽.

수잔 더블류 테너, “내가 말했었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3~75쪽.

제6과: 가사 분담

“가족 평의회: 벨라드 장로 부부와의 대답”,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12~17쪽.

제프리 알 홀런드, “봉사하라는

부름”,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6~38쪽.

제7과: 사랑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함

수잔 더블류 테너, “내가 말했었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3~75쪽.

앤 시 핑그리, “사랑: 한 번에 한 가족, 한 가정씩”,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08~110쪽.

캐롤 비 토마스, “가정과 가족을 강화함”,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05~107쪽.

제8과: 화술을 발전시킴

에이지 로스 워크맨, “투덜거림을 조심하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98~100쪽.

게일 엠 클레그, “사랑의 언어”,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4~76쪽.

크리스티 맥레인, “참된 친구가 됨”,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13쪽.

제9과: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료서의 청년

고든 비 힝클리, “각자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99~100쪽.

토마스 에스 몬슨, “숨겨진 썰기”,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9~22쪽.

엠 리셀 벨라드, “왕국의 평화로운 것”,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98~101쪽.

제10과: 신권: 위대한 축복

브렌다 윌리엄스, “끔찍하고 두려운 날”, *리아호나*, 2002년 9월호, 22~24쪽.

브랜든 제이 밀러, “저는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42~44쪽.

“신권 지도자를 지지함”,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25쪽.

제11과: 감독에게 감사함

보이드 케이 패커, “감독과 그의 보좌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71~74쪽.

로즈마리 드피, “아버지”,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22~24쪽.

“구세주의 희생에 감사드리며”,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26~27쪽.



제12과: 가정의 축복

브렌다 윌리엄스, "꿈쩍하고 두려운 날", *리아호나*, 2002년 9월호, 22~24쪽.

마리벨 헤레라 차콘, "신앙의 힘",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36~38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42~43쪽.

제13과: 축복사의 축복

보이드 케이 패커, "스테이크 축복사",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2~45쪽.

리차드 피 린지, "축복사의 축복에 따라 인생의 향로를 설계함", *성도의 벗*, 1991년 8월호, 18~21쪽.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22~24쪽.

제14과: 성전의 축복

제임스 이 파우스트, "여호와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2~5쪽.

라셀 엠 벨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7~40쪽.

크리스틴 윈밀 사우스위크, "성전 여행",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8~11쪽.

샬리 디포드, "그 성지에서",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20~21쪽.

제15과: 성전 결혼

스펜서 더블류 김볼, "결혼으로 하나가 됨",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36~41쪽.

라라 뱁거터, "꿈에 그리던 이상형",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46~47쪽

레베카 암스트롱과 엘리사 르네 메드슨, "영원히 그리고 삼일 데",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6~7쪽.

제16과: 일지

스펜서 더블류 김볼, "천사가 인용할 것입니다", *성도의 벗*, 1977년 6월호, 24~25쪽.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다리와 영원한 유품",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98~100쪽.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하여



가족의 유대를 구축함",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25쪽.

제17과: 가족 역사 기록

라켈 페드라사 데 브로시오, "파블로 할아버지를 찾아서", *리아호나*, 2003년 9월호, 30~31쪽.

보비 모간, "엽서를 통한 탐구", *리아호나*, 2002년 6월호, 46쪽.

매들린 커즈, "그들을 찾았어요!",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41쪽.

루스 도르세트, "숨겨진 책",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42~43쪽.

제18과: 의로운 전통의 유산

보이드 케이 패커, "인생의 향훈기",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82~84쪽.

도널드 엘 홀스트롬, "의로운 전통을 양성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4~35쪽.

제19과: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함

달린 에이치 옥스,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10쪽.

달린 에이치 옥스, "영을 양육함",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10~19쪽.

리차드 지 스코트, "강한 간증의 힘",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00~103쪽.

제20과: 복음 전도

달린 에이치 옥스,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10쪽.

스테파니아 포스티글리오네, "사랑으로", *리아호나*, 2003년 9월호, 22~23쪽.

스코트 빈, "내 가족에 관한 진리",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30~31쪽.

래니 리스, "100가지 질문",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8~9쪽.

제22과: 주님과 의논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기도라는 구멍 맞출",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2~69쪽.

헨리 비 아이어링, "기도",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6~19쪽

조엘 비 마카리올라, "3 센타보", *리아호나*, 2002년 6월호, 20~21쪽.

제23과: 금식은 축복을 가져다 줌

조셉 비 워스린, "금식의 법",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8~91쪽.

타이스 마르틴스 레알, "내가 해야 했던 중요한 일",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32~33쪽.

"금식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키움",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25쪽.

제24과: 일상 생활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영을 구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성령과의 교통",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7쪽.

리차드 지 스코트,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얻음",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12~19쪽.

로버트 알 스튜어,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임",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4~36쪽.

"어떻게 영감과 내 자신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44~46쪽.

제25과: 회생의 율법

제임스 이 파우스트,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9~22쪽.

엠 러셀 벨라드, "회생의 법",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10~20쪽.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오나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3~35쪽.

캐롤 비 토마스, "회생: 영원을 위한 투자",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7~79쪽.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주일학교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제1보좌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회장



발 알 크리스텐슨 장로
제2보좌

청남



린 지 로빈스 장로
제1보좌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
회장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제2보좌

상호부조회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제1보좌



보니 디 파틴 자매
회장



앤 시 핑그리 자매
제2보좌

청녀



줄리 비 벡 자매
제1보좌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회장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
제2보좌

초동회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
제1보좌



클린 케이 렌러브 자매
회장



게일 엠 클레그 자매
제2보좌

교회 소식

역원 변경을 지지하는 회원들; 지도자들 세상의 영향력을 물리치라고 말하다

제 173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몇몇 총관리 역원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이 해임되었고 네 명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이 지지되었다. 또한 본부 청남 회장단의 변경도 발표되었다.

세 명의 칠십인 제1정원회 회원이 명예 회원이 되면서 총관리 역원의 전임 봉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안헬 아브레아 장로,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및 크리 엘 코포드 장로 등은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전역의 집회소에 모인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표시를 받았다.

칠십인 제2정원회의 듀엔 비제라드 장로, 제이 켄트 줄리 장로 및 디 리 토블러 장로 등이 해임되었으며 그들에게도 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전달되었다.

이미 발표된 바 있는 네 명의 신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의 호세 에이 카스트로, 인도 뉴델리의 윌리엄 케이 잭슨, 유타주 샌디의 폴 브이 존슨 및 유타주 하이랜드 제이 엘 시터루드.

열일곱 명의 칠십인 지역관리 역원이 해임되었다.(명단은 이번호 23쪽에 있는 “교회 역원 지지” 참조)

또한 본부 청남 회장단의 변경이 발표되었다. 칠십인 정원회의

글렌 엘 페이스 장로와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가 각각 제1보좌와 제2보좌에서 해임되었다. 제1보좌에는 칠십인 정원회의 린 지 로빈스 장로가 지지되었으며, 제2보좌에는 칠십인 정원회의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가 지지되었다. 본부 청남 회장에는 칠십인 정원회의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가 취임되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를 연단으로 초청하였다. 힝클리 대관장은 회중에게 헤이트 장로는 97세로 “현 경륜의 시대에서 최 장수 사도”라고 말했다. 헤이트 장로는 회중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으며 최근의 병세로 인해 단상에 앉아 있는 대신 텔레비전을 시청하기로 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오전 모임 말쑈에서 교회 성장을 돌이켜 보면서 전세계적으로 모인 성도들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는 미국의 모든 주와 캐나다 모든 지방에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모든 주와, 중앙 아메리카의 모든 국가,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 전역에 걸쳐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남태평양 군도에도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동양에 있는 여러 국가에도 교회가 잘 설립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의 모든 국가에 있으며 아프리카에도 확고하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총관리역원과 합창단이 전세계에 있는 회원들과 함께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

힝클리 대관장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겨우 표면에 손을 댔을 뿐입니다. ... 우리의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 아래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선교 사업, 인도주의적 지원(본 페이지 관련 기사 참조), 그리고 영구 교육 기금을 포함한 몇 가지 사업의 근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보고했다. “현재까지 교회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에 있는 젊은 남녀들에게 10,000건이 넘는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 현재 약 600명의 젊은 남녀가 훈련을 마쳤습니다. ...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 계획이 잘 진행되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힝클리 대관장과 다른 몇몇 지도자들은 쇠퇴해 가는 세상의 표준에 관해 말씀했으며 대회 참석자들에게 교회 표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이 교회의 사명이 원방에 세우는 기가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증드립니다. ...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단념케 하려는 세력이 도처에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우리의 결집을 약하게 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포기하게 하는 압력을 느낍니다. ...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보호자, 우리의 안내자와 계시자가 되실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표준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무리 우리가 현대의 사회적 표준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우리의 표준이 하찮게 보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표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

라드 장로는 성도들에게 증가하는

교회가 홍역과의 전쟁을 위해 3백만 달러와 다른 자원을 아프리카에 지원하다

리사 앤 잭슨, 교회 잡지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박멸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흔하게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과 싸우기 위해, 교회는 아프리카에 있는 수백만 어린이의 홍역 예방을 위한 사업에 참여했다. 교회 관계자는 2003년 9월 17일,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기념 행사에서 그러한 지원을 발표했다.

교회는 재정적인 도움과 현장 지원에 대해, 향후 3년간 3백만 불 이상과 아프리카에서 홍역 감염자를 줄이는 일을 돕는 Measles Initiative(홍역 퇴치 프로그램)에 지역 자원봉사자와 장비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어린이 1인당 미화 1달러가 채 안 되는 백신에 대해 고든 비

시대 풍조에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격려했다. “우리는 현재의 시대 풍조에 반대하는 전세계의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성을 높여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불쾌한 대중 매체를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정신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과 제작물을 지원해야 합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대중 매체에 이용당하는 일을 거부하십시오. 조종당하는 일을 거부하십시오.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에 위배되는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일을 거부하십시오.” ■

힝클리 대관장은 2003년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기증한 기금만으로도 3백만 명의 어린이를 위한 백신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훌륭한 일입니까?”

홍역 퇴치 프로그램에 따라 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2억 명의 어린이가 예방 접종을 하게 된다. 홍역은 아프리카에서 실명의 주요인이며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사망 요인이다. 퇴치 프로그램은 대략 120만 명이 홍역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다.

퇴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체에는 American Red Cross(미 적십자사), United Nations Foundation(유엔 재단),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유엔 아동 기금, 세계 보건기구 및 팬 아메리카 보건 기구 등과 더불어 국제 적십자사와 Red Crescent(적신월사)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정부들이 있다.

미 적십자사의 총재 겸 최고 경영자인 마사 제이 에반스씨는 교회가 제공하는 첫 번째 기부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종식시키겠다는 중대한 결의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교회가 최근에 다른 적십자 사업을 위해 미화 2백만 불을 추가로 기부하고 금년 6월 잠비아에서 예방 캠페인에 도움을 준 것을 비롯하여 적십자사가 구조 활동을 하는 데 광범위한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리 감독은 데저렛 뉴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적십자사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여러 사업에 참여했으며 계속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에서 흥역 예방을 위해 기부한 돈은 십일조 기금이 아니라, “그것은 충실한 성도들이 교회의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헌금한 돈이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교회는 또한 퇴직 프로그램에서 현장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교회 회원들이 자원 봉사를 할 것이며 집회소가 그 일에 사용되도록 제공될 것이다.

“어린이의 죽음을 예방하고, 그 많은 어린이를 것처럼 쉽게 돕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교회 복지 및 인도주의 서비스부의 책임자인 해롤드 시 브라운 형제는 교회를 대표하여 기금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독일의 교회 웹사이트는 최근 자국어로 교회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한 몇 개의 사이트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가 각 나라를 위한 공식 웹사이트를 시작하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교회는 각 나라와 언어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는 국가의 특정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해당 국가에서 인터넷에 대한 교회의 공식 입장을 대신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기술 혁신은 교회의 잡지 같은 인쇄물 뿐 아니라 위성 시스템, 웹사이트,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너희는 그의 말씀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라,” 리아호나, 2000년 7월 호, 29~30)

지역 회장단은 지역 인터넷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의 필요사항을 조사 중이다. 이 기사가 쓰여졌을 때, 이미 8개국에서 작업

을 완료했으며, 26개 사이트가 작업 중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에는 호주, 칠레,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및 스위스가 있다.

국가별 사이트는 말일성도와 교회에 관해 좀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스웨덴 사이트를 보면, 사이트 방문자들은 선교사에게 친구를 소개할 수 있으며, 호주 사이트를 보면, 신문 및 방송 관계자들은 지역 교회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노르웨이 사이트에서 방문자들은 지역에 관한 소식을 알 수 있으며, 칠레의 경우, 회원들이 지역 회장단과 지역지도자들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칠레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오스카 사베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목적은 영감에 찬 내용으로 교회 회원들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방법이 가능한 시기에, 특별히 주



적십자 간호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에게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교회가 기증한 백신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 3백만 명이 흥역 예방 접종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 촬영: 캐리 몰라이크

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부름과 임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을 커다란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각국의 사이트는 www.lds.org에 접속하면 된다. 현재 운영 중인 리스트를 찾으려면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Country Sites”를 클릭한다. ■

성도들 이야기

인도 하이데라바드
페이 에이 클링글러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인도 하이데라바드는 약 4백 2십만의 인구가 북적거린다. 옛 건물들이 새로운 성장과 도시 계획으로 뒤섞여 있는 이 도시에서 거리를 걷다 보면 인도의 여러 언어를 듣게 된다.

공식 언어는 힌두어로서 인구의 30퍼센트가 사용하고 있다. 영어는 제2 공용어로서 고등 교육 기관, 정부 및 통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물론경은 힌두어와 텔루구어로 번역되었으며,

물문경의 일부가 벵골어와 타밀어로 번역되었다. 인도에는 적어도 알려진 언어가 300여 개가 되지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언어는 단 하나, 즉 영의 언어이다.

1850년, 인도에서 교회는 초라하게 시작되었으나, 힌두교가 널리 퍼져 있는 이 국가에서 3개의 지방부와 22개의 지부를 갖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남부 중앙 인도에서 과학과 기술의 중심지인 하이데라바드 시에 건립되는 최초의 예배당은 2003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18세 된 군디 솔로몬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한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만 봐도 저는 영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완공과 더불어,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교회 회원과 구도자들은 함께 만나, 이스라엘이 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의 언어를 느낄 아름다운 건물을 갖게 될 것이다.



하이데라바드에서 성도들이 모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함께 봉사하는 것은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영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성도들의 사랑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으며 얼굴에 복음의 광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스라엘은 회상한다.

이스라엘처럼, 17세 된 마드후 봉가는 처음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영을 느꼈던 때를 기억한다.

2000년 12월에 처음 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마드후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렇게 많은 낯선 사람들이 제 옆에 와 앉아서 제 인생에 관해 말해 주는 것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고 이해하려고 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좋았으며 집으로 뛰어가면서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드후와 교회의 다른 청소년 회원들은 교회와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지역 사회의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에서 영을 유지한다.

마드후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 중에서는 저만 회원입니다. 복음 안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

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리에 참석합니다. 우리는 자선 단체에 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게임을 하는 등 많은 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저는 청남 청년들과 함께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벽에 페인트 칠도 하고, 회원들이 이사할 때 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이데라바드 제1 지부의 지부장인 조셉 코넬리우스도 봉사하고 교회 모임 참석이 영을 느끼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회원들은 일년에 한 번씩 고아원에 보낼 옷을 수집하는 봉사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합니다. 가족 기도를 하고 가정의 밤도 갖습니다.”라고 코넬리우스 지부장은 말한다.

최근에 하이데라바드 제1 지부와 제2 지부의 회원들은 헌 옷을 수집하고 쌀과 잡곡을 모아 청소년 보호소에 전달했다. 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기차역으로 가서 그 곳에서 생활하는 소년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데려다가 잘 곳을 마련해 준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제1 지부와 제2 지부의 자매들이 소년 보호소의 벽을 닦아내고 있다.

보호소에서는 또한 교육과 상담도 해 주고 있다.

교회 회원들이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여러 번 방문하여 게임도 하고 함께 웃고 지낸 후에 회원들은 시급히 수리해야 할 보호소의 벽을 말끔히 닦아냈다. 페인트가 기증되었으며 그것을 칠하여 보호소는 깨끗하고 기분 좋은 모습이 되었다.

봉사 활동을 하는 곳이든 정답게 복음 토론을 하는 곳이든, 영은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속삭여준다. 영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분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이 나라 전역의 성도들을 단합시켜 준다. ■

뉴스에서

서 카사이 지방에 조직된 최초의 지방부

2003년 4월 21일 콩고 민주 공화국 서부 카사이 지방에 최초의 지방부가 조직되었다.

카낭가 지방부는 당시 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선교부의 선교 부장이었던 브렌트 필 피터슨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지방부에는 카낭가 제1, 제2 지부, 카토카 지부, 그리고 은데샤 지부가 포함되어 있다.

카낭가에서 최초의 공식적인 모임은 1988년 5월, 고 그레고리 칼랄라 바카디아반야가 킨샤사에서 침례를 받고 난 후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선교부장으로부터 이웃과 가족이 함께 만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때 가졌었다. 바카디아반야 형제의 방문이 있고 나서 거의 5년이 지난 후인 1993년 1월 12일에 최초의 지부가 조직되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은 1986년 2월에 교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현재 서아프리카 국가에는 11,000명 가량의 회원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될 때,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 중 이 지역에서 전임 선교사를 만날 기회를 갖게 되고 시온의 스테이크가 생기는 것도 보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카낭가 지방부장인 에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은 최근 캐나다 앨버타주 카드스톤 시로부터 미화상을 받았다.

릭 벨랑게니이 카팡가는 말한다.

카드스톤 성전이 미화상을 수상하다

캐나다의 카드스톤 시는 최근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에 그 시의 연례 미화상을 수여했다. 이 성전이 그런 방식으로 영예를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카드스톤 시장이자 성전장단 보좌인 스텐 존슨은 그 상이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미화에 성전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하나의 표시라고 말했다.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은 1923년에 제7대 대관장인 히버레이 그랜트 대관장에 의해 헌납되었으며 1991년에 확장 보수한 후 당시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에 의해 재헌납되었다.

처치 뉴스, 2003년 9월 20일자 내용 인용 및 수정

컨퍼런스 센터 수상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미 조경 건축 협회)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를 조경 건축에서의 탁월한 점을 들어 디자인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것은 436개의 출품작 가운데, 상을 받은 33개 작품 중 하나였다. 상은 디자인, 기능, 내용, 환경 책임 및

전문성, 대중성 및 환경 친화성에 따라 주어진다.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올린 파트너십이 설계한 컨퍼런스 센터의 조경은 유타 주에 자생하는 나무, 풀 및 야생화가 특징이다.

처치 뉴스, 2003년 9월 13일자 내용 인용 및 수정

회원들 국립 자원 봉사자 상 수상

Tucson Community Food Bank(투손 지역사회 푸드뱅크)와 애리조나 교회 회원들 사이에 유지되어 온 7년 간의 협력으로 인해 America's Second Harvest(아메리카 세컨드 하비스트)로 불리는 미국 푸드뱅크 협회는 교회에 올해의 그룹 자원 봉사자 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투손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제공한 수많은 시간의 봉사를 치하하는 것이다.

푸드뱅크는 37킬로짜리 쌀과 콩 포대를 제공하며, 일주일에 3일 동안, 최대 100명의 교회 자원자들이 투손에 있는 교회 통조림 저장소에 모여 가족용 크기로 식품을 포장한다. 매월 약 19,000킬로그램의 식품이 재포장되어 분배를 위해 푸드뱅크로 보내진다.

처치 뉴스, 2003년 9월 20일자 내용 인용 및 수정



새로 조직된 카낭가 지방부의 형제들이 신권 지도자 모임에 모여 있다. 지방부는 2003년 4월에 조직되었다.